

전재성 빠알리성전협회 회장
니까야로 부처님의 삶
설명하고 싶었어요
16·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3월 15일) · 주간

제937호 2013년 4월 24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별역잡아함경〉

사람의 목숨은 아주 짧으니
부지런히 수행해야 하며
반드시 착한 행을 닦아야 한다.

어린이 포교와 사회 공헌을 동시에

적조사, 불교계 최초 민관연대 어린이집 개원

서울 성북구 돈암동 적조사. 적조사(주지 법화)는 최근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사찰 내에 국공립 가람어린이집을 오는 4월 30일 개원하기 때문이다. 이미 시설은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가 60여 명의 영유아를 15명의 보육교사 상근하며 보육을 책임지고 있다.

적조사가 위탁 운영하는 가람어린이집은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관공동연대 방식의 어린이집으로 불교계에서는 적조사가 최초로 개원하는 것이다.

면적 262㎡, 지상 2층 규모의 가람어린이집은 0~7세의 영유아가 대상이며, 목욕실 · 조리실 · 옥외 · 옥상놀이터 · 주차장 등의 시설이 구비돼 있다.

일반적인 국공립 · 사립 어린이집과는 달리 민관연대 어린이집은 기존 건물을 활용해 운영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종교시설 등에게는 사회 공헌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적조사의 경우도 기존에 있던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해 어린이집으로 그 위상을 변모시켰다.

적조사 주지 법화 스님은 "사찰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불교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어린이집을 통해서 사회적 과제인 영유아 보육에도 일조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가람어린이집에는 향후 원어민 영어교실이나 사찰 환경을 이용한 생태교육 등 전인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민관연대 어린이집은 서울 도심사찰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만 한 복지 아이템이다. 민관연대 어린이집은 지난해 2월 서울시가 발표한 '동(洞)별 국공립 어린이집 2곳 이상 확보'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하반기에는 36곳이 선정됐다.

기존 건물 어린이집 개조
0~7세까지 영유아 보육
영어교실 등 전인교육 계획

서울시, 민관연대 어린이집
2014년까지 200개소 확대
교회 압도적… 불교 관심 필요





서울 정릉 적조사에 들어선 민관연대국공립 어린이집〈위〉과 적조사 어린이집에서 수업 중인 모습〈아래〉.

이로 인해 서울시는 1만6,530㎡(약 5,000평)의 공간을 지원받았으며 비용은 88억 원으로 약 69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

이중 종교 단체의 부지나 건물을 제공받아 설립되는 민관연대 어린이집은 22곳. 이중 17곳이 개신교회이며, 4곳만이 사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에 접수된 종교단체 민관연대 어린이집도 11곳 중 10곳이 교회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 역시 민관연대를 통한 어린이집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법화 스님은 "영유아 보육문제는 한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면서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해 설립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찰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복지 아이템이다. 불교계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서울시는 내년까지 200여 곳의 어린이집을 확충하며, 이중 적지 않은 비중을 민관연대 어린이집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관연대 어린이집은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법적 기준에 따라 1층에만 어린이집을 둘 수 있다. 관심있는 단체는 자치구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시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며 "민관연대 국공립어린이집은 시민참여를 통해 적은 예산으로도 양질의 보육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확대한다는 게 시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제29대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선출

18일 정기 종의회서… "하심으로 종단 이끌 것"

개정된 종헌종법 의거
3년 8개월 직무 수행

진각종 제29대 통리원장에 명륜심인당(부산 동래구 명륜2동) 주교 회정 정사가 선출됐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혜명 정사 · 사진)는 4월 18일 서울 성북구 하월동에 위치한 진각문화전승관 내 종의회 회의실서 재적의원 37명 중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4회 정기종의회를 겸한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회정 정사를 신임 통리원장으로 선출했다. 1차 투표에서 29표를 얻은 회정 정사는 6표를 획득한 무외 정사를 23표 차로 앞서 신임 통리원장이 됐다.

신임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임 집행부의 업무와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종무행정을 이끌겠다"며 "화합은 하심에서, 소통은 나눔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듯이 항상 하심하면서 전 종도들이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통리원장의 4년 임기 중 회정 정사는 만 65세 정년으로 개정된 종헌종법에 의거해 3년 8개월 동안 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회정 정사는 1980년 향가심인당 교화를 시작으로 정제심인당을 거쳐 황경심인당 주교, 지륜심인당 주교, 실상심인당 주교, 밀각심인당 주교에 이어 현재는 부산의 명륜심인당 주교로 재직중이다. 제27대 통리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회정 정사는 제 8, 9, 11대 종의회 의원, 통리원 총무부장, 회당장학회 이사장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2012년에는 종사 행계를 품수했다.

종단 산하기관에서도 회정 정사는 많은 직책을 두루 거쳤다.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 진선여자중고등학교 정교실장 및 전담임원,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상임이사와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외에도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청정국토가꾸기운동본부장,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본부회장 등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4월 15일 박근혜 대통령 초청 한반도 평화와 국민 행복을 위한 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평화 · 행복 위해 노력하자"

종단협, 15일 한반도 평화 기원법회 봉행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4월 15일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박근혜 대통령 초청 '한반도 평화와 국민 행복을 위한 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과 부회장 인공 · 도정 스님 · 혜정 정사 등 주요종단 지도자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정갑윤 국회 정각회장 등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은 봉행사에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가 활성화하고, 문화가 융성하면 국민이 행복해 진다"며 "국민이 행복해지면 굳건한 평화의 바탕 위에 통일이 다가올 것이고, 풍요로움과 나눔 속에 새로운 문화가 싹틀 것"이라고 말했다.

법회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불교계가 불심으로 나라를 수호하고 호국불교의 정신으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국민 통합을 위해서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937호 INDEX

종합 2·3
5월, 해외 고승들 한국 찾는다
조계종 원로의원 선출
전국은 벌써 연등 물결
조계종 선학원 대책위 입장문

시방세계 5
불교스카우트 연맹 효행캠프

함께가요 강의실 8
도올-탄허 스님의 화엄세계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새학기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합시다

포교 일선 사찰들 캠페인 후원 동참

서울 강남 구룡사, 봉은사와 신촌 봉원사, 부산 삼광사, 서울 진관사 등 포교 일선 사찰들이 본지와 조계종 포교원의 공동 캠페인에 십시일반 마음을 내주셨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성원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정우 스님
서울 구룡사 회주



진화 스님
서울 봉은사 주지



무원 스님
부산 삼광사 주지



주경 스님
서산 부석사 주지



일운 스님
신촌 봉원사 주지



계호 스님
서울 진관사 주지

■ 문 의 : 02)2011-1903 (조계종 포교원)
02)2004-8258 (현대불교)
■ 동참계좌 : 국민 006-01-0785-361 ㈜현대불교신문사

어린이 불서를 법공양 받고 싶은 독자와 사찰에서는 문의 전화나 이메일(motp79@hyunbul.com)로 신청해 주십시오.

혜암당 성관대종사
탄신 94주년 기념 화보집 봉정법회

대한불교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당 성관대종사 탄신 94주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화보집 봉정법회를 봉행하오니 제방의 원로 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_ 불기 2557(2013)년 5월 1일 (음 3.22)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_ 법보종찰 해인사 원당암
- 문 의 _ (055)932-7308

※혜암 대종사 정기문도회의는 5월 1일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문도 스님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혜암당 성관대종사 문도대표 성법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음료는

마음 챙김의 감로수이다.

이 감로수의 흐름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리라.

보통의 음료와는 달리, 마음 챙김의 감로수는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목마름을 한 번에 가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말라레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마실 음료가 필요하거든 마음 챙김과 깨어 있음의 차를 마셔라."

만약 점진적으로 수행을 진전시키고 실수를 극복하려면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이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먹을 때, 쉴 때 언제든지 마음챙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것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깨어 있음은 죽음과 재탄생 사이를 지날 때, 인과의 과정을 거칠 때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낮 동안 있었던 일들과 생각들을 돌아보고 실수나 경솔한 행동들을 반성하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스승을 만난 것과 그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매우 잘한 일이란 것을요. 선행으로 모든 중생들에게 공덕을 회향하고 그들을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서원하십시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佛誕 5월, 해외 고승들 한국 찾는다

조계종 · 불교TV, 틱낫한 스님 초청 마음 챙김 수행 진행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들이 잇달아 한국을 찾는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틱낫한 스님〈사진〉의 방한이다. 스님은 이미 1995년과 2003년에 한국을 찾은 바 있으며, 이번 방한은 태국 한국 홍콩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투어의 일환이다.

틱낫한 스님의 방한은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불교TV(회장 성우)가 부처님오신날 기념행사로 추진한 것으로 스님은 오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을 돌며 집중 명상수행과 대중강연을 개최한다.

공식 일정은 5월 2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방한 기자회견으로 시작되며, 5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동안 강원도 평창 월정사에서 '힐링 · 상생 · 행복' 을 주제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만 20세 이상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틱낫한 스님은 직접 걷기명상과 플럼빌리지의 대표 수행프로그램인 5가지 마음챙김수행 등을 지도한다.

5월 8일과 9일에는 경기도 김포 중앙승가대학교에서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21세기 부처는?' 을 주제로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평화 운동을 위한 대중 강연도 마련된다. 5월 10일 오후 3시 부산 범어사에서 '평화는 가능하다' 를 주제로 강연이 열리며 이 자리에서는 틱낫한 스님의 '평화론' 을 만날 수 있다. 통역은 혜민 스님(미국 뉴햄프셔대학 교수)이 맡는다.

5월 1~15일까지 전국 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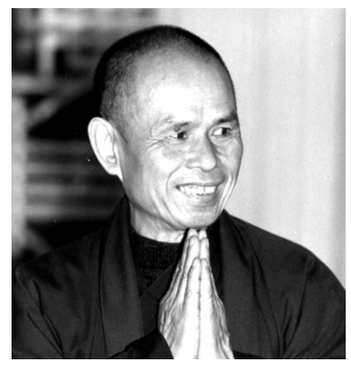
서울 동국대 등서 대중 강연

월정사에서는 명상 수련 진행

봉인사, 디빵까라 스님 초청해

위빠사나 캠프… 5월 6~15일

서울 동국대 실내체육관에서는 '마음챙김 수행의 날' 행사가 진행된다. 12일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틱낫한 스님의 법문과 플럼빌리지 법사단의 이완 명상 및 질의 응답이 진행된다. 당일 접수는 불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접수 등록을 해야 한다.



방한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5월 13일 오후 7시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멈춤 그리고 치유' 주제의 대중강연이다. 강연에는 틱낫한 스님과 플럼빌리지 법사단이 모두 참여해 명상 수행의 진면목을 선사한다.

5월 14일 오전 9시30분에는 서울 양천구 조계종 국제선센터에서 'WAKE UP' 수행프로그램이 진행된다. 'WAKE UP' 수행프로그램은 틱낫한 스님의 마지막 아시아 투어를 기념해 플럼빌리지의 젊은 법사단이 직접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며, 젊은 세대들의 공통적인 또는 개별적인 고민을 서로 나누며, 현명한 지혜를 나누는 장이 될 예정이다.

불교TV 관계자는 "틱낫한 스님은 88세의 노령인만큼 이번 아시아 투어는 생애 마지막 아시아 투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방한은 더 가깝고 생생한 스님의 가르침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www. tnhkorea2013.org

이와 함께 경기 남양주 봉인사(주지 적경)는 미얀마의 유명한 위빠사나 여성 수행자인 디빵까라 세얄레이 스님을 초청해 집중 수행 강좌를 연다.

5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강좌에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마흔가지 명상 주제를 통해 초선정에서부터 팔선정에 이르는 선정수행과 위빠사나 수행을 소개하고 이를 스님의 지도에 따라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봉인사는 집중수행 강좌 기간 동안 서울대 의과대학 보완통합의학연구소와 함께 호흡집중명상이 뇌파와 스트레스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할 예정이다.

한편, 디빵까라 세얄레이 스님은 미얀마의 유명한 아비담마 지도자인 파아욱 스님에게 수행지도를 받았으며, 이후 10여년 넘게 세계 각국의 국제불교센터를 순회하며 명상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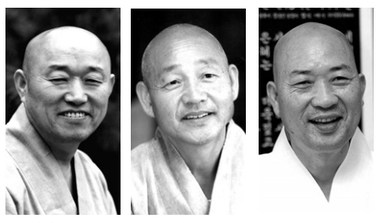
조계종 원로의원 성우 · 성파 · 대원 스님

원로회의 42차 회의서 선출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는 4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42차 회의를 열고 대원, 성파, 성우 스님을 신임 원로의원으로 선출했다. 이날 원로회의에서는 22명 원로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성우 스님은 고송 스님을 은사로 1963년 파계사에서 출가했다. 중앙승가학원(現 중앙승가대) 초대원장, 조계종 제11~12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동화사 율주, 불교TV 회장이다.

성파 스님은 월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성우 스님 성파 스님 대원 스님

1960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0년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1년 통도사승가대학을 졸업한 이후 총무원 사회부장과 교무부장, 통도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서운암 회주다.

대원 스님은 상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8년 고암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62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현재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이다.

성우 · 성파 · 대원 스님은 성수 스님 입적과 지혜 · 초우 스님 임기만료에 따른 것이다. 원로회의 명예의원에는 도견 · 이두 · 녹원 · 도원 · 보성 · 활안 · 원명 · 동춘 · 지혜 · 초우 대종사 등 10명이 추천됐다.

한편, 이날 원로회의는 부의장 명선 스님에게 지난해 6월 여수 WFB성공개최 공로를 치하하는 종정표창을 전달했으며 법인법 제정과 승적관련 특별조치법 제정 보고 등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진흥원 제자리 찾기 특위 첫 회의

의장단 선출… 자문위원 두기로

대한불교진흥원제자리찾기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원학)는 4월 17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석부의원장에 종상 스님, 부위원장에 장적 스님, 간사 각림스님을 각각 선출했으며, 실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법률적 검토를 위한 자문위원을 두기로 결의했다. 자문위원과 전문위원 선출은 의장단에 일임하기로 했다.

위원장 원학 스님은 "진흥원은 故 장경호 거사가 불교진흥을 위해 재산을 출연해 설립됐지만 현재는 사유화된 경향이 크다"며 "진흥원 이사진과 대화를 통해 본래 설립취지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위원회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에는 의장단 이외에도 성직, 정문, 범해, 함결, 정인, 각림, 만당, 정운스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영담 스님 불교방송 이사장직 해임

이사직 유지 둘러싸고 논란

영담 스님이 불교방송 이사장직에서 해임됐다. 불교방송 이사회는 4월 19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 백합홀에서 열린 81차 이사회에서 이와 같은 안을 가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 21명 중 18명이 참여했으며 영담 스님, 춘광 스님(천태종), 박순곤 이사 등 3명은 불참했다.

불교방송 관계자는 "19일 날짜로 영담 스님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진흥원 측 이사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해임안과 사직서 수리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이를 놓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해임안 10표, 사직서 수리안 8표가 나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사장직 해임이 결정된 후에도 이사직 해임 여부를 놓고 장시간 이사회는 계속됐다.

결국 이날 이사회에서 조계종측 이사스님 6명은 영담 스님의 이사직 해임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종단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퇴장했다.

정혜숙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세계적 여성 명상 지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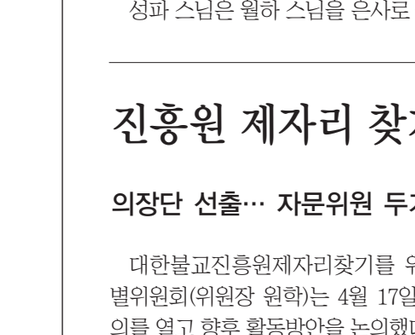
디빵까라 세얄레이 초청10일 집중수행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가르침을 그대로

사마타(선정)와 위빠사나(통찰)수행을 단계별로 지도합니다.

수행의 시작에서 깨달음에 이르기 까지 체계적인 시스템

개인 면담 지도를 받으며 수행 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초심자에게는 명상의 주된 주제인 아나빠 나 사띠(호흡관)와,
사대(지,수,화,풍) 관찰방법이 주어지며 이후 집중과
지혜의 계발에 따라서 개별적인 가르침을 받습니다.



◆ 수행일정안내 ◆

- 일 시 : 2013년 5월 6일 ~ 5월 15일 (9박 10일)
- 장 소 : 봉인사 한길정진원 (www.bonginsa,net / bonginsa@hanmail.net)
- 참 가 비 : 45만원 (스님 : 18만원)
- 입금계좌 : 농협 355-0000-5973-03 (예금주 : 봉인사)
- 준 비 물 : 개인세면도구, 개인컵
- 접수문의 : 031)574-5585, 070-7766-6547



***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배우는 뜻깊은 이자리에 모인 모든 존재들을 위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두손모아 기다립니다.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성지순례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골굴사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 변 성 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단 체 공 양(식사)** : 예약가능(유료)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11시,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자비기금 1천만원 쾌척

4월 17일 아름다운동행에 전달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사진〉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자비나눔기금 1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진제 스님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우한 이웃과 부처님의 자비를 나누고자 4월 17일 종정예경실장 효광 스님을 통해 이번 기금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진제 스님은 2011년 12월 자비나눔기금 1000만원을 기탁한 이래 201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2000만원을, 연말에는 1000만원을 기부했다.

진제 스님은 "부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고 의미를 되새기며 더불어 즐겁게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기금을 쾌척했다"며 "이웃들이 나눔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이나은 기자

"젊은 세대 교육 시급"

18일 사찰 불교대학장 간담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4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불교대학 학장 간담회를 열고 신도전문교육과 포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불교대학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2년 불교대학 교육연수 참가자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포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교대학 수강생은 여성불자가 78%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층은 50대가 52%, 40대 연령층이 29%에 달하는 반면 20~30대가 2%에 불과해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강생들은 불교대학 강좌를 수강하게 된 이유로 자발적 의사 52%, 주변 도반의 권유 24%를 주로 꼽았다. 또 불교교리를 체계적으로 듣기위해 불교대학을 찾는 것(48%)으로 나타났다.

이날 불교대학 간담회에서는 불교대학의 종단 필수교육 시행 등에 대한 안내와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포교원은 네이버에 불교대학까페(cafe.naver.com/pogyowonacademy)를 개설해 교육자료 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전국은 벌써 연등 물결 '넘실'

4월 23일 광화문 광장서 봉축 점등… 연등회 5월 11~12일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한 연등회가 4월 23일 봉축 점등식을 시작으로 일정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봉축 점등식은 올해부터 시청 앞 광장에서 광화문 북측 광장으로 옮겨 불을 밝히게 돼 눈길을 끈다.

올해 광화문 광장에 밝혀지는 '석가탑 등'은 국보 제21호인 불국사삼층석탑(석가탑)을 전통등으로 만든 것으로 높이가 18m에 이르며, 사방에서 '동자동녀 등'이 장엄했다.

이날 봉축 점등식은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위원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을 비롯하여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과 불교계 인사 등 사부대중 2천여 명이 참석했다. 봉축 점등식과 더불어 서울 종로와 청계천 등 서울시 전역에는 약 5만여개의 가로연등이 설치돼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희망과 행복도 기원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본행사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조계사 우정국로와 종로 일대에서 개최된다.

5월 10일부터 삼성동 봉은사와 조계사 옆 우정공원, 청계천에서 전통 등 전시회가 열린다. 현대적으로 조형된 전통 등을 통해 한지 고유의 은은한 멋과 빛의 아름다운 향연을 만날 수 있다.

동자등 전시… 국민 행복 기원
서울에만 5만여 가로 연등
연등회, 외국인 참여 증가 예상
자원봉사 서포터즈 역할 기대

5월 11일 오후 4시부터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5만 명의 흥겨운 춤사위와 신나는 노래의 어울림마당이 펼쳐지며, 연등법회 직후에는 한지로 만든 10만개의 행렬등과 장엄등이 함께 동대문을 거쳐 종로, 종각거리까지 빛의 행진이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관광공사(KTO)가 주관해 40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직접 자신의 등을 만들어 연등회 행렬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연등회의 특징 중 하나는 처음으로 연등회를 위한 자원봉사단 '연등회 서포터즈(Supporters)'가 대한불교청년회 주관으로 구성되어 봉사활동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연등회 서포터즈는 한국인과 외국인 청년, 대학생들로 구성되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연등 만들기 및 연등행렬관람 행사 지원, 전통문화마당의 안내 통역 봉사, 연등회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한다.

봉축위원회는 "80여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연등회 서포터즈는 연등회가 세계인이 함께 직접 참여하고 진행하는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한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기 전국 사찰에서는 봉축 기념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신중일 기자



4월 17일 조계사 대웅전 마당에서 제2회 조계사 천연염색축제 '물들'이 진행되었다. 불자들은 조계사 염색반의 도움을 받아 빨강(소방목) · 노랑(황련과 황대) · 파랑(쪽)색의 연등축제 때 쓸 스카프를 염색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 교구별 주요 봉축 행사

봉축위원회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연락처
제2교구본사 용주사	수원점등식	4월 25일	수원 화성행궁	031)226-3488
	화성점등식	5월 12일		
	화성 서부경찰서/ 동부경찰서 법회	5월 17일/5월 24일	서부경찰서/동부경찰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문화공연	5월 17일	용주사 경내	
제 3교구 신흥사	동자승 수계식	4월 27일	신흥사 극락보전	033)636-7044
	설악산 신흥사배 축구대회	5월 4일~5일	속초시 종합경기장	
	점등탑 점등식	4월 19일	구)소방서앞 전광탑	
	연등행렬	5월 11일	엑스포광장(상징탑)→시청→동명항 광장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5월 17일	신흥사 극락보전	
제4교구본사 월정사	오대산 천년의 숲 걷기대회	5월 4일	월정사	033)339-6800
	연등회(점등식, 봉축법회, 연등행렬)	5월 12일	진부시내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5월 17일	월정사 대웅전	
제5교구본사 법주사	유등제	5월 11일	보은일대	043)543-3615
	봉축행사(법요식, 문화공연)	5월 17일	법주사내	
	다문화가정 사찰음식축제	5월 중	법주사내	
제6교구본사 마곡사	2013 마곡사 신록축제	4월27일~4월28일	마곡사 일대	041)841-6221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5월 17일	마곡사	
제7교구본사 수덕사	충청남도 도청 점등식	5월 2일		041)330-7700
	봉축 법요식	5월 17일	수덕사	
제8교구본사 직지사	봉축 점등식	4월 27일	ktx역사	054)429-1700
	봉축 법요식, 산사음악회	5월 17일	직지사	
제9교구본사 동화사	성보박물관 이상순화백 기획전(展)	5월1일~5월24일	성보박물관, 선체험관	053)985-4404
	관등행렬	5월11일	두류야구장~반월당	
	휴(실)직자들을 위한 무료템플스테이	5월16일~17일	국제선센터	
	봉축음악회	5월 17일	설법전 앞	
	봉축행사	5월 17일	동화사 내	
	동아시아 약사신앙 세미나	5월29일~5월31일	대불전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봉축 점등식, 연합법요식	5월 4일	금호강 강변 공원	054)335-3318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17일	은해사 법당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어르신 경로잔치	5월 초	불국동, 구정동 경로당	054)746-9912
	선덕여상,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전달	5월 초	불국동	
	봉축탑 점등식	5월 10일	경주역 광장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탑돌이	5월 17일	불국사	
제12교구본사 해인사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5월 17일	해인사 법당내	055)934-3005
제13교구본사 쌍계사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5월17일	쌍계사	055)883-1901
제14교구본사 범어사	등축제, 전통 등 공모전	5월1일~19일	범어사 경내	051)508-3122
	봉축점등식	5월 10일	범어사 경내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	5월 17일	범어사 법당	
	불교문화체험(탁본,인경,소원등, 단주만들기,페이스페인팅등)	5월 17일	범어사 경내	
제15교구본사 통도사	봉축탑 점등식	4월 30일	양산 시내 일대	055)382-7182
	연등축제(장엄등경연대회)	4월 26일	일주문~신평사거리	
	지역특산물 전시 판매	5월16일~18일	통도사 내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5월17일	통도사 내	
	음악회	5월 28일	통도사 매표소 밖	
제16교구본사 고운사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5월 17일	고운사	054)833-2324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전북어린이 큰잔치	5월 4일	전주 덕진공원	063)548-4441
	온고을 한마당 잔치	5월 4일	전주 덕진공원	
	전북굴교연합합창제	5월 4일	전주덕진공원	
	대학체식요리대회 및 사찰음식축제	5월9일~10일	전북대학교	
	연등축제	5월 11일	전주시청 노송광장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5월 17일	각 사찰 큰법당	
	청소년모악축제	5월 25일	금산사 특설무대	
제18교구본사 백양사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5월 17일	백양사 내	061)392-7502
	한마음노래자랑	5월 17일	백양사 내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어린이날 행사	5월 5일	구례 둔치공원	061)783-7600
	부처님오신날 '떡국공양을 올립니다'	5월 8일	구례장터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5월 17일	각 사찰	
제21교구본사 송광사	순천유등축제	4월 28일	조례동 호수공원	061)744-7773
	봉축탑 점등식	5월 17일	순천역 광장	
	연등회(연등행렬)	5월 17일	순천시내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5월 17일	송광사 큰법당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점등식, 문화축제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5월 11일	행암군청광장	061)534-5502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점등식 불교연합합창제 연합봉축대법회	4월 20일	제주시내	064)724-6830
제24교구본사 선운사	동백연 문화예술제 자비나눔 1,080배 봉축법요식, 점등식 및 연등축제	5월 17일	선운사 경내(대웅전)	063)561-1422
제25교구본사 봉선사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5월 17일	봉선사	031)527-5974
	연등행렬	5월 17일	봉선사경내	

"선학원 결정 유감…그래도 대화하자"

조계종 선학원 대책위 입장문… 자승 스님도 대화 당부

조계종 선학원대책위원회(위원장 성직, 이하 대책위)가 법인법 제정을 반발해 대화 거부에 나선 (재)선학원에 대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자고 거듭 요청했다.

대책위는 4월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종지종통 봉대' 등 정관 조항 삭제와 대화를 거부한 선학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탈종단'의 의도로 받아들이는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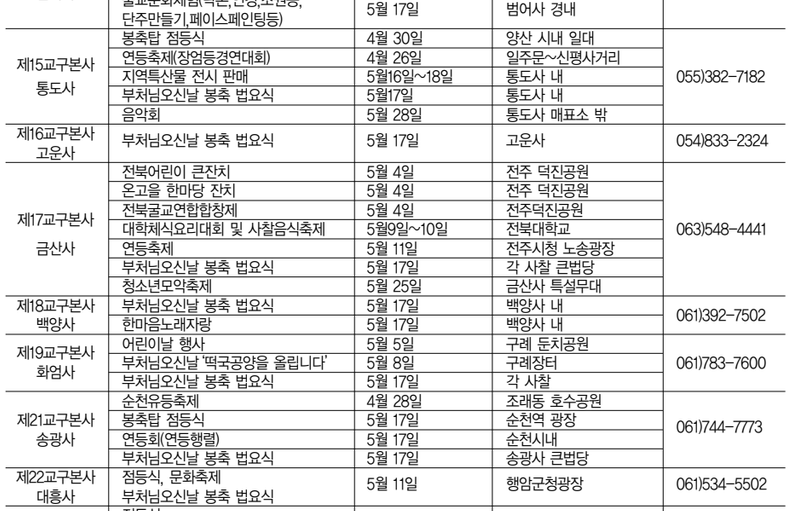
이어 "종정 스님께서 '시중'을 내리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며 "대책위는 선학원의 모든 스님들이 조계종도로서의 일체감을 가지고 법인법의 취지와 의미를 공감한다면 결국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4월 17일 열린 봉축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인 입장은 감정보다는 합리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충분히 대화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부는 4월 16일 한마음선원, 성륜불교문화재단, 백련불교문화재단, 탄허불교문화재단 4개 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인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의 제정 취지에 대해 공감하며, 법인법 시행령에 보완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법인법 시행 당시 이미 임기가 진행 중인 임원의 임기 보장에 대한 조항이나, 제12조의 정관 변경 중 총무원 승인사항, 제20조의 임원의 해임 요구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일 기자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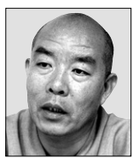
호국금강사서 수계법회

서울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은 4월 14일 5군단 호국금강사에서 김현집 군단장 내외 및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국회 정각회서 법문

前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5월 1일 낮 12시 국회 정각회 법당에서 봉축을 맞아 법문한다.



인권위 비상임위원 연임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연임됐다. 임기는 3년으로 2016년까지다.



남북 평화 기원 대보탑 점등식

부산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4월 13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남북평화 화합을 기원하는 오십삼존불 대보탑 점등식 행사를 개최했다.



대관음사 동자승 삭발식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4월 17일 대구 큰절 대관음사에서 동자승 삭발식과 수계식을 봉행했다.



대구 다복사 회주 추대

前조계사 주지 현근 스님이 대구 다복사 회주로 추대됐다. 현근 스님은 정릉 도국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을 맡고 있다.



자연건강 힐링캠프

선재 스님은 4월 27일 오전 11시 양산 통도사에서 자연건강 힐링캠프를 진행한다. (055)382-7182

충정사 예비역불자연합회 출범



충정사 예비역불자연합회가 출범했다. 이종구 충정사 예비역불자연합회 초대 회장〈사진〉은 4월 14일 취임법회에서 국군 불교 중흥을 발원했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충정사 주지 도윤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호계원장 일면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 직지사 중암 도진 스님, 최기덕 성불회 회장, 조남진 국군예불회 회장 등 200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화촉〉 운암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 전길표 상임위원 장남 우현 군은 강승휘 양과 4월 28일 낮 12시 SD웨딩 9층 벨리나홀에서 화촉을 밝힌다. (02)463-5000

"혜암 스님 가르침 널리 펼 것"

혜암선사 문화진흥회 이사장 성법 스님



탄신 94주기 맞아 발족
5월 1일 화보집 봉정
승려복지 등 5대 사업 전개

"평생 장좌불와 하신 혜암 스님의 가르침을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체대비 사상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행을 펼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가야산 정진불로 불렸던 혜암 스님의 선사상을 선양하는 사업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혜암선사문화진흥회(이사장 성법)는 5월 1일 혜암 스님 탄신 94주기를 맞아 해인사 원당암에서 문화진흥회 현판식을 개최하고 탄신 100주년 사업 준비 등 선양사업을 진행한다.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이사장 성법 스님(진주 호국사 주지)은 혜암 스님에 대해 "평생 장좌불와를 통해 모든 선수행자들의 모범이 될 만한 행화를 보이신 분"이라며

성법 스님은 "혜암 스님은 1994년과 98년 조계종 분규 때 단호한 소신과 추상 같은 의지로 종단개혁에 앞장섰던 분으로 평소 실천수행을 강조하셨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동체대비 사상으로 실천하는 5대 중점사업을 선정해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남 장성에서 태어난 혜암 스님은 17세에 일본으로 유학·동·서양 종교와 철학을 공부했으며 1946년 해인사로 출가해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계를 받았다. 이후 해인사·송광사·범어사 등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용맹정진한 혜암 스님은 특히 출가 이후 하루 한끼만 먹는 일중일식(日中一食)과 눕지 않고 수행하는 50년 장좌불와(長坐不臥)의 철저한 수행자상을 실천해온 대표적 선승으로 성철 스님 이후 불교계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94년 조계종 분규 당시에는 종헌·종법 수호 원칙론을 견지하며 종단개혁을 이끌기도 했다. 혜암 스님은 세수 82세로 2001년 12월 31일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입적했다.

혜암선사문화진흥회는 혜암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 이후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승가복지 및 사회복지사업 △효사상 실천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출판문화사업 등을 더해 5대 중점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100주년을 앞두고 교계나 학계에 연구진을 선정해 혜암 스님 선사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5월 1일에는 해인사 원당암에서 혜암 스님 입적 이후 스님의 수행상을 담은 사진을 모은 〈혜암대종사 화보집〉 봉정식도 개최된다.

성법 스님은 "스님의 정신을 현대 불교계가 본받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진제공=한마음선원 LA지원〉

한마음선원 LA지원 새법당 준공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미국 LA에 새법당이 준공됐다. 한마음선원 LA지원(지원장 혜중)은 4월 14일 새법당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주요 내빈으로 LA 고려사주지이자 남가주 사원연합회 회장인 묘경 스님, 금강 선원주지 경진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마음선원 측에서는 뉴욕 지원장 원공 스님, 시카고 지원장 혜지 스님, 캐나다 토론토 지원장 청각 스님, 금왕지원 청강 스님, 대구지원장 혜솔 스님,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광주지원장 혜월 스님, 제주지원장 혜묘 스님,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이 참석했다.

이날 원공 스님은 법문에서 "한마음선원 LA지원 도량은 중생들에게 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는 동시에 시대의 불교가 나아갈 길과 지구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노력하는 도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행 스님은 1980년대 중반부터 미주지역 초청으로 여러차례 법회를 열었다. 그때마다 고국을 떠나 힘들게 생활하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교포들의 모습을 보면서 1990년 12월 미국 LA에 지원을 개원했다.

LA지원은 2012년 2월 7일 기공식을 갖고 법당 20~30평 남짓한 작은 건물에서 요사채 옆으로 증축, 50평 규모의 법당을 증축했다. 이나은 기자

우봉 스님 4월 17일 파리서 입적

1972년 숭산 스님 1대 제자로… 23일 다비식 봉행



유럽과 아시아에서 활발한 전법활동을 펼치던 우봉 스님이 4월 17일 오후 7시(프랑스 현지시각) 파리 선 센터에서 입적했다.

우봉 스님은 법화도량에서 동안거를 마치고 유럽의 각 선 센터를 순회하며 법회와 안거를 이끌었으며, 입적 당일에는 파리에서 일일 안거 중이었다.

법화도량 측은 "우봉 스님께서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활기 넘치는 모습이셨으나, 몸이 피곤해 방에 가 쉬시겠다고 하신 뒤 신도들이 방에 들어가보니 스님께서 이미 입적하신 상태였다"고 전했다.우봉 스님의 장례식과 다비식은 파리 현지에서 4월 23일에 치러진다.

폴란드에서 출생한 우봉 스님은 미국 브라운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베트남전 반대운동을 벌이다 종교와 철학 서적에 파묻혀 시간을 보낸다. 이후 1972년 숭산 스님을 만나 제자가 된 우봉 스님은 숭산 스님을 도와 폴란드에 관음선센터를 설립하고 1984년에는 참선지도자로 인가 받은 후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 등으로 전법활동을 시작했다. 1993년에는 숭산 스님의 법전수를 받은 후 파리에 선센터를 설립하고 2009년 승려로 출가한 뒤 베를린 선센터와 한국 향천사, 법화도량 등에 상주하며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법활동을 펼쳐왔다.

이나은 기자

조동종 종조 양개 대화상 헌다례재

4월 17일 상계동 도선사에서… 200명 참석



4월 17일 총무원 상계동 도선사에서 열린 '조동종 종조 동산존자 양개 대선사 헌다례재'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4월 17일 총무원 상계동 도선사에서 '조동종 종조 동산존자 양개 대선사 헌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지명 스님, 부종정 법공 스님, 총무원장 덕우 스님을 비롯한 종도 및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무원장 덕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묵조선의 법맥을 잇고 종조의 가풍을 새겨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 수행정진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원장 광혜, 규정부장 소담, 기획실장 혜산 스님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신임 재무부장 명원 스님에 대한 임명장 수여도 진행됐다.

종정 지명 스님은 법어를 통해 "깊은 불심으로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 하도록 항상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조동종은 2014년 중국 보리선사 조동종 한국법당 점안법회와 종조 다례재를 함께 봉행할 예정이며 올 6월중 종단수륙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김해 중부경찰서 경찰법우회 창립



경남 김해 경찰서가 신설된 지 51년 만에 경찰법우회가 창립됐다. 김해 중부서 경승실장 법장 스님(삼보종 총무원장)은 4월 11일 중부서 대강당에서 경찰법우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경승회원 월주(동림사), 도광(죽림사), 도명(여여정사), 법륜 스님(화엄사)과 김맹곤 김해시장, 하인수 경찰서장 등 법우회 회원 60여명이 동참했다. 법장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 뜻을 새겨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바로잡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진흥원 교도소에 만화불서 전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4월 15일 전국 교도소 재소자들과 병원법당 환우들에게 만화 불서 1000여 권을 전달했다. '문화를 통한 불교 포교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교도소 60여곳과 법원법당 30여 곳에 전달된다.

불교진흥원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병원에서 심신 치유와 함께 사색과 힐링(healing)이 필요한 병원 환자들과 교도 전달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3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4월 중

◆ 개강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해원정사 추모원(납골당) 안내

천하의 명당

예로부터 집터를 잘 골라야 집안이 번성하고, 조상의 묘터를 잘 골라야 후손까지 번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해원정사 추모원은 일자문성 삼봉산을 마주한 자궁혈에 위치하여 모든 조건을 고루 갖춘 명당 중의 명당으로, 자손들은 수명장수하고, 하는 일에는 최고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리적 편의

해원정사 추모원은 광주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유족들이 언제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또한 일조량 좋고 쾌적하며 산세의 푸근함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후대의 번영을 기원함으로써, 가신 분과 보내시는 분 모두가 함께 안락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도량의 복덕

매일 도량에 울려퍼지는 목탁과 염불소리는 돌아가신 영가의 천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유가족에게도 큰 복덕이 되어 돌아오며, 후손들의 삶을 편안하게 합니다.



해 원 정 사 추 모 원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385번지
전화 (062)234-4576, 222-7979 / 인터넷 주소 : www.해원정사.kr



스카우트불교연맹이 4월 13일 수원 용주사 일대에서 개최한 어린이청소년효행템플야영에서 200여 명의 아이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참가학생들이 탁본한 부모은중경을 들고 밝게 웃고 있다.


문화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부모은중경비를 살펴보는 아이들

정조 효심과 부처님 가르침, 동심에 깃들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 4월 13일 제1회 어린이청소년효행템플야영 개최

수원 용주사서 캠핑하며 각종 프로그램 체험…전국 200여 명 참여
문화탐방 · 부모은중경 탁본 하며 효심 키워…눈물 글썽이기도

보경 스님의 〈부모은중경〉 강설에 감명받아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를 양주에서 수원 화성의 융릉으로 옮긴 조선 제22대 왕 정조는 11년 간 12차례나 부친 묘소를 참배하러 수원으로 행차했다. 정조는 융릉을 봉향하는 능찰 용주사를 건립하고 한문 언문 그림으로 제작한 부모은중경 목판본을 시주해 백성의 효심을 일깨우는 거울로 삼도록 했다.

200여년이 지난 4월 13일 청소년들이 옛 정조대왕의 효사상을 되새기기 위해 용주사에 모였다. 이날 스카우트불교연맹(연맹장 송묵 · 조계종 포교부장)과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가 주최한 '어린이청소년효행템플야영' 에는 청계사, 동원정사, 범어사, 정각사, 약사사, 홍법사, 용주사, 불광사 등에서 200여 아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조의 효심을 배우기 위해 1박 2일간 용주사와 융릉(사도세자의 능) 일대에서 효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화이팅! 아이스크림 주세요! 화이팅! 아이스크림 주세요!"

비바람을 막아줄 텐트 설치가 끝난 오후 2시 경부터 입재식이 진행됐다. 목소리가 커야 간식을 먹는다는 연맹장 송묵 스님의 재미있는 입재사에 이어 아이들의 힘찬 구호 속에 이날 프로그램은 시작됐다.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정조대왕이 현륭원을 참배한 후 송충이가 솔잎을 갉아먹는 것을 보며 '아버님이 비통하게 사신 것도 마음 아픈데 어찌 너희들이 괴롭히냐' 며 이빨로 깨물어 죽였다. 이후 이 일대에는 송충이를 찾아볼 수 없으니 대단한 효심을 느낄 수 있다"며 "용주사에서 템플스테이, 캠핑을 친구들과 함께 하며 지혜, 덕성, 체력과 함께 배려, 양보, 봉사 정신을 익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재식에 이어 아이들은 15개 조로 나뉘어 용주사 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용주사 곳곳을 둘러보며 문화해설사들의 설명에 사뭇 진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용주사에 들어오기 전에 문이 있었어요. 이 문이 무었일까요?"

"홍살문이요. 그런데 왜 문 색이 붉은색이에요?"

"용주사는 돌아가신 사도세자를 모시기 위한 사찰이에요. 그래서 능이나 사당에 있는 홍살문이 입구에 있어요. 붉은색은 잡귀신들이 두려워 한다는 팥죽색이에요."

산들거리는 바람 속에 아이들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다.

"여기있는 탑이 바로 부모은중경탑이에요. 하단을 보면 한글과 그림으로 부모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어요. 정조대왕은 효사상이 널리 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은중경을 이곳에서 펴냈답니다."

아이들은 부모은중경탑 부조를 설명할 때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했다. 문화탐방을 끝마친 아이들은 용주사 박물관에서 부모은중경 탁본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탁본한 도화지 각자의 낙관을 찍으며 밝게 웃었다.

"어머니께서 캠프에 오기 전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용주사가 정조의 효도로 인해 만들어진 곳이라고 하셨는데 부모님 생각이 나요."

오랜만에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함께 야영을 하기 위해 올라온 김성희 용주사대 대원(13)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평소에 친구들과 파라미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용주사에서 불교스카우트 캠프가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5시간이 걸려 부산에서 올라온 정현윤 범어 수효대 대원(16 · 금정중)은 "즐겁게 놀고 많이 배워가겠다"며 다부진 목소리로 말했다.

스카우트 단원들은 용주사 문화탐방과 부모은중경 탁본에 이어 청소년마음거울 108배와 저녁예불, 선지식과의 '효' 주제 대화, 부모님께 편지 쓰기 등을 진행했다. 또 캠프파이어와 야외취사 등에서 조별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자립심을 키우는 기회도 가졌다. 이어 둘째날에는 융건릉 숲길걷기와 명상 등도 진행됐다.

여택진 불교스카우트 연맹 지도교사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효에 대한 생각을 한번씩 더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캠프기간 내내 화창한 날씨와 바람이 아이들의 마음 속의 작은 티끌까지 날려버리는 듯 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는 흐뭇한 미소를 짓지 않을까.

수원 용주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처님 가치관을"

스카우트불교연맹 훈육위원 명원 스님



"청소년기는 아이들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불교스카우트 활동은 자연환경과 불교문화 안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이타심과 협동정신을 함양하는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이날 효행 템플야영을 지도한 스카우트불교연맹 훈육교사 명원 스님〈사진〉은 불교스카우트 활동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명원 스님은 "스카우트는 '행' 을 중요시 하는데 이는 곧 불교정신"이라며 "포교 일환으로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불교의 정신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9일 발족한 스카우트불교연맹은 현재 35개 사찰과 182명의 지도자 및 1174명의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명원 스님은 "향후 청소년 인성교육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카우트불교연맹은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7월 27~29일 여름불교학교와 병행해 포교원에서 진행하는 정전 60주년 행사에 동참할 계획이다. 스카우트불교연맹은 이 시기 어린이청소년세계평화대회 '평화와 통일을 꿈꾸다' 를 열고 청소년 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한다. 세계평화대회에서는 30리 걷기, 병영체험, 백일장, 힐링콘서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명원 스님은 "불교의 미래는 결국 불교 가치관을 갖고 활동하는 아이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구포1동 73-13번지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기차타고 템플스테이와 힐링을 동시에

문화사업단 · 통도사 · 조계사 · 코레일, 업무협약 맺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통도사, 조계사, 한국철도공사는 4월 18일 템플스테이와 사찰 힐링캠프 철도 연계 상품 협약식을 개최했다.

템플스테이와 사찰의 힐링프로그램을 연계한 철도상품이 개발될 전망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 서울 조계사(주지 도문), 한국철도공사(사장 정창영, 이하 코레일)은 4월 18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템플스테이 연계 기차여행상품 개발 협약'과 '힐링캠프 연계 상품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문화사업단과 코레일은 템플스테이의 접근성을 높일 기차여행 상품을 개발해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모집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사업단은 지난해부터 코레일 주요 상품인 '내일로 티켓' 구매자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체험권 증정 이벤트를 펼쳐왔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찰과 주요 KTX역의 연계사업, 템플스테이 참가자 대상 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힐링캠프 연계상품 개발 협약'을 통해서는 조계사, 통도사 마인드케어평생교육원이 진행하고 있는 '힐링캠프'와 연계한 기차상품이 개발되며, 향후 코레일은 캠프 참가자들에게 운임할인 서비스와 KTX역과 사찰간의 교통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정산 스님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한다"며 "향후 템플스테이 연계 기차여행상품을 통해 국내 철도여행객과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전통문화 체험과 함께 더욱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파라미타, 한일청소년 교류활동 갖는다

8월 2~6일 일본 묘법사서 템플스테이도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8월 2~6일까지 일본 청소년과 교류하는 '제8회 한일청소년국제교류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 청소년 20명과 인솔자 및 통역담당 5명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사찰 묘법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일본 전통문화 및 놀이 체험활동, 일본 가정 홈스테이 등을 체험하게 된다.

참가 희망학생은 파라미타 홈페이지(www. paramita.or.kr)를 참조한 후 4월 28일까지 파라미타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02)723-6165

이나은 기자

보리수 아래, 5월 9일 시낭송·노래공연

오후 7시 전통문화공연장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장애불자들이 모여 시낭송과 음악을 곁들인 공연을 선보인다.

장애인과 스님, 불자, 예술인들이 모여 활동하는 '보리수 아래'(회장 최명숙)는 5월 9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회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 공연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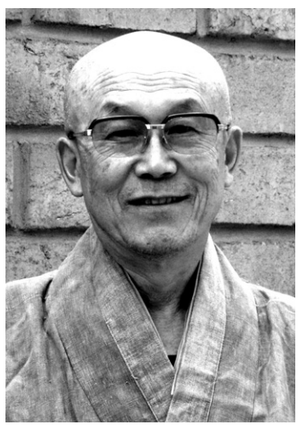
보리수아래와 니르바나오케스트라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2008년부터 매년 부처님 오신날에 즈음해 열렸으며 올해로 6회를 맞는다.

'당신이 희망이요 행복입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시낭송과 음악, 대금, 난타, 마임 등이 진행된다. 또 보리수아래 회원들이 시를 액자로 만들어 공연장 앞에서 전시를 열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苦땡 캠프' 오세요… 고통 끝 행복 시작

활인선원, 4월 26일부터 정기적으로 무료 캠프


제주 원명선원과 안성 활인선원 선원장 대효 스님.


대효 스님이 안성 활인선원에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참선과 단식을 병행한 수련회와 단기 출가를 열고 수련생들을 지도 하고 있다.

경제난과 가정불화로 괴로워하는 대중의 심신을 치유하는 무료 캠프가 열린다.

안성 활인선원과 제주 원명선원을 이끄는 선원장 대효 스님은 4월 18일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통에 신음하는 한국사회와 구성원들의 '고통을 끝내고 행복을 열어가자'는 취지로 고(苦)땡 치유캠프를 연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苦땡 치유캠프'는 '고통 끝 행복 시작'을 모토로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가정불화나 갈등으로 어려움과 행복을 기약할 수 없는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이들을 보듬고 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자, 그들의 고통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는 성찰의 장(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캠프는 비(非)불자 등 일반인들을 위해 무료로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1970년대부터 원명선원과 2008년부터는 활인선원에서 청소년, 청장년, 노년층 대상으로 진행해온 선회와 수련회, 단기출가를 통해 고(苦)의 실상을 살펴보고 스스로 사회적으로 치유하고자 했던 프로그램을 사회적 약자로 일컬어지는 이들을 위해 무료로 개방한다.

대효 스님은 고땡 치유캠프를 통해 신불교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종교와 불교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것.

스님은 "원효 대사 당시 불교는 왕실과 귀족들이 주로 믿는 종교였다. 이런 시기에 원효 스님은 전국을 돌며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만 열심히 외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말하며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다"며 "고땡 치유캠프도 불교 용어 대신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해 대중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땡 치유캠프'는 참여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개방된 프로그램으로 2박3일간 진행된다. 20세부터 59세까지 남녀 연령대별 20명씩 40명 선착순으로 모집해 참가자 전원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1차 캠프는 4월 26~28일 20~39세를 대상으로, 2차 캠프는 4월 29일~5월 1일 40~59세를 대상으로 활인선원에서 진행되며 8차까지 캠프 일정이 잡혀 있다.

캠프 첫날에는 △벗어나는 마음 다가서는 기쁨(습의 및 오리엔테이션) △만족함을 이제 알겠어요(저녁 예불) △고땡 출발! 그대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에요(대효 스님 법문 및 강의)로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나를 향해 다가가는 아침예불 △요가 △누구나 고향이 있어요. 본래 나를 못 벗어나요(영상 청법 좌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보행 정리) △누구를 위해 사는가(강의 또는 청법좌선) △유유자적의 심신을(울력 또는 청소) △거룩함이 우리 자신에게도(헌공) △이유 없이 쓰는 마음(지혜의 법문) △숲속의 향기(보행 및 산행) △나는 정말 행복해, 미처 몰랐군(영상청법 좌선) △108배 및 저녁공양과 예불 등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소감발표와 회향식을 갖는다.

조사선풍을 진작시키고 있는 대효 스님은 "'고통을 없앤다'라는 말은 틀렸다. 고통은 원래 없는 것이다. 선불교에서는 고(苦)를 이야기 하지 않는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려다 보니 방편상 '고땡'으로 프로그램명을 짓게 됐다"고 말했다.

대효 스님은 제주도 원명선원에서 40여년간 유치원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 청장년 등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정신문화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참선수행을 지도해 왔다. 또한 지난 2008년 대중들이 보다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 활인선원을 개원해 참선과 단식을 병행한 수련회와 단기 출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추구하는 길을 열어가고 있다.

대효 스님은 "고통을 끝내고 행복을 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모든 문은 열려 있다. 두드리지 않으셔도 된다. 그냥 열려 있다"며 "온전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삶의 새로운 빛이 비칠 것"이라고 말했다. 1644-5266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 컨텐츠 잘 보존하고 기록해야"

대불련, 제2회 공청회 열어…동문들 방안 모색


대불련은 '선재! 붓다의 길을 묻다'의 두 번째 공청회를 4월 12일 전법회관에서 열었다.

"대불련 법우들이 사회에 나가 각계 각층에서 역사 속 불교에 관련된 자료를 취합·정리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공주지부 지도법사 해월 스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박지연, 이하 대불련)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공유하는 자리인 '선재! 붓다의 길을 묻다'의 두 번째 공청회가 4월 12일 전법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현직의 지도법사와 지도교수, 각 단위의 동문들이 모여 현재 대불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각 단위에서 맡아갈 수 있는 역할 등을 논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대불련 공주지부 지도법사 해월 스님은 '한국불교를 생각한다'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공주지역을 알리는 공주시 팜플렛에 천주교 관련 문화지는 천주교 성지로 소개되는 반면 사찰은 명산순례로 표기돼 있다. 이는 정보와 자료를 잘 남기고 홍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며 "이것은 종교 차별의 문제라기보다 불교계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취합해 공공기관과 협조하는 역량 부족의 사례이다. 앞으로 대학생 불자들이 각계 각층에 나아가도 불교신자로서 불교 컨텐츠를 잘 보존·기록해 역사의 사료로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균관대 불교학생회 동문회장 김관태씨는 "현직 지도위원단 및 간사들이 대학 포교의 전문인력으로 지속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정적 시스템을 동문회에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불련 동문들은 토론을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통합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 힘을 모으는 것이 50주년을 앞둔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 공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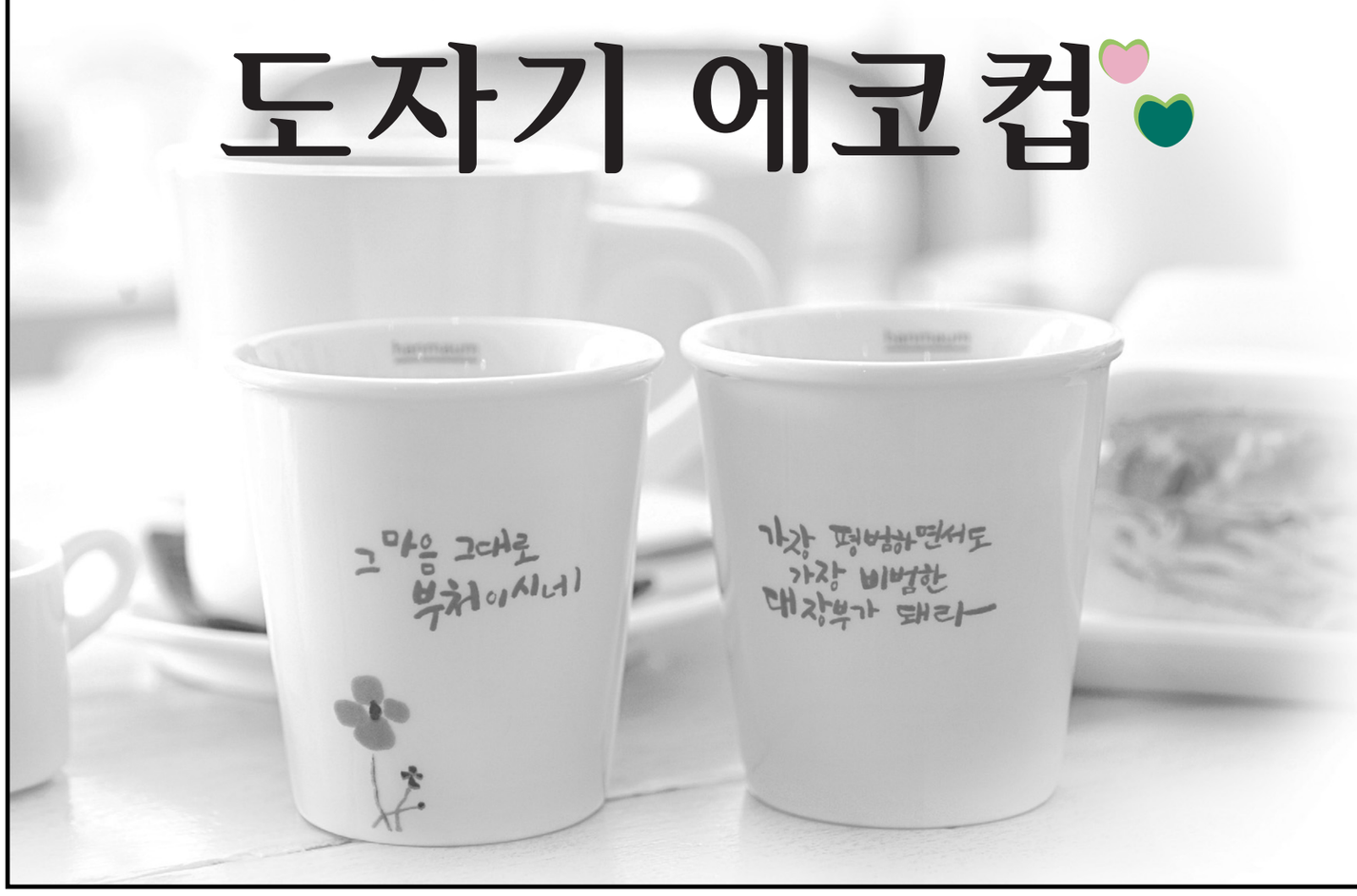
대불련 총동문회 김윤권씨는 "동문들의 통합 없이는 대불련은 더 이상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현재 동문회가 다분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 대불련 중앙회장(2012년) 최경환씨는 "통합을 많이 주장하지만 사분오열된 채 화합하지 못하는 현 동문 선배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스스로를 중심으로 통합되기를 많이 주장하는 것 같다. 허나 포교의 중심은 대학생이며 50주년을 앞둔 지금 대학생, 대불련을 중심으로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는 것이 남은 과제일 것"이라며 대학생과 현직 활동가 중심의 통합을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법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컵종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낱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외식인력양성·웰다잉 등 장애인복지 '앞장'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4월 17일 개관 15주년

서울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주민의 경제자립도가 23~24위에 머무는 곳이다. 이에 더해 1998년 3000명을 웃돌았던 강북구 장애인 수는 15년이 지난 2013년 현재 2만 명에 달한다.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면적대비 장애인 밀집도는 전국구 최고수준이다.

이곳에서 15년간 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건강, 그리고 문화생활을 책임지며 함께 해온 불교계 복지기관이 있다. 바로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진화).

강북장애인복지관은 1998년 3월 구립시설로 설립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수탁운영한 불교계 최초 장애인복지기관이다. 2000년 5월부터 지금까지 서울 봉은사가 운영지원사찰로서 기관을 책임운영하고 있다.

1998년 4월 17일 문을 연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기치로 15년을 강북구 지역장애인들과 함께 해왔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처음부터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 내 장애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어린이·청소년·성인 등 각 계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 즉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놀이·음악·미술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이어나가고 있고, 성인 및 노인 장애인들이 주체적인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시니어 리더(senior leader)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박은아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실장은 "복지관 이용자들도 서비스만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시니어 리더대학을 통해 배우게 된다"며 "이곳에서 어르신들은 수지침·명상·재활수영·성인볼링·서예 등으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얻고 나눔과 베품의 삶을 배운다"고 설명했다.



강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4월 17일 강북문화정보센터에서 개관 1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복지관 이용자들이 15주년을 기념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모습.

장애인 밀집도 높은 지역에 위치
봉은사가 지원사찰로 책임운영
정기 평가마다 최우수기관 선정

이 밖에 복지관은 장애아동 보호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장애가족들과 민속박물관, 가족유원지 등 외부로 정기 나들이를 나가고 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최초가 많다. 전국최초로 2006년 5월 초저상 CNG 셔틀버스를 운행해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고 있으며,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2년 1월 1일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 실천을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장애인복지관 최초로 사례지원팀을 신설했다.

또한 외식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외식사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마중물'을 최초로 운영해 장애인들의 시중 레스토랑으로의 취업을 돕는다. 70~80%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마중물' 사업은 외부 장애인복지관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뿐만 아니다. 복지관은 장애어르신과 가족의 아름다운 죽음준비를 위해 웰다잉프로그램도 최초 도입해 이용 어르신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성공 비결은 42명의 직원들이 '이용자'에 충실했다는 데 있다. 하루 평균 550명이 드나드는 이용자를 위해 복지관 자체에서 꾸준히 욕구조사를 실시해 어떤 것이 장애인들에게 절실한지 해결하려 노력해왔다.

이런 결과 복지관은 '2002년 서울시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장애인복지관 분야 1위', '2002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2005년·200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평과 우수기관 선정', 2008·2011년 전국장애인복지관 평과 최우수기관 선정, 2010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평과 최우수기관 선정 등 결실을 맺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개관 15주년을 맞이해 4월 25일 오후 2시 강북문화정보센터 시청각실에서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 접근방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복지관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장애인 복지환경 및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중요한 실천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장애인 복지 및 사회복지 운영 전반에 걸쳐 확인한다.

관장 진화 스님은 "위탁 법인과 운영지원 사찰, 그리고 종사자들과 봉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화합돼 15년간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끌어왔다"며 "앞으로도 장애가족들 복지관을 통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왕따·성범죄, 피해자에게도 잘못 있다"

궁동복지관 조사결과, 청소년 10명 중 3명 응답

청소년 10명 중 3명 이상은 성범죄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왕따' 문제에 대해 2명 중 1명 이상의 청소년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잘못으로 기인된 문제라고 인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하는 궁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남화수)은 김종욱 서울시의원(공동연구원)과 함께 구로구 지역 내 중·고등학교 23개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총 23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구로구 청소년 욕구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왕따'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6.4%가 왕따 문제에 대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잘못으로 기인 된 문제"라고 답했다.

교사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적 조사 결과에서도 역시 전체 응답자 중 20.3%가 왕따 문제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았다.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조차도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또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33.65%나 됐다.

아울러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지식을 주로 인터넷상의 음란물 접촉(61.4%)과 같은 부정적인 루트로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원인은 성인들의 인식에 비해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을 학업(55.9%)과 진로(15.9%), 가족관계(9.4%), 또래관계(9.0%)등으로 다양하게 답했다.

또 전체 청소년 응답자 중 52.6%가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은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제고 및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새로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복지관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소집단으로 성교육 대상을 분류하고 해당 집단에 대한 성교육 수준과 내용을 개별로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접근하여 성교육의 대상 별 효과성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성적 호기심이 증폭되는 시기로 나타났는데, 임파워먼트를 적용한 성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성충동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을 기르고,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아름다운동행 지원단 출범…자비나눔 힘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4월 13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교육관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아름다운동행은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후원자와 봉사자를 주축으로 지난 1년간 지원단원을 모집했으며, 서울과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62명의 단원이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35명의 지원단원이 참석했으며, 발대식에는 '아프리카 학교건립과 나눔'을 주제로 사무총장 혜일 스님의 강연과 함께 아름다운동행 소개와 자원봉사 교육 및 팀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팀 프로젝트는 단원들의 관계형성과 아름다운동행의 모금홍보 발전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색적으로 진행됐으며, 아름다운동행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시간들로 진행됐다.

아름다운동행 지원단 이태희 지원 단장은 "불교계의 대표 모금기관인 아름다운동행이 더욱 많은 사부대중에게 알려지고 나눔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름다운동행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108명의 지원 단원을 구성하여 나눔 문화 활성화에 앞장 설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아름다운동행 회원들이 지난 13일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다문화사회 복지정책 방향' 포럼 열린다

조계종 복지재단 4월 24일 전법회관 6층서

바람직한 다문화 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4월 24일 오후 3시 전법회관 6층에서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연다.

1990년대 이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여 145만 명에 이르는 다문화사회 속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화합과 사회통합의 필요성은 화두를 넘어서 이제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제대로 인정하는 다문화 인식 개선과 더불어 다문화사회의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미래의 대응 방안을 다룬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다문화정책의 현재와 미래 △선진국의 이민 통합정책 △다문화사회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이민자의 사회통합 등의 내용을 발제한다.

복지재단은 "이번 포럼은 다문화가족의 법적 지위와 그간 다문화가족의 복지가 어떻게 모색되어 왔는지, 그 전개과정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볼 계획이다. 나아가 향후 바람직한 다문화 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광진노인복지관, 효사랑한마당 개최

6월 5일까지 복지관 일대서

어버이날을 맞이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기념행사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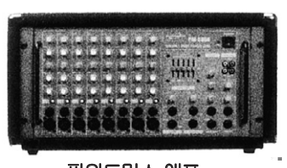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4월 16일~6월 5일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 및 지역사회에서 '제10회 효사랑나누기한마당'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게이트볼대회, 칠팔순잔치, 출발 오감여행, 당구대회, 바자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02)466-6242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엠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마이크
aV-620


•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진골 척추교정법 교육 안내문

상담전화 016-560-7868

척추교정 및 인체의 균형(밸런스) 조절교육
외과전문의 및 한의사,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할 척추교정법!

MBN 천기누설 방송 (2012. 9. 20)에 소장이 직접교육시켰던 외과의사 및 한의사와 같이 출연하여, 척추변형과 오장육부 질병의 중요성에 대하여 방송에 출연한바 있음. (네이버 "진골척추" 검색 동영상으로 방송을 볼 수 있음) 소장은 2006년부터 한의사 수백여명과 다수의 외과의사들을 상대로 척추교정과 인체의 균형을 통합적으로 교육시킨 사례가 있는 교육의 전문가임. 진골척추교정법은 카이로프라틱이 아닙니다!

암, 치매, 각종 통증! 척추교정으로 대부분의 질병 다스릴 수 있다.
30년 통증해결사 (MBN 천기누설 18회 '척추편' 방영)

진골척추 교정법연구소 임상만 소장은 현대인들의 허리 관련 통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법을 알려 주고 있어 화제다. 진골척추교정요법은 경추, 흉추, 요추 천장관절의 미세한 비틀림에서 비롯된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오는 근관절질환과 내장질환, 피부질환, 치매의 병변등은 척추 교정법만으로 해결되며, 통증이 개선되고 몸이 편안해 지는 교정요법이다. 진골척추교정법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직접적으로 뼈를 만지고 굳혀 나가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근육이 발달한 젊은 사람일수록 치료기간이 짧고 노약자나 여성들의 경우 근육이 약해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대체로 치료시간이 짧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법이라고 임 소장은 밝혔다.

척추교정분야에서 30년의 경험으로 근골격계 통증의 경우 5분정도의 척추교정요법으로 아주 극심한 만성통증 환자의 경우라도 통증이 해결되며 치료 성공률도 99%의 성공률로 언론매체에서도 알려진바 있다. 임 소장은 오랫동안의 연구 끝에 진골척추교정법을 창안했다.

대표적인 척추질환으로는 두통, 목의통증, 어깨통증, 엉덩이통증, 손과 발의통증, 관절통 디스크, 좌골 신경통, 사고로 인한 목의 통증등 100여가지가 넘는다. 이 밖에 위장장애, 고혈압, 간질환, 요실금, 신경질환에도 척추교정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임 소장의 탁월한 능력은 고질적인 아토피, 습관성 유산 불임등을 치유시켜 수많은 한의사들이 배우고 추천해 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희대 한의대 교과 과정으로 채택되었고 그 기술의 뛰어남은 대내외적 으로 입증해 왔다. 이와 함께 암 통증 개선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항암치료의 부작용감소로 환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MBN TV 방송에 출연하여 척추통증에 관한한 유명 인사였던 임 소장은 척추의 형태만 보고도 통증이나 병의 유무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

임 소장은 향후 진골척추교정법의 뛰어난 부분을 현대적이고 과학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2013년 3월 30일 토요일자 6면
2013 POWER & TOP LEADER 기사중에서

“온 힘 다해 피운 꽃처럼 발심해야 성불”

탄허 스님의 화엄 세계-정맥과 그 고뇌

도올 김용옥 (국립중앙박물관 초청 강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에서는 탄허(1913~ 1983)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큰스님 글씨-월정사의 한암과 탄허’ 전시회를 열고 있다. 개막식이 있던 날인 4월 15일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은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탄허 스님의 화엄 세계-20세기 한국의 불교의 정맥(正脈)과 그 고뇌’를 주제로 강설했다. 김용옥 선생은 “탄허 스님은 교육만이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라고 하셨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맥(禪脈)을 잇고 있는 우리는 선을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며 “유불도(儒佛道)가 들어 있는 것이 바로 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탄허 스님을 말하면서 오대산을 지나칠 수는 없다. 오대산은 스님을 품었으며, 스님은 결국 스승이신 한암 스님처럼 오대산인(五臺山人)으로 거듭나는 인생을 걷게 된다.

오대산은 산 전체가 문수성지로 규정된 남한 유일의 불교 성산(聖山)이다. 또 그 속에는 비단 불교만이 아니라, 사고(史庫)와 같은 유교문화와 성오평(省烏坪)이라는 무교의 성지, 또 한무외로 대변되는 신도교(新道教)와 선도(仙道)문화도 존재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오대산은 동양학의 전반을 아우르는 최고의 사상공간이다.

삼국시대 신라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인 자장 율사(576?~658?)는 반듯한 청정 율사(律師)이면서 모든 것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화엄사상가였다. 이러한 그의 불교정신을 일관하는 가치가 바로 문수신앙이다.

자장 스님은 선덕여왕 때, 당나라로 유학하게 된다. 이때 종남산(綜南山) 율종의 도선(道宣)과 교류하고, 화엄사와 지엄(智儼)을 통해서 화엄학을 수학한다. 자장 스님의 화엄에 대한 이해는 문수보살에 대한 종교적 열망을 갖게 되고, 오대산행을 하게 된다.

오대산에 도착한 자장 스님은 북대에서 수행하고, 다시금 북대와 중대 사이의 산상 연못인 태화지(太和池)의 문수석상 앞에서 7일간 간절한 염원의 기도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문수보살을 친견하는 이적을 경험하기에 이른다.

이때 자장 스님은 문수보살에게 물질적인 신표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사와 사리를 전해 받는다. 그리고 신라의 명주(溟洲) 지역에도 중국 오대산과 기운이 통하는 오대산이 있어, 문수보살이 항상 나투어서 가르침을 주는 곳이니 이곳을 찾아 참배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643년 신라로 돌아온 자장 스님은 황룡사의 2대 주지가 돼 9층 목탑을 건립해 불교를 통해 국론이 결집될 수 있도록 했으며, 양산 통도사를 창건해 부처님의 문수보살에게서 받은 가사와 사리를 봉안했다. 끝으로 문수보살을 친견한 태화지를 상징해 자신의 원찰인 태화사를 울산에 건립하고 사리를 모신다.

이후 자장 스님은 말년에 고구려의 남하로 인해 신라의 동북방이 소란스럽자, 안정을 위해 명주지역으로 떠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자장 스님은 평창의 오대산을 찾게 되고, 중대 사자암위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며 오대산이 문수성지임을 선포하게 된다.

삼국유사에서는 오대산 월정사에 대해 서술하는데, 풍수를 보는 상지자(相地者)는 “나라 안의 명산(名山) 중에서도 이곳이 가장 좋은 곳이니 불법(佛法)의 길이 번창할 곳”이라고 한다.

이 밖에 창병에 걸린 세조가 상원사 앞 개울에서 문수동자를 친견하고 병이 낫는 등 대대로 오대산은 문수보살의 성지였다. 때문에 오대산의 중심에는 화엄사상이 깔려있다. 이러한 이유로 탄허 스님이 한암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화엄경〉에 심취했다.

탄허 스님과 한암 스님

탄허 스님은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 시대에 사신 분이다. 주역에 밝았던 탄허 스님은 전쟁이 날 것을 예언하고 한암 스님께 말씀 드렸더니, 한암 스님은 상원사를 지키겠으니 피해있으라고 했다.

이후 인민군의 근거지가 될 만한 곳은 모조리 태우고 있던 한국군이 상원사에 들어오자 한암 스님은 “너희들은 군인으로 상부의 명령에 따라 불을 지르면 되고, 나는 승려로서 마땅히 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니 망설이지 마라. 어차피 승려는 죽으면 화장하는 것이니, 내 걱정은 말고 불을 질러라”

오대산 중심에 화엄사상있어
탄허 “교육 통해 불교 거듭나야”
선불교에는 儒佛道 모두 담겨
한암·탄허 법맥 계승해야

며 정좌했다. 이에 압도당한 군인들은 문만 떼어다가 불을 지르고 내려갔다. 상원사를 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22일 한암 노사는 당신의 할 일을 모두 마쳤다고 판단했음인지 앉은 채로 깊은 선정에 들어 고요히 열반에 드신다.

불교정화운동으로 많은 혼란이 있던 당시 탄허 스님은 “우리 민족과 불교가 살려면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승려교육이 제대로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인재양성에 노력했으며, 지도자급 인재는 도덕성을 갖춘 인재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동양의 유불도(儒佛道) 삼교(三教)의 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당나라 선승의 정맥이 남아 있는 곳이 대한민국 밖에 없다. 여러분은 이렇게 고귀한 선이라는 것이 이미 유불도를 합한 것을 알아야 한다. 인류의 모든 지혜의 궁극이 바로 선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스님과 젊은이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티베트 불교나 위빠사나에 빠져있다.

선을 알려면 화엄사상 알아야

탄허 스님은 이러한 선을 제대로 알려면 반드시 화엄사상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떻게 화엄을 모르고 선을 이야기 하느냐”는 것이다. 또 화엄사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노장사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화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화엄(華嚴)이란 온갖 꽃으로 장엄하게 장식한 모습을 뜻한다.

〈화엄경〉에서 꽃의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밀꽃, 잡초 이런 것들이다. 이런 잡초들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별의별 꽃을 피운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잡초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온몸을 던져서 피우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거체전진(擧體全眞)이라는 표현을 쓴다. 모든 존재는 그 나름대로 온 힘을 다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금사자가 작은 쥐를 잡을 때는 코끼리에게 덤비는 것처럼 전력을 다한다.

이처럼 온 힘을 다해서 꽃을 피우듯 이 세계에 현현하고 있는 모든 것, 물, 바람 소리 등 모든 것이 그대로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화엄이다.

〈화엄경〉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이 살구꽃이 정원에 만발한 모습을 보고 선한놈인지 악한놈인지 알수있겠는가.

이 꽃이라는 것은 진망(眞妄)이 교차하는 그 자체다. 서로 거체전망해도 거체전진이나 같은 것이다. 결국은 가짜가 없어지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허망하고 번뇌라고 하는데 〈화엄경〉에는 없다. 여자는 득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화엄경〉에는 없다.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의 도움을 받아 진리를 깨우치러 떠나는데 만나는 선지식 가운데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창녀도 있고, 악마도 있고 별별 중생이 다 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화엄에서는 ‘네가 곧 부처다’라고 했다. 나라는 모든 존재를 포함한 산천의 화장세계가 다 위대한 부처 그 자신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불교가 〈화엄경〉이 없었더라면 기쁘게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화엄이 없이는 선을 이해할 수 없다.

임제선사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했다. 이런 임제사상이 가능 한 것이 화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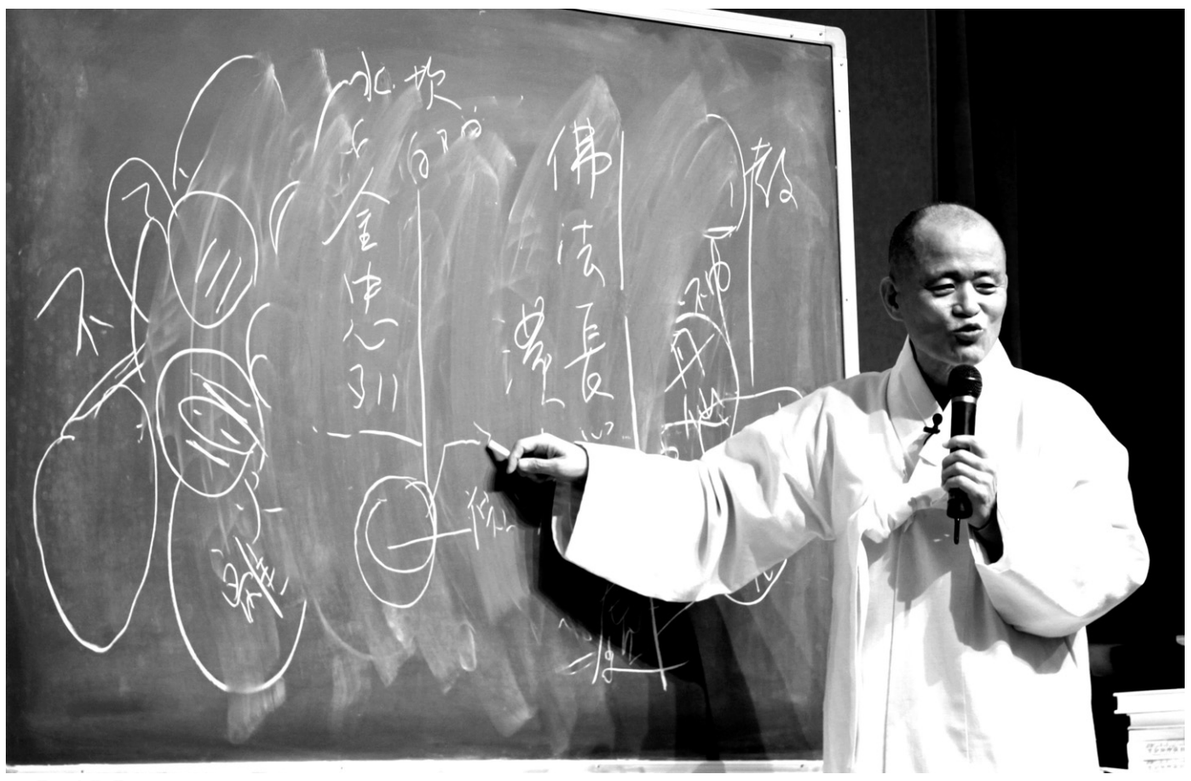
말했다시피 선을 이해하려면 노장 사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불교라는 것은 불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노장 사상을 토대로 했기 때문이다.

장자는 “손가락이 손가락을 가지고 그 손가락이 손가락이 아님을 밝히는 것은 손가락 아닌 것을 가지고 손가락이 손가락 아님을 밝히는 것보다 못하다. 말을 가지고 말이 말 아님을 밝히는 것은 말 아닌 것을 가지고 말이 말 아님을 밝히는 것보다 못하다”고 했다. 즉 언어와 문자를 떠난 자리에서 봐야만 도(道)라는 실상이 보인다는 것이다.

화엄교리에서 말하는 사법계(事法界)란 우주만물과 세계만물을 가리키고, 리법계(理法界)란 참된 공(空)의 리를 가리킨다 했다. 기본적인 사상은 리가 일체의 사물 가운데에 있고, 각 사물은 모두 완전한 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허망한 것이고 그 세계에 부처님이 따로 있다는 것 자체도 허망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로 꽃을 피우며 화장세계를 이루는 것이 사상계라는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화엄의 세계에는 승속의 구분이 없다. 재가자들도 똑같이 성불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오로지 성불해서 진리를 증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발심을 일으킬 때 여러분은 이미 부처가 된 것이다. 여러분들은 교육을 통해 거듭나야 불교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한 탄허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마시고, 월정사는 그 분의 사상을 충실히 이어갈 수 있는 위대한 도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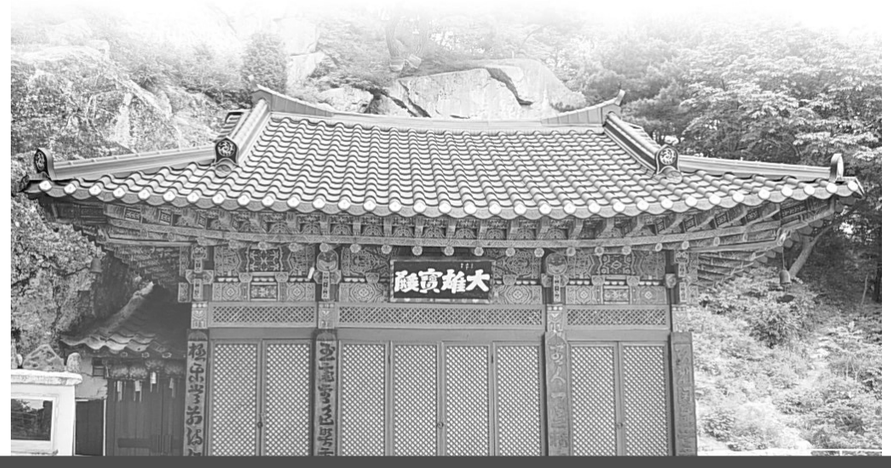
도올 김용옥은 … 1948년 충남 천안 태생으로, 동양고전에 뜻을 두고 고려대학교 철학과로 편입해 동·서양고전을 공부했다. 이후 국립대만대학 철학과에서 노자철학으로 석사를, 일본 동경대학 중국철학과에서 명말청초의 사상가 왕 후우즈(王夫之, 1619~1692)의 우주론으로 석사를,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왕 후우즈의 〈주역〉 해석을 둘러싼 문제들을 동·서 고전철학의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여 박사학위를 획득했다. 1985년 고려대 철학과 교수를 맡았으며, 1986년 교수직을 떠난 뒤 학문의 길을 걷다, 1996년 원광대 한의과대학을 학부생으로 다녀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했다. 이 밖에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강사, 미국 뉴잉글랜드 복잡계연구소 철학분과 위원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여자란 무엇인가〉〈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노자와 21세기〉〈도마복음 이야기〉 등 다수가 있다.



강당에 모인 700여 관중들은 김용옥 선생의 강의를 경청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초기 조선 사회는 불교 사회였다

불교 믿는 조선왕실 및 제도 조명
한국사상사학회 161차 월례학술발표회서

조선 건국 이후 중기까지 불교가 조선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학계 주장이 대두됐다.

한국사상사학회(학회장 김영미 · 이화여대 교수)가 4월 13일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에서 개최한 제161차 월례학술발표회에서는 조선초기 불교정책에 대한 고찰이 이어졌다.

이날 '15세기 불교정책의 재검토'를 발표한 양혜원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조선전기 불교정책은 유교와 불교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억불정책은 성리학적 이단배척 일환이 아닌 당시 왕실의 숭불에 대한 조정 신료들의 반발이었다"며 "조선후기까지 왕실이나 민간의 숭불은 계속 이어졌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조선 초기 유학자들의 억불숭유는 당시 사회에서 앞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불교계를 정리하기 위한 명분이었다"며 "조선사회에서 불교의 영향력이 약화된 것은 16세기 중앙에서 불교측 인사들의 위상이 약화되며 불교적 요소가 배제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였다"고 말했다.

손성필 한국고전번역원 박사는 '중종대 불교정책의 전개와 불교사적 의의' 발표를 통해 "15세기 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관료체제의 일부로 선교양종 승정체제가 유지됐다. 또 한시적 부역에 대한 대가로 승려 자격증인 도첩을 발급하는 등 불교정책을 현실적으로 운용했다"고 말했다.

15세기 선교양종 승정체제 유지
도첩 발급 등 현실적 운용


문정왕후는 폐지되었던 선교양종을 다시 세우려 봉은사를 선종수사찰(禪宗首寺刹)로 하였고 보우스님은 봉은사 주지가 된다.

손 박사는 이어 "실록을 보면 중종 대에 이르러 왕실과 신료, 신료와 신료 간의 불교정책의 시행에 대한 입장 차로 갈등양상이 보인다"며 "중종 초반 연산군 말기 붕괴된 선교양종 승정체제 복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1516년 기신제도 폐지되며 비로소 성리학적 왕정의 기틀이 다져진다"고 말했다.

특히 손 박사는 "하지만 중종대가 불교세가 가장 침체한 시기로 보는 시작은 재고돼야 한다"며 "이때 1,638개 이상의 사찰이 유지됐으며 민간에서는 승려 수가 증가하고 사찰판 불서 간행이 급증하는 등 불교세가 꾸준히 증가했다. 이후 명종대 선교양종 승정체제 복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추진된 것으로 승려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춘순 경희대 교수는 "중종 이후 문정왕후는 수륙재 등을 통해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며 수렴청정을 하며 기본적으로 억불이던 정책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지속적으로 추진된 숭불정책으로 불교가 저변으로까지 확대되었고 승과를 통해 걸출한 인물 휴정 · 유정 등이 배출됐다"며 "임진왜란에서의 이들의 활동은 다시 불교가 대중 저변에 확대되는데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인도초기불탑 의미 다룬 첫 연구서

천득염 전남대 교수, 30년 연구성과 〈인도 불탑의 의미와 형식〉

인도 초기 불탑의 의미와 형식을 다룬 연구서가 출간됐다.

천득염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는 인도 불탑의 의미와 형식을 아우르면서 초기 불탑이 어떻게 주변 국가들에 전래됐는지를 비교 탐구한 〈인도 불탑의 의미와 형식-불탑의 아시아 지역 전이양상1〉를 펴냈다.



천득염 교수는 "한국에서 불교미술과 건축적인 분야에서 인도문화는 뗄수 없는 관계임에도 피상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며 "30여 년간 티베트,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라오스, 인도 답사 등을 통해 연구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책에서 △다양한 종교의 나라 인도와 불교 △불탑(스투파)의 의미와 기원 △부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불탑 △인도 시원불탑의 의미와 형식 △인도 초기 불탑(스투파)형식의 변화 양상 △탑형 부조에 나타난 인도불탑의 변모 양상 △대당서역기에 기록된 인도불탑 조명 △인도 초기 불탑형식의 전래 등을 살폈다.

천 교수는 "향후 한국과 중국, 일본불탑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스리랑카, 네팔, 티베트, 미얀마 불탑에 대한 연구결과도 책으로 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득염 교수는 전남대 건축학과 출신으로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시원불탑의 의미론적 고찰', 일본 교토대에서 '불탑의 동아시아 지역 전래'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현재는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저술로는 〈한국의 명원 소쇄원〉, 〈전탑〉, 〈백제계석탑 연구〉, 〈한국의 건축문화재(전남편)〉, 〈광주건축사〉, 〈삶의 공간과 흔적 우리의 건축문화〉 등이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반구대암각화 숨은 11점 발견…총 307점

울산 암각화 박물관, 도록 조사 유적조사 과정에서

울산시 울주군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에서 숨은 그림 11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 그림들은 울산암각화박물관(관장 이상목)이 지난해 '울주 대곡리 반구대암각화 도록'을 발간하기 위해 유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발견된 그림 가운데 고래 1점, 육지동물 3점, 인물상 2점 등 6점은 형상이 뚜렷하고 나머지는 인위적으로 그린 그림이지만 어떤 형태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박물관 측은 설명했다.

또 6점은 반구대 암각화의 주암면에서 왼쪽으로 1.2m 떨어진 바위면에서, 나머지 5점은 주암면의 그림 사이에서 각각 발견됐다.

이로써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그림은 지난 2000년 울산대 발물관이 조사했을 당시 296점에서 307점으로 늘어났다.

신주원 학예사는 "3D 스캔, 사진, 탁본 등 모든 재료를 동원해 조사했더니 그림 11점이 더 발견됐다"고 말했다.

울산암각화박물관은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반구대암각화의 제작 시기를 신석기 시대로 추정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비롯하여 대다수 자료에는 반구대암각화를 신석기 말~청동기 초기, 또는 청동기 시대의 유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는 1970년 울산지역 불교 유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던 동국대 박물관 조사단이 원효 대사가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반고사지를 찾기 위해 반구대 마을을 방문하면서 밝혀졌다. 천전리 각석을 발견한 이후 1971년 조사단이 재차 파견됐으며 댐 상류지역 바위면을 조사하던 중 반구대 암각화가 발견됐다. 이후 전국에 걸쳐 암각화가 발견됐으며 현재 약 20여곳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학술 · 문화재소식

한의학연구소, '불교와 사상의학' 세미나

동국대 한의학연구소(소장 박성식)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27일 오후 2시 동국대 불교학술원 227호 강의실에서 '심신치유의 실천론적 접근을 위하여'를 주제로 '불교와 사상의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성식 동국대 분당병원 교수의 '사상의학에서 성정(性情)의 중절(中節)과 심리치료' △이필원 동국대 한의학연구소 교수의 '정서적 변화가 육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양승규 동국대 한의학연구소 교수의 '불교의학과 사상의학의 체질적 양생론 연구' △김근우 동국대 분당병원 교수의 '고대 의안(醫案)에 나타난 불교사상연구' △김병수 동국대 한의학연구소 교수의 '명상과 뇌과학의 국내 연구동향 분석' 등 발표가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참여불교' 콜로키움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연구소(소장 김종명)는 4월 24일 오후 3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세미나실에서 제6차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박포리 애리조나대 교수가 'Engaged Buddhism in Contemporary Korea(현대 한국의 참여불교)'를 주제로 발표한다.

박 교수는 재가불교계의 참여운동을 검토한다. 박 교수는 특히 정토회와 인드라망의 풀뿌리 운동 등 사회참여와 이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 즉 자본주의를 넘어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상생, 공생하는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해 논한다. (031)709-8327

노덕현 기자

5월 1일 조계종 율장연구회, '삼귀의 · 오계' 세미나

신행의 근본이 되는 삼귀의계와 오계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계단위원회 산하 계율연구모임인 율장연구회(회장 철우)는 오는 5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삼귀의계와 오계'를 주제로 제2회 계율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원로의원 인환 스님이 '삼귀오계의 국제적 확산을 바라며' 주제의 발제를 비롯해 중앙승가대 교수 경성 스님이 '삼보의 정의와 삼귀의계'를, 전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장 대우 스님이 '삼귀의계의 제정과 그 정착 과정'을, 통도사 영축율학승가대학원장 덕문 스님은 '삼귀의계의 역사 및 역할'을, 청암사 율학승가대학원장 지형 스님은 '오계와 윤리도덕'을, 계단위원 지운 스님은 '현대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오계의 재해석'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송광사 율학승가대학장 대회 스님, 전 동학사 승가대학장 법성 스님, 통도사 영축율학승가대학원 교수사 병천 스님, 운문사 주지 일진 스님, 신성현 동국대 교수가 나선다. 신중일 기자

5월 7일 한국정토학회 '보살사상과 복지' 학술대회

한국정토학회(회장 성운)는 5월 7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보현보살사상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제16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의 '보현보살사상과 한국 아미산 장승신앙의 습합',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보현행원품에 입각한 의례실행 방법 연구', 황옥자 동국대 명예교수의 '보현사상과 아동복지', 한국정토학회 성운 스님의 '한국불교와 사회복지'가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연구원, 〈불교연구〉 제38집 발간

한국불교연구원(원장 리영희)은 최근 〈불교연구〉 제38집을 발간했다. 〈불교연구〉 제38집에는 △부파분열과 파승(권오민) △종성무위론의 기원에 관한 한 고찰(김성철) △'섭대승론'에서의 '이문(異門)' 개념의 사상적 의미(여연 스님) △원효의 계율관(최유진) △고려 사원형지안의 복원과 선종사원의 공간 구성 검토(최연식) △고려시대 수륙재의 전개와 국행수륙재 설행의 의미(강호선) △고려후기 백련사 결사의 계승과 전개(황인규) △고려후기 '법화경 계환해'의 유통과 사상사적 의미(박광연) △사료의 윤리와 출가정신의 딜레마(김호성) △초기 중국불교사에서 '법화경' 연구와 법화신앙의 형태(최은영) △중국근대 정토법문의 부흥과 인광(印光)의 정토사상(김영진) △현행 한국예불의 문제점과 방향(김종명) 등 논문이 수록돼 있다.

노덕현 기자

국내산
'적하수오' 판매
■ 적하수오, 적하수오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 하수오 : 1 kg 3만원 • 하수오 된장 : 1 kg 5만원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법자세교정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 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정 | 교육기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10회 환영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생태계 파괴…온천개발 중단해야”

실상사, 4월 11일 지리산 온천개발 반대 입장 밝혀

지리산댐 건설과 케이블카 설치 추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리산 실상사 주변지역이 이번에는 온천개발에 시달리고 있다.

모 온천개발업자는 지난 3월 말 남원시 산내면 실상사 사하촌에 지하수 영향조사라는 명목으로 굴착공사를 진행했다. 실상사와 마을주민들은 규정에 어긋난 대형관정(온천개발용, 깊이 1km, 굴착지름 200mm)을 시추함을 보고 굴착공사가 지하수 관정 굴착이 아닌 온천개발을 위한 공사인 것으로 확인해 물리적으로 공사를 저지했다.

온천개발 시추현장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실상사(주지 해강)는 4월 11일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실상사의 입장’ 성명을 통해 온천개발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실상사는 “남원시는 산내면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2000여 주민 중 834명이 온천개발 반대서명을 했다. 주민들의 염원을 잘 헤아려 온천개발 사업을 불허하라”고 말했다. 실상사는 이어 “친환경적인 산내면 발전계획을 수립하라”며 “이를 위해 시 당국과 주민들과의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산내면 주민 대책위와 실상사, 지리산 종교연대, 한생명,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9개 단체 20여 회원들도 4월 1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리산 청정지역의 물을 고갈시키는 온천개발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산내면 주민들은 온천 개발이 진행

실상사 500m앞에 온천 관정 시추
마을 주민 힘모아 사업 저지
남원시는 “온천자원만 있다면…”

되면 중기마을 등 주변 5개 마을이 식수고갈의 위험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도 원백일리와 백일리, 중기, 작은마을, 하황 등 주변 5개 마을은 매년 급수제한을 할 정도로 물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식수도 모자라는 곳에 하루 300톤 이상의 지하수를 쓰는 온천이 생긴다면 식수와 농업용수 고갈은 물론 지반침하와 만수천 오염 등이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4월 11일 남원시청에서 시위 중인 실상사 · 산내면 주민들

이들은 또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터전인 지리산국립공원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발전은 뒤로하고 경제성에 얽매인 개발에만 치우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온천개발업자는 남원시청에 재차 굴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온천자원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온천협회에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고등법원은 2009년 속리산 문장대 온천개발을 두고 “자연환경보전구역에 대한 수질환경오염방지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뤄진 상주시장의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시행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려 혜심 진각국사 다례재 봉행



고려 혜심 진각 국사(1178~1234) 다례제가 봉행됐다.

‘생활불교협의회 함께하는 공덕회’(회장 대현)는 4월 15일 진각 국사 탄생지인 전남 화순 군민회관에서 정다운 스님, 대현 스님, 정암 스님(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장), 조백환 노인회장, 박창수 재향군인회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각국사 입적 제768주기 추모제가 봉행했다.

올해로 7회째 맞이하는 이날 행사에는 1부 꽃피는 절(주지 목언)의 육법공양에 이어 영산재 및 다례제(미타회원), 추모법요식과 점심공양 순으로 진행됐다.

정다운 스님은 법문을 통해 “진각 국사는 스님들의 수행교과서라 할 수 있는 선문염송(禪門拈頌)을 만들어 후학들에게 깨침의 길잡이를 제공했다”며 “인류는 각성의 시대로 이끄는 큰스님의 사상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불교협의회 함께하는 공덕회’는 이날 추모재에 이어 향후 진각국사의 저서인 〈선문염송〉에 대한 연구단체 조직 및 정기적 학술세미나, 선양사업 방침을 밝혔다. 또 봉사부장에 묘덕 스님(해원정사 주지), 홍보부장에 경담 스님(천문선원 주지)을 임명하고, 광주전남지역 30여명의 스님들과 함께 무료급식을 진행한다.

한편 진각 국사는 전남 화수출신으로 지눌 스님을 이어 수선사(현재 송광사) 제2세로 간화선을 크게 떨쳤다. 저소로는 〈선문염송집〉, 〈심요心要〉, 〈무의자시집無衣子詩集〉, 〈금강경찬金剛經贊〉, 〈선문강요金剛經贊〉 등이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임제불교 조계종 창종 6주년 기념법회



임제불교 조계종(종정 지암)이 창종 6주년을 맞아 기념법회와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임제불교 조계종은 4월 14일 경남 하동 미륵정사(주지 자은)에서 창종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지암 스님, 보현 스님(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민 스님(한국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도선 스님(한국생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한국불교 태고종 종회의장)을 비롯해 임제불교 조계종 소임자와 조유행 하동군수, 신도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종정 지암 스님은 법어를 통해 “종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종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큰 뜻을 알아, 불국정토 건설을 위한 종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기념법회에는 임제불교 조계종 총신도회장인 나용수 법무부 소년보호위원회 전국연합회 회장에게 임명장이 전달됐으며 미륵정사 신도대표에게 감사패가 증정됐다.

한편 이날 기념법회 이후 미륵정사에서는 지난 30년간 법화경 사경과 간경기도를 한 주지 자은 스님의 기도 회향식도 봉행됐다. 이날 자은 스님은 간절한 기도의 이야기를 전하며, 법공양으로 〈법화경〉을 참가자들에게 보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안 내소사, 해안 대종사 39주기 다례재

계명학원 설립, 문맹퇴치운동 펼쳐… 150명 운집해 추모

부안 내소사(주지 진학)는 4월 16일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내소사 선원장 철산 스님, 전등선원장 동명 스님 등 문도스님과 불자 1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해안대종사 열반 39주기를 맞아 다례재와 추모재를 봉행했다.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추모재는 생전 해안 스님의 육성법문 청취, 분향, 추모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해안 스님의 문도를 대표한 전등선원장 동명 스님은 “스님이 열반하신 후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지표로 삼아 열심히 수행정진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전북 부안 출신의 해안 스님은 1914년 부안 내소사에서 만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1917년 장성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32년 계명 학원을 설립해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고 1936년 금산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1969년 불교 전등회 대종사로 추대됐다. 1974년 세수 74세, 법랍 57세로 입적했다.

한편, 해안 스님을 따르던 재가불자 모임인 불교전등회는 4월 10~16일까지 7일간 용맹정진 특별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4월 16일 부안 내소사에서 열린 해안 스님 다례재에는 불자 150여 명이 운집했다.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첫번째 졸업생 배출

성각 · 진일 스님 졸업… 팔리어 교육 진행, 2013년 11명 입학

2011년 개원한 선운사 초기불전 불학승가대학원(원장 재연)이 첫번째 졸업생을 배출했다.

선운사 승가대학원은 지난 4월 7일 선운사 만세루에서 선운사 사부대중과 학인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졸업식을 봉행했다.

팔리어 기초문법과 경율론(經律論) 삼장 강의, 호흡을 위주로 한 위파사나 수행 등 2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성각(화엄사), 진일 스님(해인사)이 이날 졸업했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초기불교와 간화선을 대립적인 시각으로 보는것보다 보완적 관계에서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초기불교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사 성륜 스님은 “2년 과정을 수학하고 나면 팔리어 원전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며 “이번 학기에도 11명의 스님이 입학해 다른 사찰보다 승가대학원 입학생이 두 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졸업식에는 이례적으로 섹스폰 연주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의 공연이 펼쳐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승가대학원 졸업식에서 밝게 웃는 졸업자 스님들과 학인 스님들

학부모들을 위한 마음치유 강좌

최근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마음치유를 위한 활동이 종교계를 넘어 교육계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 문빈정사(주지 법선)는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4월 12일 대웅전에서 마음치유를 위한 학부모 특강을 개최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종교계와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과 지역 불자와 신도, 지역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국마음치유협회장인 마가 스님은 ‘인성이 바른 아이로 키우기 위한 부모의 역할’이란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연을 펼쳤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불교를 비롯해 천주교와 원불교, 기독교 등 지역의 각 종교계와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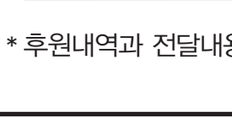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사설 사암간 공식 소통 창구 '대동회' 출범

대구 · 경북 사설사암연합회 연합단체



대구 경북지역 조계종 사설 사암 주지스님 45명은 '대동회'를 결성하고 4월 12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 본관5층 플라자 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대구 · 경북 조계종 사설 사암을 중심으로 한 연합단체가 새롭게 출발했다. 대구 경북지역 조계종 사설 사암 주지스님 45명은 '대동회'를 결성하고 4월 12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 본관5층 플라자 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대동회(大桐會)에는 원로의원 지성 스님과 전 쌍계사 주지 철형 스님, 그리고 전 조계사 주지 현근 스님 등 지역의 주요 스님들이 대거 동참했으며 경북 칠곡 삼보사 주지 정혜 스님이 초대 회장직을 맡았다.

정혜 스님은 "말사 주지 스님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 입적을 하거나 변고가 있을 때는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서로 챙기지 못하니 그동안 서운한 부분들이 많았다"며 "우선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만 지역사회의 발전을 물론 더 나아가서는 제3세계 국가를 도울 수 있는 방안도 모색중"이라고 설명한다.

회원발전과 수행 · 정진 그리고 불교발전을 위해 창립한 조계종 대동회는 앞으로 지역승가대학과 선원에 장학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교계 신행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펼친다.

각 사업을 살펴보면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위한 제반사업 및 각종 위문활동 △제9교구 승가대학과 선원에 대한 지원과 장학사업 △교계 신행단체와 불교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협력 및 지원 사업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법회 행사 개최 △불교 발전을 위한 사업 진행 등을 펼친다.

4월 12일 그랜드호텔서 창립 총회
지역 사회 이바지 · 불교 발전 다짐

정혜 스님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교구 본사와 사설 사암간에 소통의 공식적인 채널 창구가 없었다. 대동회는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하고 지역 불교와 교단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 앞으로 총림의 크나큰 발전에 매진해 가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이어 스님은 "상생 화합은 물론 교구본사와의 소통의 장을 통해 정진 · 수행의 가풍을 잇는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기장불교 발전에 최선 다할 터"

기장군불교연합신도회 창립법회


기장군불교연합신도회 창립법회 및 회장 취임식 모습.

기장지역 사찰 신도연합조직인 기장군불교연합신도회가 창립법회와 회장 취임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4월 17일 기장군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부산불교연합회장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 기장군불교연합회장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 기장군불교연합신도회 초대회장 이재순(장안사)씨,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범어사신도회장 이윤희씨, 오규석 기장군수 등 시민불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장에 취임한 이재순씨는 "창립 초대회장으로서 부처님의 불법과 자비광명을 널리 알리고, 기장군민과 불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 모범적인 신도회를 만들어 기장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은 "불교의 단결력을 필요로 하는 때에 기장지역을 대표하는 신도회가 창립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함께하는 불교, 행동하는 불교가 되어 나눔을 실천하는 신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장군불교연합신도회는 지난 3월13일 해광사에서 1차 발기인 모임을 갖고, 3월21일 청량사에서 2차 신도대표간담회, 3월27일 장안사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집행부를 발족하고 정관을 개정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통도사는 4월14~16일 보살계산림법회를 열었다.

통도사 보살계산림법회 원만회향

4월 14일~16일까지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스님)는 4월14일~16일까지 3일간 깨달음의 삶을 실천하고 보살의 삶을 성취하기 위한 보살계산림대법회를 개최했다. 3일간 통도사 설법전 등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는 4월16일 설법전에서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회향법회에서 전계 아사리 중산 혜남대화상, 갈마 아사리 법산경일 대화상, 교수 아사리 우설 덕문 대화상, 존증 아사리 송현성림, 보탑 천진, 무애, 인산 지준, 고범 중선, 혜엄 우진, 현진 지형 스님이 삼사칠증사로 법석에 올라 계를 내렸으며, 보살계 수계법회에는 30년째 빠짐없이 참석한 김명옥씨 외 5,000여명의 불자들이 보살계를 수계했다.

이날 회향법회는 개식, 예경삼보, 거향찬, 삼사칠증사 등단, 법사스님 삼배예, 수계, 연비 및 탑돌이, 회향게, 폐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통도사는 자장율사의 창건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후학 양성 장학금으로 박사과정 8명, 석사과정12명, 학사23명, 승가대학원 및 학림 11명, 본사 승가대학 4명으로 총 58명의 스님에게 5,34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 부종정 이취임식

(사)대선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승)제2대 종정 · 부종정식이 4월 12일 오전 대구 프린스호텔 본관2층 열렸다. 이 자리에는 대구 혜광사 주지 덕진당 진일 대종사 스님이 제2대 종정으로, 적연당 운암 대종사가 부종정으로 추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종단협의회 종정 스님들과 대선불교 조계종 종도,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승려시인이고 승려화백' 이신 진일 종정 스님은 취임사에서 "초대 종정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심신을 받쳐 종도 화합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사부대중 종도 여러분에게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축원올린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사찰경관 해치는 가설 덧집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은 그 문화재로 인해서 사격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문화재를 제대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문화재라는 것이 영구적으로 생명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재료에 따라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문화재를 과학적으로 보존처리하는 기술이 발달해서 예전과 같은 몹쓸 일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문화재는 아기 보살피듯 보살펴야 그 생명력을 오래 유지할 수가 있다.

문화재를 원형대로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찰에서는 문화재를 보존처리하거나 해체 · 수리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렇게 보존처리하거나 해체 · 수리할 경우에는 가설 덧집을 씌우고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오랜 세월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부재들이 햇빛이나 눈비나 바람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찰에 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리하는 문화재의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덧집을 씌우고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건물과 같이 규모가 큰 문화재를 해체 · 수리하는 경우에는 덧집 또한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사찰의 중심일 곽에 위치할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시각적 대상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 기간동안 사용하고 철거하기는 하지만 가설 덧집이 사찰경관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 가설 덧집의 재료나 디자인도 심의를 받아서 설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문화재를 해체 · 수리하더라도 이 가설 덧집 때문에 사찰의 경관이 지극히 나빠지는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얼기설기 철제 파이프 같은 것으로 구조를 만들고 그것에 철판을 씌워서 만드는 경우까지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부실하게 만든 가설 덧집은 사찰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념무상으로 작업에 몰두하기 어렵고 사찰에 오는 사람들은 안전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

영구적인 것은 잘 만들어야하고 임시로 사용하는 것은 허술해도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사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여법하여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가설 덧집이 사찰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곤란하다. 경남 ㅌ사찰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옛말 그대로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그 "조왕탱화"
사업장의 조왕신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을 약속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가치가 더해가는 전통탱화입니다.




초안 (먹물 밑그림)


상호 (전통조왕상호)


문양 (고대문양)

조왕탱화 상세안내

1 정의 :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2 유래 :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3 명호 :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4 구성 :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5 한국의 대표적인 조왕탱화 : 양산 통도사 비로암, 충남 계룡산 갑사, 대구 팔공산 선본사,
부산 삼광사, 경남 밀양 표충사
6 필수 :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7 내용 :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기법 : (1) 출초 – (2) 배접 – (3) 아교포수 – (4) 도채 –
(5) 바림 – (6) 문양 – (7) 금니 및 황선 쫓침 – (8) 금박붙이기 –
(9) 상호 – (10) 틀 싣기 – (11) 발미(전통기법 그대로!)
■ 금어 : 원장 – 전국 공모전 불교미술분과 심사위원
화원 – 문화재 기술자, 기능자, 전수자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규격 : 가로 61cm × 세로 91.5cm
■ 문의전화 : ☎ 051)332-0045 / 010-9216-0988

성 유 불 화 원 금어 조성철 합장

구례의 천년고찰, 홍매화 꽃비 향연에 '화엄법계'

꽃이 아름다운 사찰 2-구례 화엄사(華嚴寺)



각황전 계단 너머에 핀 홍매화는 다른 고매보다 꽃빛깔이 검붉어 '흑매'라고도 불린다.

4월의 전남 구례 화엄사는 말 그대로 화엄법계다. 벚꽃과 흑매가 흐드러지게 피어 관광객들의 눈을 황홀하게 해준다. 일주문 · 금강문 · 천왕문 지나는 곳곳에 벚꽃이 만개했다. 대웅전 왼쪽 각황전 오르는 계단 너머에는 흑매가 빨갛게 물감을 풀어 놓은 것 같다. 말 그대로 장관이다. 수령 300~400년으로 추정되는 화엄사 홍매화는 다른 고매(古梅)보다 꽃빛깔이 검붉어 '흑매'(黑梅)라고도 불린다.

각황전은 이 절집 중에 제일 우람한 전각(殿閣)이다. 이층 지붕까지 18m다. 각황전을 숙종 때 다시 지으면서 심은 것이 흑매다. 각황전 일층 처마보다 높게 자랐다. 10m가 넘는다.

아스팔트길 끝나는 곳에 작지만 고풍스러운 불이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리산 화엄사(智異山 華嚴寺)'라고 적힌 현판이 유독 돋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이 현판은 1988년 이 산문을 신축하면서 석전 황욱이라는 분의 글씨를 받아 건 것이라고 한다. 석전은 이 글자들을 오른손의 수전증 때문에 왼손으로 썼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기교 넘치는 다른 현판과 달리 글자들이 담백하고 유독 정직해 보인다.

천왕문을 지나니 보제루가 보였고, 1층이 막힌 채 '루(樓)'라는 명칭만을 간직한 보제루를 돌아 들어가니 그곳이 바로 화엄사의 중앙이었다. 대웅전과 각황전이 보이는 바로 그 자리. 화엄사가 그 존재 자체로서 설명하는 우주의 중심이었다.

화엄사는 다른 사찰과 달리 대웅전보다 각황전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학자들에 따르면 각황전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대웅전을 각황전과 대등하게 보이기 위해 보제루 옆으로 동선이 짜였다고 한다. 그래도 크고 웅장한 것에 더 감탄하는 우리 속세인들의 눈에는 각황전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다.

우리나라 고찰서 흔히 보기 어려운 2층 건물인 각황전은 조선 숙종 25년(1699)에 건축되었는데 불교를 괄시하던 조선 시대에 이 정도 규모의 사찰 건물을 지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란다. 현판 글씨는 숙종의 친필이다. 각황전은 건물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각황전의 지붕 옆 모습은 여덟 팔(八)자를 이루고 있는 팔작지붕이다. 각황전 관찰의 백미는 기둥 모서리에 서서 고개를 수직으로 꺾으면 보이는 처마다. 그래서 사진 작가들의 셔터가 가장 많이 눌러 지는 것도 바로 여기다. 처마를 단청으로 채색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나무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또한 단청 이상의 매력을 느끼게 한다.

각황전 안의 모습은 더욱 웅장하다. 밖에서 볼 때 2층 구조인 건물의 내부는 통 층 구조다. 4보살상과 30여래불상들이 시원스레 느껴지는 것은 높은 천장이 주는 시원함 때문인 것 같다.

각황전 앞마당에 있는 석등도 국보 제 12호로 지정된 문화재다. 이 석등은 높이가 6.4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 가운데 기둥을 장고 모양으로 한 것이 특이하다. 이것은 통일신라 후기 석등에서 자주 사용되던 디자인이라고 한다.

화엄사에는 국보 괘불도 있다. 정식 이름은 '화엄사영산회괘풍탱'이다. 괘불은 높이 11.95m, 너비 7.76m의 크기로, 석가불을 중심으로 문수보살, 보현보살, 사천왕상 등이 배치되어 있다. 불괘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둥근 얼굴과 어깨에서 부드럽고 원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필선이 매우 섬세하고 치밀하다고 한다. 국보 제301호다. 각황전 뒷동산에 자장율사가 부처님 진신사리 73과를 모시고 세웠다는 4사자 3층 사리석탑도 화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각황전 현판글씨 숙종의 친필
석등, 괘불, 4사자 3층석탑 등 국보 즐비

무엇보다 눈에 뜨이는 게 윗 층 기단을 받치고 있는 네 마리의 사자상이다. 모두 앞을 바라보며 입을 벌린 채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고 있다. 사자들에 에워싸여 있는 중앙에는 합장한 채 서있는 스님상이 있는데 이는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조사의 어머니라고 전하며, 바로 앞 석등의 탑을 향해 꿇어앉아 있는 스님상은 석등을 이고 어머니께 차를 공양하는 연기조사의 지극한 효성을 표현해 놓은 것이라 한다. 이 석탑 역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 제35호로 지정되었다. 화엄사는 한마디로 국보 백화점이다.

글=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사진=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화엄사 템플스테이

화엄사 템플스테이는 1박2일, 2박3일 일정이 있다. 상시휴식형 템플스테이도 있는데 최대 기간은 3박4일이다. 언제든지 문의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홈페이지 (www.haeomsa.org)나 템플스테이 사무국(061-782-7600)으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자장율사가 세운 4사자3층탑과 석등.

주변보기

〈가볼 만한 곳〉



섬진강어류생태관에는 섬진강에서 사는 민물고기를 전시한다. 산동면 원촌마을의 수락폭포는 물맞이 명소로 손꼽힌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으면 신경통, 근육통, 산후통에 효험이 있다고 전해진다. 게르마늄 온천수로 유명한 지리산온천랜드(061-783-1414)도 3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온천탕을 비롯해 찜질방, 사우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있다.

〈숙박〉

지리산둘레길에 위치한 쌍산재(010-9644-7116)와 곡전재(019-625-8444)는 유서 깊은 한옥으로 숙박체험이 가능하다.

이밖에 오미리의 오미은하수행복마을(061-781-5225)에서는 숙박은 물론 압화 만들기 등 체험도 할 수 있다.

〈식당〉



산채정식과 다슬기탕은 구례를 대표하는 별미다. 주변의 백화회관(061-782-4033)은 지리산서 채취한 30여 가지 나물이 반찬으로 나온다. 구례읍내의 부부식당(061-782-9113)은 물 맑은 섬진강서 건져 올린 다슬기에 수제비를 넣은 다슬기수제비가 맛있다. 이시돌(061-782-4015)도 10여가지 반찬이 나오는 산채정식이 유명하다.

화엄사 가는 길

- 승용차-내비게이션에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지리산화엄사를 치면 된다.
- 기 차-용산역에서 구례구역(061-782-7788) 수시 운행
- 버 스-서울 남부터미널 - 구례 시외버스터미널(061-780- 2731) 2시간 간격, 3시간30분 소요



미얀마 불교 이야기

2. 미얀마, 왜 '불교의 나라'인가

"최초왕국 석가족 건국"… 나라꽃 사라수



만달레이 힐 사원에서 관불의식을 올리는 미얀마 불자들. 만달레이 힐에는 부처님이 500아라한과 함께 법회를 열고 미얀마에 불법이 흥하 것이라 예언했다고 하는 말이 전해진다.



국제불교학교 총장 찌따구 스님과 티벳 달라이마라 존자의 만남

미얀마족은 '티벳-버마계' 인종

다민족 국가 통합에 불교 큰 힘

구법승 미얀마 거쳐 인도로

2005년 양곤서 내삐도로 수도 옮겨



미얀마 인들의 밝은 미소가 아름답다.

1) 티벳-버마계 미얀마 사람들

인도 수도인 델리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산다. 델리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차츰 이들의 피부색과 얼굴 생김새 그리고 신체구조를 통해 출신국을 구별할 수 있게 됐다. 미얀마에서 지내는 동안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든 생각은 미얀마 사람들이 티벳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점심공양을 위해 줄을 맞춰 서있는 스님들의 골격이나 걷는 모습에서 인도에 있는 티벳 스님들의 모습이 비춰졌다. 미얀마 사람들과 티벳 사람들은 기질 또한 강건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인종 계통을 살펴보니 이러한 느낌이 맞아 떨어졌다. 학계에서는 티벳 족과 미얀마 주요민족인 버마족을 묶어 '티벳-버마계(Tibeto-Burmese)'로 분류하고 있었다.

'티벳-버마'계는 '사이노-티벳'(Sino-Tibetan) 족의 지류다. 사이노는 중국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들은 중국 서남부와 티벳, 히말라야 산록, 인도대륙의 동부와 동북부 지역에 널리 퍼져있다. 고대 갠지스 강 중류까지 인종적 세력을 뻗친 이들에 대해 고대 인도사에서는 키라타(Kīrata)라 부르기도 했다. 현재 이들은 주로 히말라야 산맥 산록지대를 중심으로 분포해있다. 그렇기 때문에 버마족은 언어적으로도 티벳민족과 흡사하다.

'티벳-버마계' 중 티벳족과 버마족은 재미있게도 세계불교에서 대승불교와 상좌불교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

때문인지 오래 전 빈센트 스미스(Vincent A. Smith)와 같은 영국 인도사학자는 석가족을 버마족이 속한 '티벳-버마계'로 주장하기도 했다.

인도 아대륙에 '티벳-버마계'로 지칭되는 인종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은 인더스 문명 지역에서 발굴된 인골로도 증명됐다. 이들은 아대륙 동북부 지역에 살다 차츰 인종적 특성을 잃고 인도민족에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석가족과 미얀마에 얽힌 재미있는 전설들도 현재 미얀마에 전해지고 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더가웅(Tagaung) 건국 전설이다. 미얀마에 최초로 세워진 더가웅 국은 기원전 850년 경 인도 석가족이 이주해 건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가웅 국은 중국 남부 운남성으로부터 침입한 이민족에 의해 멸망당했다.

하지만 부처님 재세시 코살라국으로부터 멸망당한 석가족이 미얀마로 도피해 이전의 더가웅 국의 남은 일족과 힘을 합쳐 2차 건국을 일으킨다. 인도와 미얀마가 당시 육로는 물론 해로 등 다양한 루트로 연결돼있던 점에서 이 같은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일까. 미얀마 왕통사는 이후 모든 미얀마 왕조와 왕들의 시원을 석가족에서 구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이 육로를 통해 미얀마를 몇 차례 방문해 많은 사람들을 교화했다고도 전한다.

부처님은 500명의 아라한과 함께 미얀마를 방문하고 아난에게 미래에 이 땅에서 불교가 크게 번영할 것이라 예언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미얀마 불교의 상징이며 구심점 역할을 하는 쉐다곤 파고다 건립 또한 부처님과 긴밀히 연관돼있다. 율장(Vinaya Piṭaka) 대품에 의하면 보리수 아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때 최초로 공양을 올린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따뿟사(Tapussa)와 발리까(Bhallika)였다.

이들은 국가를 왕래하는 대상(隊商)이었다. 마침 보드가야를 지나다 부처님을 뵙고 최초로 귀의해 제자가 됐다. 율장에는 이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후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하였다고 전한다.

이후 이들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여기서 미얀마 전설은 계속된다. 이들 두 불제자가 바로 미얀마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동쪽의 미얀마를 향해 가던 이들은 부처님께 올린 공양의 답례로 여덟 가닥의 부처님 머리카락을 받는다. 이를 안치한 곳이 바로 쉐다곤 파고다인 것이다.

이러한 전설들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미얀마인의 불교 신심 수준과 정도를 나타내는 이야기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미얀마 인들의 불교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얀마 인들은 미얀마야말로 '부처님의 나라' 또는 '불교의 나라'임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

2) 미얀마 국명의 어원

미얀마의 공식적인 이름은 '미얀마 연방'(The Union of Myanmar)이다. 1989년 5월 버마 연방(The Union of Burma)에서 개칭했다. 아직도 우리에게 '버마'라는 말이 더 친숙하기도 하다.

미얀마로 개칭한 이유는 버마족 외에 다른 소수민족도 아우른다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군사정권에서 붙인 국명이라는 점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는 인사들이나 외국에서는 버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도 '버마'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아웅산 수치 등 야당 지도자들을 만날때는 '버마'를 사용하기도 했다. 인도에서 만난 미얀마 스님들도 '미얀마'보다 '버마'를 사용했다. 이는 스님들도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거부감이 있음을 의미했다.

'버마'의 어원에 대해 미얀마 스님들은 빠알리(Pali)어의 'brahma'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했다. 'brahma'는 '뛰어난' 또는 '탁월한' 등 의미를 지닌다.

학계에서는 'mramma'에서 와전(訛傳)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머람마'는 버마족이 히말라야 티벳고원에서부터 남하한 이후 현재 미얀마 북부지역(upper Burma)에서 머문데서 유래했다. 오래 전부터 미얀마 북부지역의 사람들은 스스로 '머람마'나 '미엔'으로 부르며 현재 몬 주 같은 남부 미얀마에 사는 민족과 구분했다.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인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미얀마를 '미엔(綿)' 또는 '미엔티엔(綿甸)'으로 불렀다.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 군대와 함께 미얀마 군대도 참전했는데 '미엔' 등이 〈난중일기〉에도 나타난다.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일곱 번 정벌했다는 남만(南蠻) 지역이 지금의 운남성이나 북부 베트남 지역이 아닌 북부 미얀마라는 주장도 있다.

동아시아 구법승들은 인도로 가는 길로 중국의 사천과 운남 그리고 미얀마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기도 했다. 현재 이 루트를 따라 중국정부가 인도양에서 미얀마를 경유해 중국으로 연결되는 약 1100km의 송유관을 건설하고 있다. 미국의 영향력에 놓인 멜라카 해협을 우회하기 위해서다.

3) 미얀마는 어떤 나라인가

미얀마의 수도는 과거 양곤(Yangon)이었다. 하지만 2005년 미얀마 정부는 양곤에서 북쪽 320km 떨어진 중부 네삐도(Nay pyi taw)로 수도를 옮긴다. 최근 불교계 여러 신문에서 양곤을 미얀마 수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보다.

미얀마는 인도 동부, 방글라데시와 함께 '북 벵골만'에 위치한 나라로 5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북서쪽으로 방글라데시와 인도, 북동쪽으로는 중국, 동쪽으로는 라오스, 남동쪽으로는 태국이 그것이다.

국가면적은 676,578㎢로 세계 40위다. 대륙에 속한 동남아 국가 중 가장 크다. 99,720㎢인 한국에 비해 약 7배, 한반도 전체의 3배 크기다.

남북으로 2,040km에 달하는 미얀마는 열대와 아열대 기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미얀마 중남부의 기후는 고온다습한 열대 몬순 기후인 인도와 비슷하다. 하지만 여름철 기온이 30~45도로 인도보다는 다소 낮다. 고원지대인 북부는 아열대성 기후를 보인다.

미얀마 스님들은 몬순 기간인 여름 3개월 간 하안거를 지낸다. 기온이 낮은 11월부터 2월까지는 평균 17도로 따뜻하고 쾌적해 수행에 임하기 좋은 날씨를 보인다. 이때 미얀마는 우리 가을날씨 처럼 거의 비가 내리지 않으며 맑은 하늘이 드러난다.

미얀마 인구는 2013년 5,517만 명에 달해 세계 24위에 위치해있다. 종교인구는 불교 89%, 기독교 4%(침례교 3%, 가톨릭 1%), 이슬람 4%, 그리고 토속신앙 1%와 그 밖에 2%의 다른 종교로 구성돼있다. 민족구성으로는 버마족 68%, 샨족 9%, 꺼인족(구 명칭은 까렌족) 7%, 라카인족 4%, 중국계 3%, 인도계 2%, 몬족 2%, 그 외 까친족, 친족, 꺼야족 등의 소수 종족이 나머지 5%를 차지하고 있다.

불교인구의 중심은 버마족으로 샨족과 몬족도 주로 불교를 믿는다. 미얀마는 다민족 국가이기에 민족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은 90%에 가까운 인구가 불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미얀마에서는 기독교의 교세확장 등 종교적인 문제가 사회이슈가 되고 있다.

미얀마인들은 석가족처럼 '태양의 후손'이라 해 공작을 민족의 상징새로 사용한다. 새 수도인 네삐도 또한 고대 왕국 수도였는데 '위대한 태양의 땅'이란 의미다.

미얀마의 나라꽃은 사라나무(Shorea robusta)의 꽃인데 부처님이 반열반에 드신 사라쌍수의 꽃을 상징한다. 미얀마에서는 각 절이나 수행처 도로변 등에서 사라나무를 쉽게 볼 수 있다. 이 사라나무는 곁가지가 없이 푸른 잎과 함께 하늘로 곧게 뻗어있다. 이는 불법의 바른 전법을 의미한다.

미얀마는 자신들만의 미얀마력(歷)이 있다. 미얀마에서 출간된 불교서적 등을 보다보면 서지사항으로 불기 2557년, 미얀마력(M.E.) 1375년 그리고 서력기원2013년이 함께 표시된 경우를 볼 수 있다.



조준호 (한국외대 남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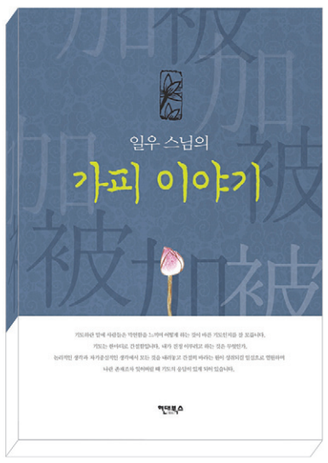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내리는

절 성관음사



내 삶 속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내 작은 삶 속에서 감사함을 모르면
어디서도 감사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원천이요
미래 희망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면서 살아 봅시다.
스스로 나를 체험시켜 보십시오.



삼보에 귀의합니다.
금번 성관음사에서는 33관음응신전 낙성법회 및
주지 효동 일우 스님의 출판 법회를 봉행코져 합니다.
무루 동참하시어 법회가 원만히 회향 될 수 있도록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불기 2557년 4월 28일 일요일
(음력 3월 19일), 오전 10시 ~

33觀音응신나투신도량
성관음사
전화 : (053)655-3380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사람 됨됨이 '언행일치', 불법으로는 '향상일로' 강조

〈言行一致〉 〈向上一路〉



方山老의 無影樹 〈10〉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삼보 스님



삼보 스님
수타사 · 정암사 주지 및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 역임
기원정사 회주, 동국학원 이사

배움에는 어떤 구애도 받지 않아
법문 · 강의 원고 없이 술술
숯으로 흙에 글씨 쓰며 공부
출가자 잘못 · 제도 강하게 비판

-그 무렵, 탄허 스님은 동국대 대학선원장이 되어서 서울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스님이 1966년 가을 무렵에 대학선원장이 되어서 서울로 올라가시고, 제가 시봉으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해 여름부터 그런 이야기가 오가더니 그렇게 되었어요. 스님은 서울로 가시면서 저를 시봉으로 삼아서 갔는데, 거기에도 조그만 일이 있었어요. 원래 그 시절에는 소임을 6개월만 하고, 6개월이 되면 소임을 바꾸는 전통이 있었어요. 제가 시봉을 6개월 이상을 하였으니, 당연히 다른 사람을 시봉으로 하려고 하였는데 스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하려는 심중을 종무소에서 몰라서, 난리가 조금 있었죠. 그것은 어른의 뜻도 모르고, 여쭈어 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근 3년을 시봉했어요. 우리 스님은 새벽부터 주무실 때까지, 어디를 가셔도 늘 원고를 쓰셨어요. 이런 정열로, 노력으로 화엄경 출간과 사집 · 사교 과정에서 승가에서 배우는 모든 경전을 번역하신 것입니다.

-시봉 시절부터 탄허 스님과 인연이 돈독하였네요?

스님이 동국대 대학선원장을 하실 때의 간사는 황산덕 교수의 부인(대법선보살)이었어요. 그 시절 스님을 만나 뵈러 온 사람은 조재호, 동대총장을 한 송석구 교수, 법안 스님이었어요. 스님은 법안 스님을 좋아하셨죠. 그때 운허 스님이 동국역경원장이었는데 운허 스님은 아랫집이었고, 우리 스님은 윗집이었어요. 거길 경산 스님이 와 보시고는 어른 스님, 대강백 스님이 사는 게 너무 초라하다고 하셨어요. 머물던 집은 일본집인데, 오두막집 같았어요. 그래서 그해 12월에 두 달 만에 용주사로 가게 되었어요. 경산 스님이 우리 스님에게 용주사를 역장(譯場)으로 하려고 하는데, 당신 상좌에게 용주사 주지를 줄 터이니 그리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이 예산 향천사에 있었던 원보산 스님의 상좌인 희묵 스님을 연락해 불러서 "니 본사 주지를 해 봐라" 하셨어요. 그러자 그 스님은 1주일 말미를 달라고 하더니, 그만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때 장가가려고 마음을 먹었던지 그랬어요. 그래서 대신 온 스님이 상원사의 희섭 스님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용주사로 오셔서 역장장을 맡으시고, 희섭 스님이 용주사 주지로 왔어요. 그때 용주사에는 운허 스님을 비롯한 강사 스님, 무비 · 성파 스님과 같이 역경사 양성소에서 배우던 스님, 속인 등이 바글바글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희섭 스님은 상원사에서 선방을 하셔서 보살들이 갖다 주는 것으로 먹고 살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용주사는 돈이 나올 곳이 없고, 오히려 쓸 곳이 많았어요. 대중들이 많이 모여서 공부를 하니 그 뒷바라지를 다 해야 되었거든요. 그래서 희섭 스님은 안 되겠다 하고는 꾀를 내어서 선방을 하면 돈이 나올 것 같다고 여기고는 용주사에다가 중앙선원을 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1968년에 중앙선원을 설립하고 조실로 전강 스님을 모셨어요. 그러자 전강 스님의 상좌인 정달 스님과 수좌 스님들이 들어와서는 실권을 갖게 되었지요. 이렇게 되자, 희섭 스님은 한 달도 안 돼서 그만 용주사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희섭 스님은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 스님과 상의를 전혀 안 했어요. 그래 탄허 스님은 기분이 나빠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1968년 가을에 용주사를 나와서 진관사로 갔습니다. 전강 스님은 들어오시고, 우리 스님은 전강 스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님은 당장 나오니깐 갈 곳이 없어서, 진관사로 간 것이지요. 그해 한겨울을 거기에서 지냈어요. 그 이후로 우리 스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희섭 스님과는 불편하게 지내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간 용주사에서 나온 연유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탄허 스님은 그 이후에는 오대산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무렵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가 들어오기 전에 화엄경 원고를 영은사를 옮기셨지요?

우리 스님이 원고를 영은사로 옮긴 것을 두고 예언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스님이 영은사를 평소에 좋아하셨던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스님을 모셔 보니, 우리 스님은 오대산에 대해서 큰 애착이 별로 없었어요. 오대산은 불안정하면서 춥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또 상원사에 있는 수좌들이 월정사로 3일에 한 번 정도로 내려와서 분탕질을 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희찬 스님은 방에 들어가기도 껄끄러웠습니다. 그 시절에는 수좌들이 그랬어요. 그에 비해 영은사는 따듯하고, 쌀과 감이 나서 곡식이 그래도 있어서, 영은사에 애들을 데리고 있으면 밥은 안 굶는다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영은사는 월정사와 멀리 떨어져서 푸근하게 여겼던 면도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그 원고를 옮긴 것은 예지적인 것에 의해서만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싶어요.

물론 스님은 평소에 예지적인 모습은 있었어요. 방산굴에서는 저보고 "야 대야에 물 떠와라" 그러셔요. 그러시면서 그 대야 물에 하늘의 별자리가 비치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희한하다고 여겼지요. 또 미물인 개미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풍란이 나기 이전에 쥐새끼들이 움직인다고 하시면서, 이 세상의 짐승들이 그런 조짐을 미리 보여준다고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탄허 스님은 1975년에 화엄경 출판을 마치고, 1977년에 화엄경 특강을 하였는데, 그때에 특강이 어렵게 열렸다고 그럽니다.

그때 종단에는 조계사파와 개운사파가 대립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이 하려고 하였던 특강이 열리면 월정사에서 소란이 날 것이라고 그래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에 그런 것은 별 무리가 아니라고 봐서, 스님에게 그런 것은 개의치 않아도 되신다고 건의를 드리고 그래서 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 강의는 스님의 실력이 입증된 중요한 특강입니다. 저도 그때에 상원사 주지를 하면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스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희찬 스님이 주지를 하시면서 그 뒷바라지를 한다고 고생이 많았어요. 그런 뒷바라지가 쉬운 게 아닙니다.

-탄허 스님은 대석학, 대강백으로 세상의 학자들은 다 와서 물으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배움에는 어떤 구애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스님은 배우는 것에는 가리지 않아요. 내가 군대에 갔다 와서 월정사 총무 소임을 볼 때인 1976~1977년 여름인가 그 무렵인데 월정사에 이기영 박사, 홍정식 교수, 김달진 등 당대 석학 서너 명이 왔어요. 그 분들이 와서는 3일간 계속 강의를 했어요. 그때에 보니깐 우리 스님은 제일 앞에 앉아서 그 분들의 강의를 다 들었어요. 방산굴에서 내려오셔서 매일, 안 빠지고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것은 가리지 않아요. 그때에 보니, 스님은 메모할 것은 딱! 메모합니다. 이렇게 우리 스님은 대석학, 도인이면서도 배우시는 것에 가리시지 않았어요. 우리 스님은 법문을 하시거나 강의하실 때에는 그 원고를 쓰는 법이 없어요. 다른 스님들은 조금이라도 메모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스님은 그게 없어요. 그대로 가셔서,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줄줄 나옵니다.

저는 우리 스님의 그런 것을 보고는 감탄했어요. 우리 스님은 송재(誦才)가 뛰어나십니다. 사서삼경을 다 외우시고, 그뿐만 아니라 유불선의 모든 경전을 회통할 정도로 해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노력이 엄청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탄허 스님이 그런 실력을 갖추실 때, 보령의 이극종이라는 유학자에게 배웠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스님을 시봉해서 보령에 가서 이극종이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스님이 고향을 방문하시고, 보령에 가서 만났는데 스님이 그 어르신과 맞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그 분에게 삼배를 드리라고 해서 하였죠. 스님보다는 스무 살이 더 되는 분이었는데, 키가 크고 상투 틀고 갓도 쓰고 그랬어요. 스님의 원래 고향은 김제인데 아버지가 보천교 간부를 하셔서 정읍으로 이사왔어요. 스님은 조계사 대웅전을 보시고는 "이게 건물이여, 보천교 건물 중에서도 제일 조그만한 것을 가져온 것이여. 중들이 머리 씀씀이가 그렇지" 하였어요.

-스님의 뛰어난 실력, 암기력 등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요. 스님은 어렸을 적에는 무척 가난하였다고 그랬어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루 종일 책을 읽다 보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니깐, 큰 동이에 사카린을 뿌려 놓고는 방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그 물을 먹었다고 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못살았다고, 거지 생활을 하였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스님은 군불을 땔 때에는 숯을 갖고 글씨를 썼다고 그랬어요. 종이가 없으니깐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어릴 적부터 숯으로 글씨를 쓰시면서 공부한 것을 외운 것이지요.

스님은 저에게 "나 고생 많이 했다"고 하셨어요. 내가 볼 때에 보령으로 처가살이, 데릴사위로 가서 이극종 선생을 만나서 제대로 학문을 하였다고 봅니다. 우리 스님이 이극종이라는 분을 극찬했어요. 참, 그리고 우리 스님은 보령으로 장가 가기 전에 정읍에서 고생하면서 공부할 적에 변산의 월명암에서 공부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월명암에서 펴낸 〈부설전〉을 보니깐, 우리 스님이 열여섯 열입곱 무렵에 동네의 잘사는 집 학동(炳壽)의 독선생으로 있었다고 그래요. 훈장을 하면서 공부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탄허 스님의 정체성을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스님의 성격을 한마디로 단언하여 말하기는 미묘하고, 어렵죠. 스님의 성격은 여러 측면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스님은 활달해요. 호연지기도 있고, 한량기도 있어요. 언제인가 서울 수유리 산골짜기에 조상현 같은 창을 하는 사람을 불러서 공연을 하기도 하였어요. 그러면서도 사람을, 인재를 키우겠다고 하시면 다른 것을 제쳐 두고 하시는 면도 있어요. 스님은 자질구레한 것을 따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잘못된 것을 보시면 용납을 안 하십니다. 인간성, 인간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자세가 안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리고 스님은 승려의 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과 스님의 출가 제도 같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래 갖고는, 이런 정신머리 갖고는 불교가 안 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서 외출을 하실 때에는 의관을 딱 갖추시고 나가십니다. 구두, 모자, 옷 같은 것을 제대로 정장 차림으로 하고 나가시고 그랬죠. 스님은 불법 사상에 대한 애정은 깊었지만, 승려들의 제도에 대해서는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우리 스님은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요즈음 〈탄허록〉이라는 스님의 책이 나와서 〈불교신문〉에 소개된 것을 보니까 스님을 예측가, 풍수지리가처럼 쓴 것이 있어요. 이렇에 우리 스님을 보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스님의 정체성, 성격은 더욱 연구를 해서 말을 해야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스님은 1977년, 이리역 폭파사고가 나자 서예전을 열고, 그 수익금을 사고를 당한 유족들에 기부하였지요?

그때 스님이 그렇게 기부를 한 것은 스님이 그 무렵에 여윳돈이 조금 있었고, 전시회를 하고 나서 남은 돈을 모아서 그렇게 하셨지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좋았고, 어떤 면에서는 스님의 고향이 전라도라서 하셨던 것도 있어요. 스님은 항상 전라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김대중씨를 보고는 저에게 "두고 봐, 김대중이가 대통령을 해 먹을 거야"라고도 하셨어요.

-탄허 스님의 비석은 어떻게 해서 세워졌나요?

스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저하고 희찬 스님이 비석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비석을 세우려면 비문이 있어야 하니깐, 제일 먼저 해인사 백련암의 성철 스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철 스님이 탄허 스님의 학문이 너무 깊어서 당신이 손대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사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관응 스님, 운허 스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였어요. 그 스님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희찬 스님이 입적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추진을 하였는데, 가만히 따져보고 나서 서울대 교수인 최창규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분은 그때 국회의원을 하였는데, 면암 최익현의 손자이고 우리 스님을 만나기 위해 오대산에를 왔다 갔다 한 것을 아니깐 그랬어요.

내가 우리 스님을 가르친 스승인 이극종이 최익현의 제자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분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미리 연락을 하고 그분의 집에 찾아가서 부탁을 하였지요. 그래서 최창규의 비문을 받아 1986년 상원사에 세웠지요. 그 비석은 양 측면에 용트림의 모양으로 만들었고, 아주 컸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비석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새로 만들어 세웠는데 그것은 각성 스님이 비문을 썼지요.

-스님이 강조하신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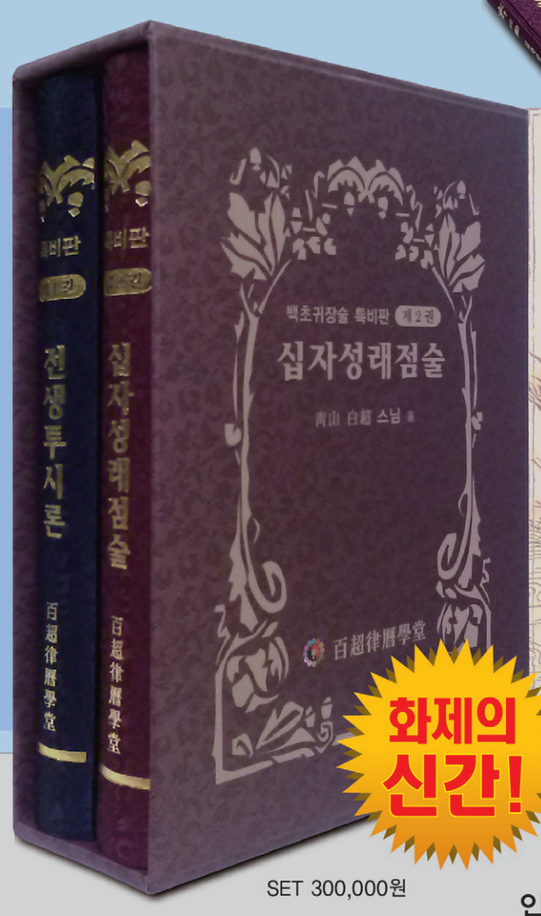
스님이 저희들에게 항상 말씀하신 것은 언행일치입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되려면 언행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고 속가의 가르침,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으로는 향상일로(向上一路)를 많이 말씀하시고, 붓글씨로도 써 주었어요.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백초귀장술 특비판 / 제1권
전생투시론
지금까지는 전생(前生)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론이 없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개개인의 사주를 토대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전생에 어디에 살았으며, 무엇 이었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현생에 고통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영혼투시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최면요법이 절대 아닙니다.
또 빙의가 되었는지, 어떤 조상영가가 지금 고통을 주는 것인지도
알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青山 白超 스님 著 | 신국판/양장본/제1권 345쪽



화제의 신간!

사차원운명둔갑술 백초귀장술 특비판 / 제2권
십자성래점술
사람의 운명의 길흉을 판단할 때 지금까지는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아서 감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성래점술은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지 않고도
상담자가 묻는 질문의 답을 알 수 있고, 된다 안된다와 하라
하지마라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신 비법을 공개합니다.
인도의 점성술 천궁도와 귀장술의 12신궁으로 만들어진 12궁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면 됩니다.
青山 白超 스님 著 | 신국판/양장본/ 제2권 350쪽

◆ 책 구입은 서점으로 배포되지 않고 백초율력학당에서만 판매합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041)943-6882 / 010)3813-4443
SET 300,000원
百超律曆學堂
입금계좌 : 농협 302-4233-7099-41 예금주 : 김경석

어느 곳이 보배의 장소인가?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16〉



범어사 주지

'보배의 장소[寶所]'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는데, 어느 곳에 성(城)이 있겠느냐? 만약 "이곳이 이미 화성(化城)이라면, 어느 곳이 보배의 장소인가?" 하고 묻는다면, 보배의 장소는 가리킬 수 없다. 가리킨다면 곧 방위와 처소가 있게 되므로, 참으로 보배의 장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있다."고만 했을 뿐이다. 그 거리가 얼마라고 정해서 말할 수 없으니, 오로지 당체에 계합할 뿐이다.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가까움이 없는 가까움이다
멀다면 우주보다 멀고
가깝다면 눈보다도 가깝다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교법에서 깨닫는다면
마음을 가벼이 여기고
가르침만 중히 여겨
'흙덩이나 쫓는 개' 꼴 된다

꼭지가 말라 비틀어지면
살짝 건드려도 툭 떨어지나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따면 꼭지 덜 떨어져
계속 흔적을 남기고 다닌다

보살은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자기가 지은 복덕마저도
탐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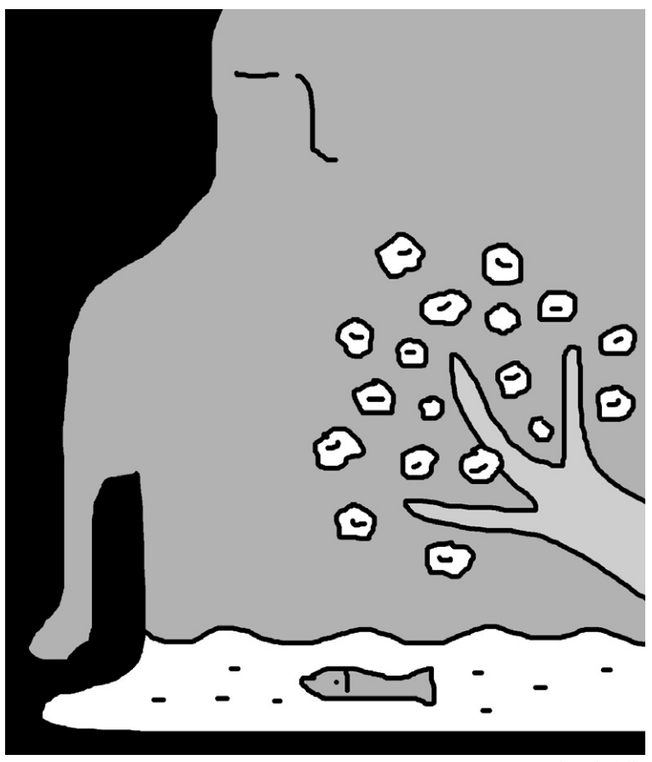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천제(闡提)란 믿음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다. 육도의 모든 중생들과 이승(二乘)들은 불과(佛果)가 있음을 믿지 않으니, 그들을 모두 선근(善根)이 끊긴 천제라 한다.

"일천제(一闡提)는 성불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지만, 《열반경》에서는 일천제도 종국에는 성불한다고 했다. 천제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부처될 수 없다."며, 불과(佛果)를 믿지 않는다. "누구나 부처될 수 있는 원인을 갖고 있다."는 믿음이 철두철미한 계합을 통해 형성되어야 하는데, 천제는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보살은 불법이 있음을 굳게 믿고, 대승과 소승을 차별하지 않으며, 부처와 중생을 같은 법성(法性)으로 본다. 이들을 가리켜 '선근이 있는 천제'라 한다. 대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은 사람을 성문(聲聞)이라 하고, 인연을 관찰하여 깨달은 사람을 연각(緣覺)이라 한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비록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 성문불이라 한다.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대개 법(法)에 있어서는 깨닫는 것이 많으나, 마음(心)에 있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비록 영겁 동안 수행을 한다 해도, 마침내 본래의 부처가 될 수는 없다.

본래의 부처는 수행을 가지하지 않는다. 수행하는 모습이 있는 동안에는 부처가 될 수 없다. "수행한다."는 생각만 불러 일으켜도 어리석어진다.

만약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교법에서 깨닫는다면, 마음을 가벼이 여기고 가르침만 중히 여겨 '흙덩이나 쫓는 개'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본마음을 잊었기 때문이다. 본래 마음에 계합하면 될 뿐, 법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곧 법이다.

돈오하는 순간에 "이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 그뿐인 것을, 사람들은 늘 찾아다닌다. 꼭지까지 말라비틀어지면, 살짝만 건드려도 툭 떨어지는 법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따려고 덤빈다. 그러니 꼭지가 덜 떨어져서 계속 흔적을 남기고 다니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 경계로 인해 마음이 장애되고, 현상(事)으로 인해 본체(理)가 장애되고 있다. 그래서 늘 경계로부터 도망침으로써 마음을 편히 하고자 하고, 현상을 물리침으로써 본체를 보존하고자 한다.

흔히 "눈앞에 어른거리는 경계가 다 마음을 방해하는 그림자여서, 없애버려야 내 마음이 편하고 분별을 덜 할 것이다."고 생각하지만, 그럴수록 스스로를 조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나에게 아직도 이런 그림자가 남아 있다는 것을 각찰(覺察)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부가 되었다면, 일어나는 생각을 없애고 끄달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또 "없애려 해도 없애지 못하는 것은 공부가 안 된 것이다."며 스스로 분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대로 지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앙금이 남아서 자기도 모르게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무명과 합쳐져서 다시 태어날 때 허물을 뒤집어쓰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 내려놔서 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시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마음이 경계를 가로막고, 본체가 현상을 흐리게 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경계는 저절로 비고, 본체를 고요하게만 하면 현상은 저절로 고요해지므로, 거꾸로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한다.

공부가 안 된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면, 돈오할 생각은 없이 비우는 것에 몰두한다. 하지만 공부된 사람은 그러려니 하며 점검해 마칠 줄 아는 여유와 힘이 있다.

사람들이 보통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않는 까닭은, 공(空)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기 마음이 본래부터 비었음을 모르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를 없애려고 하면서도, 마음은 없애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없애지, 경계를 없애지 않는다. 나아가 보살은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지은 복덕마저도 탐착하지 않는다.

보살은 무상(無相)을 눈뜨고 공부할 수 있는 인연에 나아갔기 때문에, 경계든 마음이든 다 버릴 줄 안다. 불법을 눈뜬 자가 아니면, 보살이 공부하는 모습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것을 불보살만 들을 뿐, 보살지견을 눈 열지 못한 제자들은 설사 혜안을 눈 열었다 하더라도 듣지 못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업식이 적고 믿음이 큰 사람들은 내려놓는 순간에 그 말뜻을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줄 알고 자꾸 생각에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어지러워진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㊻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무량수경〉

원의 크기와 강렬함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흔히 '그릇'이라는 말을 쓴다.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라든가, "그 사람의 그릇이 그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라든가…. 이때 '그릇'에 해당하는 말을 불교에서 찾아본다면, '근기(根機, 根器)'라는 말이 될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의 의미를 지닌다. 도대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원(願)'의 크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원의 크기를 기준으로 우리는 부처와 중생을 나눌 수 있다. 부처님의 원은 그 크기부터가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는 겨우, '나'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나의 가족, 나의 나라…. 가족이 있는 재가자들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다. 모든 중생을 다 고려대상으로 넣고 있는 것이다. 그 뚜렷한 예를 〈무량수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미타불의 전신인 법장(法藏)비구는 48가지 원을 세우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18원을 들어보기로 하자.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꺼이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면서 (일념) 내지는 십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라에)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역죄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한 자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보라, 이 부처님의 원을! 원의 스케일이 이렇다. 일단 시방세계의 중생들 모두를 다 생각한다. 원은 이정표이자, 등대이다. 방향성을 제시하는 힘을 원은 갖고 있다. 우리가 헤매는 것도 원이 없어서이거나, 원이 약해서이다. 원이 굳건하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다. 원은 곧 힘이기 때문이다.

법장비구는 이러이러한 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다. 배수진을 친다. 그만큼 강렬히 원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성불, 동시구제

48원 중에서 제18원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고, 그 해석을 둘러싸고 수많은 담론이 이루어져 왔다. 제18원에 대한 해석의 역사가 바로 정토신앙의 역사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그런 방향을 더 천착하고 싶지는 않다. 주목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법장비구의 48원에는 부처와 중생의 동시성불, 즉 동시구제가 담보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미타불이 되는 순간은 그 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그렇게 해서 법장비구는 아미타불이 되셨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의 모든 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아니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닌가.

이는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위로 깨달음을 구하고(상구보리), 아래로 중생을 교화한다(하화중생)"라는 말을 시간적 선후관계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장비구의 원에 따르면, 그러한 이해는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된다. 성불과 구제 사이에는 결코 시간적 선후관계가 없다.

법장비구의 이 원들에서는, 법장비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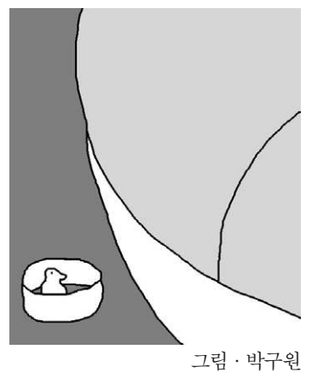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아미타불이 되는 성불과 모든 중생들이 그의 국토에 가서 태어날(왕생) 수 있는 구제의 보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장비구의 성불과 우리 중생의 구제는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일 뿐이다. 말하자면 동시성불이며, 동시구제인 것이다.

이 법장비구의 원들에서 동시성불과 동시구제를 읽어낸 분들이 신란(親鸞, 1173-1262)스님이나 잇펜(一遍, 1239-1289)스님이다. 이 분들의 해석에 따르면, 법장비구가 아미타불로 성불했던 바로 그 순간, 우리 중생의 왕생은 결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심(安心)은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모두는 극락에 갈 사람들이다.

종래 우리는 정토신앙을 언제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장비구의 48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성과 사회성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중생에 대한 사랑이 낳은 결과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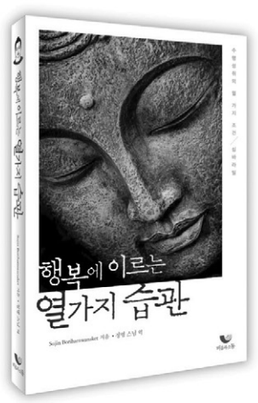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등 54번지 www.msjy.co.kr

일반인과 수행자를 위한 행복 지침서
마음의 안락과 열반을 성취하는 실천수행



보시 · 지계 · 출리 · 지혜 · 정진
인욕 · 진실 · 결의 · 자애 · 평온
바라밀!

수행성취의 열 가지 조건, 십바라밀
행복에 이르는 열 가지 습관
Sujin Boriharnwanaket 저/ 정명스님 역
신국판 | 흑백 | 368쪽 | 13,8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고통의 소멸과 니르바나에 이르는 10가지 수행법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닙바나(열반)라고 하는데, 열반을 증득하려면 필요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 조건이 바로 십바라밀이다. 수행의 성취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조건을 만나야만 이뤄진다. 그래서 구도자는 그 조건이 무엇이고 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안 다음에 하나하나 이 조건들을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태국의 명상수행가인 Sujin Boriharnwanaket는 니까야 가운데 소부(小部)의 소송(小誦) 및 불소행장(佛所行藏)과 그 주석서를 근간으로 붓다의 수행법을 제시한다.

김천 성전사 www.junmyeong.com 054-434-9090
비움과소통 출판 및 법공양(특별할인) 문의 02-2632-8739

설법 · 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종 합 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연수안내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지도교수
[우불 김 철 회 박사]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40년 노하우를 지닌 우불 김철회 박사 직접 지도

• 회장 김철회 박사
• 원장 처 명(선광)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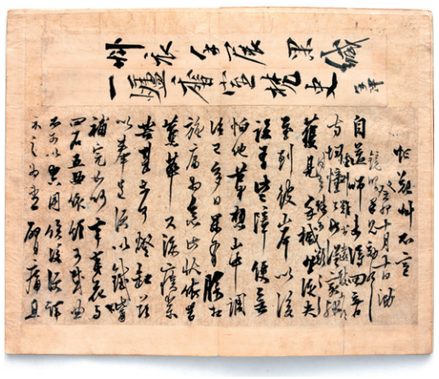
한 국 설 법 연 수 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편지 받고난 후 피안에 이른듯 상쾌”

제주에서 말을 타다 엉덩이에 큰 상처를 입었던 초의는 완쾌되지 않은 채 대흥사로 돌아갔다. 〈완당전집〉〈여초의〉 19신에도 소개된 이 편지는 〈벽해타운첩〉이 발굴된 후, 1843년 10월 10일에 쓴 편지임이 밝혀진 셈이다.

따라서 초의가 제주도를 출발, 대흥사로 돌아온 시점은 이 해 늦가을로 추정된다. 특히 추사는 성치않은 몸으로 돌아간 초의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는데, 이 편지에는 그의 애틋한 마음이 행간에 오롯이 배어난다. 〈벽해타운첩〉에 실린 이 편지는 다음과 같다.



초의의 안부를 애타게 기다린 것을 알 수 있는 〈벽해타운첩〉의 편지.

소식 몰라 안절부절…애틋함 행간에
질그릇 등항 · 안경 초의에게 선물

그대를 보낸 후로 소식이 없어 안절부절 했습니다. 바로 우리 집 하인에게 그대의 편지를 받고, 흐뭇하고 상쾌할 뿐만 아니라 피안에 이른 것 같으니 이후 설령 장애가 있다한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어 생각해보니 산중에서 몸을 조리한지도 여러 날이 되었는데 과연 더 나아진 상황인지요. 오히려 늘 염려가 됩니다. 나의 상황은 예전처럼 초췌합니다.

더구나 병까지 겹쳐 재앙과 고통이 심하니 어찌해야 합니까. 등항(燈缸: 질그릇으로 만든 등)은 우리 집 하인 편에 보냈는데 철로 부리를 만들어 보완하는 것이 어떨지요. 자목련과 돌 네 점, 오곡을 받았으니 감읍할 만합니다. 오곡은 함부로 쓸 것이 아닙니다. 후에 오는 인편을 기다려 다시 상세히 알려주기 바랍니다. 팔이 아프고 바빠서 간신히 적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1843년 10월 10일 륵

안경은 과연 효험을 보셨나요. 화로는 멀리 보내기 어려워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안타깝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自送師未得回音 方切憧憧

即從家隷 獲得見手槭 非徒?慰到波岸 以後 設有些障 便無?他 第想山中調治己多日 果有勝相 旋庸爲念 此狀依昔蕉萃 又添疾?苦甚 奈何 燈缸玆以奉送便 以鐵嘴補完如何 辛夷花與四石五曲 依領可感 曲可不以空用 俟後便詳示之爲望 臂痛且忙艱草 不宣 癸卯 十月十日泐

鏡眼果見效耳 爐則難於遠致 不得付去 殊可歎可歎耳)

분명 초의는 1843년 여름까지도 제주도에 머물렀다. 따라서 이 편지가 1843년 10월 10일에 쓴 것임으로 그가 제주를 떠난 것은 이 해 늦가을이라 추정된다.

특히 추사는 제주도를 떠난 후, 소식이 두절되었던 초의의 안부를 애타게 기다린다. 집안의 하인을 통해 초의의 편지를 받은 후에야 ‘피안에 이른 것 같이’ 상쾌하고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하니 그의 걱정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드러낸다. 실제 제주도에서 입은 초의의 부상은 후일 경향의 지인들 사이에서 ‘초의가 말을 타다가 팔이 부러졌다거나 다리를 다쳤다’고 와전되기도 하였다.

풍문이란 이렇게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확대되는 속성을 지닌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풍문의 폐단을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여도 내가 살피고,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여도 내가 살펴야한다’고 경계한 것이리라.

한편 추사는 제주에서 초의에게 등항을 선물한 이외에도 안경을 선물했음이 처음으로 밝혀진 셈이다. 추사가 선물한 안경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인지 아니면 경주 남석으로 만든 안경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시 귀품이었을 안경을 선물한 것은 추사와 초의의 관계를 극명히 드러내는 일이라 하겠다.

안경의 역사를 대략 살펴보니 17세기 경주 남석을 가공해 만든 수정 안경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순조 년간에 안경이 유행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1590년 통신부사로 일본을 다녀온 문신 김성일의 안경이 전해진다. 따라서 초의는 추사를 통해 신문물을 접했음이 더욱 분명해진 것이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는 분을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 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500인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高僧 및 元老 선정(宗師, 大宗師 급만 동참 가능)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법하께서도 법왕청 및 승왕청에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한국 및 세계 고승 500인 한분 한분의 공적과 활동 내역을 기록한 고승 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지구촌 곳곳에 배포하여 간직하게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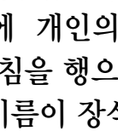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 입니다.
세계 법왕청을 설립하고 법왕 및 승왕을 추대하고자 하는 불교사에 개인의 명예와 독선조차 하심으로 자신을 내려 놓으시고 헌신적 희생정신으로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십시요.
법왕청 설립에 헌신하신 업적이 불교사의 한 페이지에 큰스님의 이름이 장식되었으면 합니다.

世界 法王 & 僧王 推戴委員會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 시작했습니다
世界佛教高僧團人名辭典
세계 불교를 움직이는 인물 1인 A4용지 1장 분량 소개
세계 고승단 인명 사전 편찬 진행중입니다.

법하께서도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계불교 고승 및 원로 500인. 법왕청 및 승왕청 내각 580인
자랑스런 불교계 고승단 큰스님 총 1080인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심을 모든 스님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불교사의 영광이요 불교계에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개별통지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한국불교 범종단 총연합 협의회 회 장
미얀마 연방정부 한국주재 미얀마 명예대사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 鐸 - 慧 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불법은 고통의 바다서 만난 의지처이자 ‘섬’(燈)

전재성 박사 (빠알리성전협회 회장)

유신독재에 항거해 민중불교를 외쳤던 청년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고 1982년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던 유학생활은 막막하기만 했고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길을 걷다가 호숫가에서 당근을 깎아먹고 있는 남루한 차림의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된다. 청년은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 옆에 앉게 된다. 그리고 남자는 그런 청년에게 자신이 먹고 있던 썩은 당근을 건네준다. 그때 청년은 남자의 얼굴을 또렷이 보게 된다. 거지인줄로만 알았던 남자의 얼굴은 너무나 맑았고 눈빛은 빛났다. 그는 집 돈 여자 없이 부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고 있는 불교도였다. 청년은 그를 거지성자라 명명했고 이후 그와 함께 7년을 보내며 초기경전 니까야를 알게 되었고 청년의 삶은 또다른 전환점을 맞게 됐다.

“니까야는 부처님의 실제 행보를 기록한 경전이죠. 불교도인 페터노이야르를 통해 니까야를 알게 됐어요. 거지성자 페터는 이런 부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고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울컥 눈물이 나요. 그분을 통해 저는 부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빠알리성전협회 회장 전재성 박사(60)는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거지성자 페터노이야르와의 만남 그리고 니까야와의 인연을 이렇게 회고했다. 4월 16일 오전 홍제동에 위치한 전재성 박사의 연구실을 찾았다. 최근 그는 〈화엄경〉의 핵심사상이 담긴 산스크리트어 〈십지경〉을 번역해 세상에 내놓았다. **<17면 박스기사 참조>** 그리고 지금까지 〈쌍윳따니까야〉 〈맛지마니까야〉 〈앙굿따라니까야〉 〈디가니까야〉 등을 번역하며 우리나라에 초기불교를 알리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 경전을 번역하는 동안만은 번뇌가 사라진다고 말하는 전재성 박사. 그래서 그에게 있어 경전 번역은 하나의 명상이요 또다른 수행의 방편인듯 보였다.

전 박사는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출생했다. 부산 난민촌에서 자란 그는 4세 때 끓는 물에 화상을 입었고 육체의 상처는 그대로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 너무나 빨리 인생의 고통을 빨리 알아버린 소년 전재성은 불교에 의지하게 된다. 그렇게 중학교 시절에는 불교교리와 명상을 배우는 불교모임에 나가 종교와 철학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키에르케고르, 하이데거, 사르트르, 메를로 퐁티 등 실존철학과 서양철학 등에 심취해 많은 책을 읽었다. 또한 붓다의 가르침 중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기록으로 받아들여지는 월폴라 라훌라의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기도 했다.

이런 그가 서울대 농대에 입학한 이유는 농촌에 가서 한가롭게 살고 싶어서라고 한다. 하지만 유신독재라는 서슬퍼런 역사의 한가운데서 대학시절을 보내야 했던 그는 한가롭기는커녕 시대의 운명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힘겨운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된다. 대학에 입학한 전 박사는 서울대 농대 최초로 불교학생회를 조직했고 전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과도 인연을 맺어 대불련의 총무부장직을 맡게 된다. 이렇게 불교모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서 시국을 토론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유신독재에 항거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동승하게 된다.

“당시 만해사상을 주요 이념으로 삼았던 대불련은 나라의 위기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민중과 함께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죠. 이후 대불련 활동을 하게 되면서 총무부장에 이어 회장직을 맡기도 했는데 이때 ‘민중불교회’를 조직해 시국을 토론했어요. 야학 선생도 했어요. 학생들에게 불교를 설명하려고 하니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쉬운 말로 경전을 가르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아마 이런 생각이 나중에 니까야를 번역하게 되는 씨앗이 되지 않았을까 해요”

이렇게 민주화운동 집회에 자주 참가하게 되면서 그는 요주의 인물(?)로 몰리게 되고 1974년 서대문형무소에서 3개월간 수감된다. “당시 이런 집회에 참여한 것은 시대적 분위기 탓이 컸고 제 위치가 저를 그곳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유도 있었죠. 하지만 3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고 나서는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였는가를 절감하게 됐고 사회문제에 새롭게 눈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중불교운동론이라는 글을 쓰게 됐죠”

하지만 불교계 어디서도 그의 글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서야 소설가 황석영 씨의 도움을 얻어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발행하는 〈대화〉지에 ‘민중불교론’이 실리게 된다. 잡지는 나온지 1주일만에 폐간됐지만 이런 이유로 세상이 떠들썩해졌고 전 박사의 ‘민중불교론’은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 불교계의 반응 역시 컸다. 유신독재 항거하는 운동에 불교인들이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전 박사는 〈씨알의 소리〉 〈뿌리깊은 나무〉 등 진보 잡지에 글을 기고하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내면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당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온통 저를 지배했어요. 사회도 고립됐고 나도 고립됐다는 생각뿐이었죠. 시위만 나면 요주의 인물로 분류돼 사전구금을 당해야 했고 지병인 폐결핵으로 고통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취직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하천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나도 세상도 사라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입정 명상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됐습니다.”

대학시절 유신독재에 항거하며
〈민중불교론〉 집필로 세간의 주목
이후 구금 · 폐결핵 등으로 고난 겪어
독일에서 거지성자 페터노이야르 만나
초기경전 니까야로 삶의 전환점 맞아
1인 작업으로 꾸준히 번역 · 출판 매진

이즈음 전 박사는 요가난다의 〈오토바이오그라피〉라는 책을 읽고 인도철학의 신비주의에 빠졌고 동국대 대학원에 진학해 인도철학을 공부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당시 여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서양철학과 힌두교 등을 공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독일의 쾰른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된다. 하지만 그곳에서 거지 성자 페터노이야르를 만나 독일에서 번역된 초기경전 니까야를 알게 되면서 그의 운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나무 밑에서 잠자고 탁발하며 사는 그의 삶은 저한테 무척 큰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의 손에 이끌려 도서관을 따라갔더니 독일에는 이미 니까야가 다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척이나 경이로웠죠. 저는 당시 페터와 함께 자주 산책을 했는데 그는 중요한 구절을 한 획도 안 틀리고 암송을 해주었어요. 그의 니까야 암송을 들을 때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황홀감에 빠졌어요. 책에서 본 부처님 삶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의 삶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오는 느낌이라고 해야할까요? 그의 삶을 본받고 싶었고 또 부처님의 삶을 어떻게든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니까야 번역을 시작하게 됐죠”

89년도에 한국에 들어와 한 스님의 후원을 받아 번역을 시작했지만 여의치가 않았고 후원은 중단됐다. 이렇게 니까야 번역서 출간이 어렵게 되자 그는 한 대학에 교수직을 맡게 되면서 니까야 경전 출판은 미뤄



1987년 독일 본대학 기숙사 회관에서 올린 결혼식에서 거지성자 페터노이야르가 주례를 섰다.



전재성 박사는 … 1953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인도철학과 석 ·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독일 본 대학의 박사과정에서 인도학, 티베트학을 연구했다. 독일 본대학과 쾰른대의 동아시아 박물관 강사, 동국대 강사, 중앙승가대 교수, 충남대 강사 등을 역임했다. 불교 초기경전인 〈쌍윳따니까야〉〈맛지마니까야〉〈앙굿따라니까야〉〈디가니까야〉 등을 번역했으며 빠알리성전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진다. 이후 IMF 사태가 났고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서 그 역시 교수직을 잃게 되었고 다시 번역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후원은 받기 어려웠다. 이후 지인과 도법 스님 등의 도움을 얻어 1999년에 간신히 〈쌍윳따니까야〉를 발간하게 된다. 그때부터 전 박사는 판매된 책의 인세로 매년 2~3권의 니까야를 번역, 대중들에게 초기경전을 알려오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빠알리성전협회가 발간하는 이 책들은 전 박사 혼자서 번역 교정 출판을 담당하며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을 두고 작업을 한 적도 있지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제 혼자 하는 만큼 효율적이지 못했어요. 그렇게 작업을 하면 1년에 300페이지 정도밖에 번역이 안돼요. 저 혼자서 작업을 하면 1년에 900페이지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쇄비 정도만 충당을 해 제 혼자서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을 택하다 보니 실수가 생긴 경우도 있었죠. 〈숫다니파타〉를 출간할 당시 교정이 다 된 줄 알고 원고를 넘겨 2000부를 인쇄했는데 교정이 덜 된 원고를 넘겼더라고요. 전량 회수해 폐기처분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죠"

광부가 석탄을 캐는 것보다 힘든 작업이 경전 번역 작업이라고 말하는 전재성 박사. 하지만 그가 이렇게 경전을 번역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섬의 존재에 큰 위안과 위로를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통 불법을 등불에 비유하는데 원뜻은 섬이에요. 섬은 좌초될 위험이 있을 때 정박해 쉬어갈 수 있는 곳이죠. 결국 파도를 만나면 쉬어갈 수 있는 의지처를 제공해주는 곳이 바로 이 법의 섬이죠. 저는 니까야 경전을 통해서 대중들이 쉬어갈 수 있는 섬을 안내해주고자 합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도전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다. 지금까지 혼자서 작업한 결과물인 〈티베트어 한글사전〉〈빠알리어 사전〉의 개정판 출간, 〈자타카〉의 정확한 번역은 물론 불교기초학을 새롭게 정립해 보고 싶기도 하다. 또 제자 양성 역시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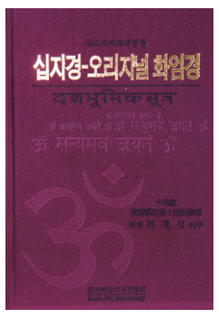
"예전에 제자를 키우기도 했어요. 그 친구가 스리랑카까지 가서 공부를 했지만 결국은 일할 곳이 없더라고요. 좀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제자 양성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출간한 책들을 놓아둘 창고가 없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둘 창고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외길을 걸으며 부처님 말씀을 번역해온 전재성 박사. 그 시간 동안 젊은 시절에 고민하고 번뇌했던 고통의 바다에서 완전히 벗어났냐는 질문에 그는 그때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여전히 또다른 고통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에게 불법이라는 섬이 있기에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대중들에게 그 섬을 안내하기 위해 오늘도 니까야 번역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학계, 이중번역 오류 바로 잡아야"

전재성 박사, 〈십지경〉 최근 번역 출간



초기불교 연구 권위자인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 전재성 박사가 〈화엄경〉의 핵심사상이 담긴 산스크리트어 〈십지경〉을 번역했다. 전재성 박사는 4월 15일 번역서 〈십지경-오리지널 화엄경〉을 펴낸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한역 경전에 기반한 이중번역으로 각종 번역상의 오역과 잘못된 단어 사용이 비일비재해 산스크리트 경전, 티벳 경전, 한문경전을 함께 비교해 화엄경 한글 번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십지경〉은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이 종합되어 있는 불교경전으로 화엄경의 핵심사상이 담겨 있다.

전 박사는 "이런 중요성으로 인해 1928년 용성 스님의 최초 한글번역과 이후 운허 스님의 한글번역 등이 진행됐지만 한문본을 한글화해 오류가 많은 상황"이라며 "이런 오류는 심각한 교리상의 곡해나 명상수행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박사가 지적한 대표적인 번역 오류부분은 〈십지경〉의 '발광지'(發光地)에 나오는 '사선정'(四禪定)에 대한 부분이다.

전 박사는 "초기 경전인 〈십지경〉에는 '심'(尋)과 '사'(伺)로 표현된 부분이 〈팔십화엄〉에는 '각'(覺)과 '관'(觀)으로 돼있다. 산스크리트 본으로는 '사유'와 '숙고' 의미지만 한문본을 번역한 용성 스님은 '깨침', '관찰'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전 박사가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깨침과 관찰이 멈춰진 뒤 내적 평온과 마음의 통일을 성취한다'는 '사유와 숙고가 멈춰진 뒤 내적 평온과 마음의 통일을 성취한다'로 그 의미가 크게 변한다.

전 박사는 "역경원을 설립한 운허 스님의 번역은 용성 스님의 구한말투의 번역을 현대어로 바꾼 것으로 전체적으로 용성 스님의 번역을 계승하고 있다"며 "동국역경원의 〈십지경〉 번역 또한 운허 스님의 번역을 개량했는데 중요요소인 '새김, 청정, 평정'에 해당하는 술어가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전 박사는 "한역 경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스크리트본, 티벳본 등 다양한 경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박사는 이번 〈십지경-오리지널 화엄경〉에서 십지를 깨달음 지평으로 해석하고 순 우리말로 번역했다.

전 박사는 936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인 〈십지경-오리지널 화엄경〉을 비교적 짧은 기간인 1년 동안 번역해냈다.

노덕현 기자

전법일기

죽음 준비케 하는 사진 한 컷

'영정사진'을 찍는 불자

한 불자가 있다. 사업가인 그는 바쁜 시간을 쪼개 우리절에서 '장수사진' 촬영 봉사를 한다. 처음엔 '영정사진'이라고 불렀는데, 몇몇 어르신들이 '영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하시면서 오래 살라는 뜻으로 이름을 장수사진으로 바꿔달라고 하셨다. 이름 바꾸는 데 법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니니까 냉큼 바꿔드렸다. 노인이 죽고 싶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더니 역시 옳은 말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영정사진을 찍지 않고 장수사진을 찍는다.

사진작가이기도 한 그는 네모난 소프트박스 조명과 가장자리가 자줏빛인 배경지를 우리절에 갖다 두고 그때그때 자신이 직접 설치하여 사진을 찍는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후래쉬가 천장을 향해 터지도록 하는데 2개의 조명도 동시에 터져 세 개의 조명으로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촬영하면 얼굴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 사진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마치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 같다.

처음엔 촬영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제한했었다. 그런데 몸이 좋지 않은 '젊은이'들도 찍게 되어 지금은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매번 어르신 공양에 참석하시는 단골손님들은 대다수가 찍었지만 지금도 찍지 않고 '버티는' 분들이 있다. 아직 정정하니 영정사진이 필요치 않다는 뜻이다. 그 배경에는 오래 살고 싶다는 염원이 깔려 있을 것이다.

영정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자손들이 오래토록 볼 사진 아닌가. 그런 사진을 찍는데 아무렇게나 찍을 순 없을 터, 약속이나 한 듯이 할아버지들은 양복을 입고 오시고 할머니들은 한복을 싸오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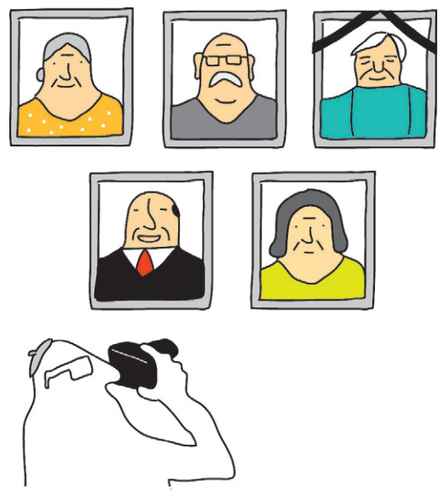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사진작가의 영정사진 봉사 모두가 기억할 '선행'

이날은 미용사도 봉사하러 온다. 어떤 할머니는 즉석에서 파마까지 한다. 미용사 보살이 머리카락을 롯드로 말고 비닐캡까지 씌워드리면 할머니들은 얌전하게 한쪽에 앉아 머리가 되기를 기다린다.

미용사 보살은 화장품도 여러 가지 갖고 와서 할머니들 얼굴을 꾸민다. 할머니들은 뽀얀 얼굴에 발그레한 볼, 빨간 입술, 짙은 눈썹으로 변신하고 수줍은 웃음을 가득 머금고 나타난다. 여자의 변신이 무죄라 했던가? 그렇다면 우리 할머니들도 무죄다.

4~5년 영정사진을 찍었더니 요즘은 소문이 퍼져 멀리 사시는 노인들도 사진을 찍기 위해 일부러 오신다. 처음엔 매월 사진을 찍었었다. 몇 년을 그렇게 찍었더니 찍을 만한 분들을 다 찍고 이젠 대상자가 많지 않아 석 달에 한 번으로 횟수를 줄였다가 올해부터는 신청이 들어오면 모아서 찍는다.

사진작가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직접 포토샵으로 손질한 후 디지털 사진인화 전문 업체에서 인화하고 액자까지 만들어 어르신들께 공양한다. 어르신들은 아주 좋아한다. 지금까지 액자를 가져간 분이 700~800분은 족히 될 것인데 그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다. 우리절이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데 있어서 그의 영정사진은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어떤 이는 온갖 영화를 누리다가 세상을 떠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을 고생을 하다가 떠난다. 어떤 이는 건강하게 오래 살지만 어떤 사람은 요절한다.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이건 참 평등하고 공평하다.

영정사진은 모든 죽음을 기억하게 한다. 많은 어르신들의 자녀는 영정사진을 보며 부모 생각에 잠길 것이다. 사진작가의 이름은 신상용, 세월이 흘러 그의 이름은 잊혀져도 그의 선행은 새겨질 것이다, 진여의 세계에.



한북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오색공단등 /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大) (小)

(인등용 LED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美 캠퍼스, 불교강좌 학생들에 '인기몰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미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강의되고 실천되며 백안의 대학생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반야의 지혜를 심어주고 있다.

버몬트대학에서는 불교생태학 교수의 특별강좌가 재학생들의 '인기 몰이'를 하고 있고, 텍사스주립대학에서는 캠퍼스 동호회 '다이아몬드 웨이(Diamond Way)'의 주간강좌가 재학생들 사이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주리안(Misourian) 지는 17일 스테파니 카자(Stephanie Kaza, 버몬트대학 종교학) 교수의 '선불교로 보는 환경문제와 그 대안'을 주제로 한 특별강좌를 소개하고, "대학생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 환경에 대한 책임 의식을 스스로 일깨우고 실천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버몬트대학의 특별강좌 시리즈에 편성·진행되고 있는 카자 교수의 특강은 다니엘 코헨(Daniel Cohen, 종교학) 교수를 비롯한 동료 교수들과 재학생들이 그의 강좌를 개설해 줄 것을 대학 측에 적극 요구해, 마련될 수 있었다.

카자 교수는 1990년대부터 버몬트 주를 중심으로 '불교와 생태'라는 주제로 지역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2010년 말 '욕망과 소비에 대하여(About Desire and Consumption)'를 주제로 지역에서 불교환경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의 근작 〈Hooked! Buddhist Writings on Greed, Desire, and the Urge to Consume〉은 '서구 사회에 소개된 놀랍고 새로운 불교적 소비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스테디셀러의 반열에 올랐다.



텍사스주립대학의 불교동호회 '다이아몬드 웨이'도 주간강좌를 마련, 재학생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안내하며, 주목받고 있다.



스테파니 카자 미국 버몬트대 종교학 교수.

불교적 사유 … 재학생 호응 이끌어
버몬트대에서 '불교생태' …텍사스주립대에서 '마음 탐구'

미주리안 지는 카자 교수의 강의를 인용,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가르쳤다"고 전제하고, "지금의 환경문제는 그 관계가 헐거워지고, 심지어 주변 모두를 단지 대상(object)으로만 인식한 데서 출발했다"고 지적하고 "카자 교수가 강조한 마음챙김(mindfulness)이야 말로 일상과 주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의 실타래를 푸는 가장 좋은 방편"이라며 보도했다.

"카자 교수는 연민, 자비 등의 사유와 실천에서 환경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고 설명한 코헨 교수는 "그의 불교적 사유는 관련 학계에서 환경문제 해결의 연구 모델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텍사스주립대학의 불교동호회 '다이아몬드 웨이'도 주간강좌를 마련, 재학생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안내하며, 주목받고 있다.

유니버시티 스타(University Star) 지는 10일 '다이아몬드 웨이'의 세르지로 아얄라(Sergio Ayala, 인류학 박사) 회장의 '마음 탐구(Expore Our Mind)' 주간강좌를 보도하고, "직관적인 질문을 통해 자신을 통찰해 가는 여정을 안내하는 이번 강좌가 재학생들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호회 회원의 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아얄라 회장은 "그러나 동호회의 가치를 나눌 수만 있다면, 회원 수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질 못할 것"이라며 "불교는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근원 알게 하고, 더불어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좌의 특강을 설명했다.

대학 내 LBJ 학생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시작되는 이 강좌에는 매주 70여명의 재학생들이 동참하고 있다.

"대학 웹 사이트에서 동호회 강좌를 처음 알았다"는 크리스 롭톤(Chris Lofton, 보육학)은 "내면의 힘과 그 힘의 연관성을 분명히 알게 하는 아얄라의 강의는, '캠퍼스 생활백서'라고 할만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호주 시드니대, 달라이 라마 초청 취소

"중국경제 의존도 높은 호주 눈치보는 중"

오는 6월 호주 방문 예정이었던 달라이 라마(78)가 호주 시드니대학으로부터 초청을 취소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호주 시드니대학이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4월 19일(현지시각) "시드니 대학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오는 6월 예정된 달라이 라마 초청계획을 취소했다"고 티베트 활동가와 호주 입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시드니대학이 새로 세운 민주주의 및 인권 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BBC 중문판도 호주 방송을 인용, "시드니대학의 결정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드니대학 본부측은 이번 행사를 추진한 사람들에게 학교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으며, 언론 취재를 불허하고 티베트 활동가들의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호주와 중국은 매년 정기적으로 총리회담을 갖고 외교전략대화와 전략경제대화를 개최키로 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급진전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호주 무역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위안화와 호주달러화의 직거래를 통한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와 투자 및 교역 확대 가속화 등을 논의 했다. 중국과 호주가 급속히 접근하는 것은 무엇보다 호주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호주가 '서방세계' 중 가장 중국과 가까운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달라이 라마를 분리주의자로 비난하면서 그를 초청하려는 각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사라 한슨 영 호주 상원의원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현재 티베트의 상황에 대해 개방적이고 솔직한 토론을 해야 한다"면서 "달라이 라마가 대학

시드니대, 티베트 활동가 진입 불허 中, "호주, 서방세계서 가장 가까워"

간부와 학생들에게 연설하는 것을 금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하는 한 운동가도 "시드니대학이 학문적 자유를 두고 타협을 했다. 티베트인들에게는 실망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시드니대학은 호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랜 대학이며 세계 50위안에 드는 대학이다.

앞서 2011년에 달라이 라마가 호주를 방문했을 때도 길라드 총리는 그와의 면담을 거부해 지나치게 중국을 의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역대 호주 총리들은 달라이 라마가 호주를 찾았을 때 비공식적으로 만났기 때문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활짝 웃는 달라이 라마의 초상화' "달라이 라마의 웃음에는 '사랑의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저는 오일 페인트라는 소재로 성하의 숭고한 정신을 유머라는 캡슐 속에 담고자 했습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초상화가 영국 올더숏(Aldershot) 지역 티베트불교계 발전에 힘을 더했다. 초상화가 리사 앤드루스(Lisa Andrews, 英)의 작품 'Dalai Lama LS(유화, 40×40㎝, 2007년)'가 9일 올더숏 불교공동체센터(Buddhist Community Center) 자선만찬에서 6,200파운드(약 1억3백만원)에 낙찰됐다.

차임 린포체(Chime Rinpoche)는 "성하께서 2012년 6월 올더숏의 EBB 스타디움을 방문할 당시 서명한 친필 사인이 담겨 있는 초상화라는 점이 경매가를 높인 것 같다"며 "작가의 희망에 따라 낙찰금 전액 올더숏의 불교공동체센터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임 린포체는 1973년 영국에서 처음 티베트불교센터를 건립·운영한 스님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유럽서 가장 큰 사찰 세워

中, 이탈리아 로마에 후아이시 사찰 창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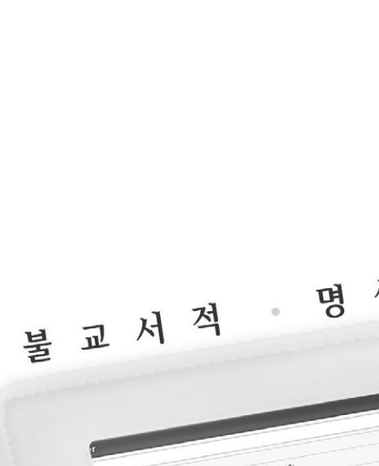
유럽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이 이탈리아 로마에 세워졌다.

후아이시(Hua Yi Si)사찰은 로마 중심지에서 동쪽으로 6마일 정도 떨어진 외곽도시 또르뜨레 떼스떼(Tor tre teste)에 건립됐다.

이탈리아 중국커뮤니티의 재정적 지원으로 건립된 후아이시 사찰은 3월 31일 지안니 알레마노(Gianni Alemanno) 로마 시장과 중국 화교 및 티베트 승려 등 사부대중 수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

알레마노 시장은 "로마에는 이미 유럽에서 가장 큰 모스크(mosque)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바로 유럽에서 가장 큰 불교사원"이라고 말했다.

로마에는 약 5000~7000명의 중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중국 절강성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탈리아 로마에 건립된 후아이시 사찰

한편 유럽에서 중국 최초의 불교 사원으로는 이탈리아 에스퀼리노(Esquilino) 언덕에 있는 빅토리오 광장 (Piazza Vittorio)에 2005년 세워진 것이 있다.

이나은 기자

20대 티베트여성 또 분신



지난 12월 유엔 본부 앞에서 티베트 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자료사진)

20대 티베트 여성이 중국 서부 쓰촨성에서 4월 16일 중국의 억압통치에 항의하며 분신자살했다.

목격자들은 이 여성이 스스로 몸에 불을 지른 뒤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전했다.

미국의소리(voice of america)는 "줏소(Jugtso)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올해 20살로, 세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며 "그녀의 사체는 인근 수도원으로 옮겨졌다"고 보도했다.

수백 명의 지역 주민들이 장례를 위해 여성의 집 주변에 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지난 달에도 네 아이의 엄마가 분신해 숨진 바 있다. 이나은 기자

초절전형 슈퍼에너텍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대환영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 · 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 5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3,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얼굴"만 보면 압니다!
한번의 인연으로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불교TV출연 정담스님>

이제 기도의 기적이 일어난다!



· 대한불교 조계종 백양사 출가
· 서울 중앙 승가대학원 졸업
· 현 대한불교 종단 총무원장
· 주요저서 : 기도의 비밀, 불교척척박사, 바늘끝에도 남이 있다

전국 시 · 군 · 면 100회 강연!
〈현 불교TV 출연 중〉

- **이곳저곳 가서 점을 봐도 신통치 않아 답답하신 분**
- **이름이 나빠서 성공 못하신 분**
- 개인사업을 하시거나 구상주이신 분
- 건강이 나쁘신 분
- 조상천도재로 고민하시는 분
- 결혼문제로 고민이신 분
- 가정사 어려운점, 말못하는 사연
- 취업이 잘되지 않으시는 분
- 승진, 이직을 원하시는 분
- 학업문제가 고민이신 분
- 삼재에 들어있는 분
- 이사, 부동산(매매) 잘 안풀리시는 분

찾아 오시는 길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산 171번지

백련사 전화 031)673-1087

다음 카페 | 카페검색 | 치우천왕 힐링캠프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스님은 마음의 병은 첫째, 지난 살아온 과정에서 잠재되어 오고 둘째, 전생으로부터 잠재되어 오고 셋째, 빙의되어 온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빙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최면을 통해 퇴마했던 그 과정을 이번 책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 전국 유명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 있습니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룡정사

역학 · 빙의 퇴마 (개인지도, 직접 상담)

* 상 담 : 1. 사주상담, 궁합, 택일, 신생아 이름, 개명, 부부문제
2. 최면심리상담, 우울, 불안, 공포증, 빙의 퇴마, 환청
3. 무속인 상담, 말문이 안터지는 분, 허주, 법당정리
* 개인지도 : 역학(기문둔갑), 성명학, 최면요법과 빙의 퇴마
*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비룡정사 서울 포교당 제행스님
011-772-4606 / 02-588-4606

틱낫한 스님이 추천한 어린이 '화'
화가 났어요

추천도서 선정
행복한 아침독서
경기도 사서협의회
학교도서관저널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을 전하는
틱낫한 스님이 추천한 동화책

우리 아이 인성 교육 시리즈

이 책은 화가 우리의 한 부분이며
고요하게 마음을 챙기며 앉아 있기와 호흡하기를 통해서
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불쾌한 상황을 즐겁게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어른과 어린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 틱낫한 스님





어린이가 스스로 화를 다스려
평온한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는 동화
우리 시대 주목받는 젊은 서정 시인
문태준의 따뜻한 시선과
맑은 언어로 옮긴 글

•게일 실버 글
•크리스틴 크뢰머 그림
•문태준 옮김
•양장본
•값 9,000원

어린이를 위한 화해와 우정 이야기
천천히 걷다 보면

추천도서 선정
행복한 아침독서
경기도 사서협의회
서울시 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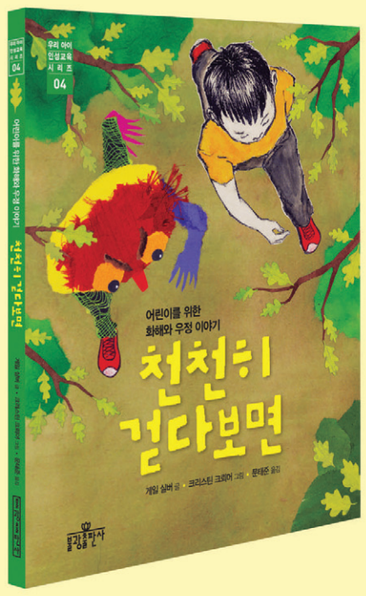
걷기 명상을 통해 마술처럼
평화롭게 화를 풀고 우정을 지키는
화해와 우정의 이야기

우리 아이 인성 교육 시리즈

『화가 났어요』의 주인공 얀과
붉은 털투성이 '화'가 다시 전해 주는 평화의 메시지.
호흡에 맞춰 천천히 걷는 걷기 명상으로 감정을 다스려
분노를 평화로, 다툼을 우정으로 변화시키는 이야기.

다양한 재료가 뒤섞인 콜라주와
감정 변화를 반영한 화려한 색채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그림





•게일 실버 글
•크리스틴 크뢰머 그림
•문태준 옮김
•양장본
•값 9,800원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 / bulkwang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3×6사군자 (7.4ϕ×14.5cm)

3×6식물성사군자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ϕ×29cm)


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ϕ×29cm)


한봉밀납양초 – 4호 / 3호 / 2호 / 1호 / 밀대전사자 / 돈타레전사자 / 원기둥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 / 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 / 약쑥1호예술연꽃양초 / 야광 연꽃초

100% 핸드메이드 자수방석

사이즈 및 소재 맞춤으로 작업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상품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수공에 전화상담 : H/P 010-3766-0242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투병중인 노교수의 자택 전시

목정배 교수 '우리 동네 소풍가요', 5월 3일~5일

혈액암으로 투병중인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가 '우리 동네 소풍가요'라는 제목으로 5월 3일~5일까지 자택전시회를 연다. 목 교수는 지난 10월 발병 이후 7개월 동안 병원에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도 몸이 허락하는 동안에 작업한 작품 120점을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미천 목정배 교수는 "병원에 있으면서 몸이 나은 듯하면 그림이나 얼굴을 그렸다. 20~30명이 병문안을 왔는데 이제 나아서 걸어다닐 수 있으니 병문안 온 분들을 초대해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마당에 꽃이 지기 전에 손님들을 초대하고 싶어 5월 초로 전시 날짜를 정했다는 목 교수는 "오시는 분들이 차도 마시고 김밥과 다과도 드시며 그림을 보고 가면 좋겠다"고 말한다.

평소에도 지인들에게 반야심경 글씨를 써서 나눠주곤 했다는 목 교수. 이번에는 감인대(堪認待)라는 글씨를 통해 기다리면 희망이 오고 성공이 온다는 긍정의 메시지도 전해줄 예정이다.

병마의 큰 고비를 넘기고 얼마전 아들과 홍련암 등으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온 목정배 교수. 병중에서도 희망을 찾는 그의 의지를 만나고 싶다면 서울 성북구 종암동 33-71번지 미천 자택으로 들러보자.



목정배 교수의 '자화상'

전시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다. (02)2254-1671 **정혜숙 기자**

끈처럼 이어진 인생사 無로 표현

백동열 화백 개인전 5월 12일까지

백동열 화백의 개인전이 5월 12일까지 서울 정헌갤러리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40여년 작품활동의 결정체인 서예, 문인화, 수묵화, 아크릴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50점을 선보인다.

한학자이자 서예가이며 문인화가인 부친 옆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작가는 먹을 갈면서 자연스럽게 서예와 문인화를 체득하게 됐다. 이번 전시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무(無)시리즈는 암 수술후 인생관과 가치관의 변화를 거치면서 탄생시킨 작품이다.

백 작가는 "자체(字體)가 서로 다른 수많은 없을 무(無)자를 연결시켜 만든 작품이다. 다양한 인간사 즉 수없이 얽혀 있는 인간세계를 표상화한 것으로 불가에서 말하는 인드라망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인생사는 각각 무관해 보여도 끈처럼 이어져 있어 모두가 소중하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먼지처럼 재가 되니 개개인의 소중함을 알고 과욕을 버려 좋은 인연을 유지하자는 작가의 뜻이 담겨 있다.



백동연 화백의 '無2'

작가는 "무자 144자가 들어간 재가 되어 사라지는 의미를 담은 검정색, 흙이 되어 사라지는 황토색 등으로 작품을 표현했다. 글자 사이의 검은 색은 희노애락(喜怒哀樂)과 같은 다양한 인생사를 상징하는데 결국은 무(無)는 소멸(消滅)이라는 등식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다.

한편, 백동열 화백은 백 화백은 (사)날마다좋은날의 행복바라미 거리모금 캠페인의 캐릭터 '바라미'를 디자인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또한 반갑다연우야 산하의 재능기부 봉사단체인 사랑재를 결성, 초대단장을 맡아 후원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경허 · 만공스님을 기리며

20세기 한국불교의 샛별
불세존 쌍림에서 열반 보이시고
천년 천년 또 천년 시공을 넘어
해동국에 한 줄기 광명 비추시니
법등 밝힌 용암 경허 만공대선사
불 혜명을 이어 선풍을 드날리어
배달의 땅에 우담바라 만발했네

경허선사 가신 지 100년
경허선사 가신 지 어언 백여 년
덧없는 세월 강물처럼 흘렀건만
서릿발 같은 선지와 오묘한 도리
새벽녘의 샛별처럼 사바 비추니
후학들 가슴에 천둥으로 울리네
어이 잊으랴 선지식의 높으신 덕

만공선사를 기리며
나라 잃은 사바에 빛으로 오시어
법등을 잇고 불법 전통 지키시고
형형한 법등으로 후학을 이끄시니
오늘도 그 선풍 시방에 두루하네
선사의 크신 서원을 마음에 새겨
만공탑을 우러러 선덕을 기리네

대한국 사해의 등불되리
반만년 배달의 땅 동방의 빛
면면히 이어온 선가의 전통
성성한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마음 속 불성이 눈을 뜨는 날
해동국 대한이 불국토 되어
장차는 사해의 빛이 되리라

"선지식 가르침 四海의 빛이 되리라"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기념곡 16일 수덕사서 공연

경허선사 열반 101주년을 맞아 탄생한 '경허 · 만공 스님을 기리며'의 가사 전문이다. 총 4절로 구성된 이곡은 반영규 작사·박범훈 작곡으로 4월 16일 수덕사에서 열린 '경허선사 선양음악회'에서 초연됐다. 도신 스님과 김성녀 그리고 조계사 합창단이 함께한 이 무대는 경허 · 만공 스님의 뜻을 기리는 자리가 되었다.

이 곡을 작곡한 찬불 작사가 반영규 선생은 한국 선의 법맥을 이은 경허 스님과 일제의 강점기에 맞선 만공 스님의 업적을 기리며 작사에 몰입했다고 전한다.

"선이 전래된 신라의 구산문(九山門) 이후 고려의 불일 보조국사의 정혜결사의 선맥을 이어 조선 서산대사가 그 맥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세의 대선사 경허 스님이 우리의 선 그 법맥을 이었죠. 또한 경허 스님의 제자인 만공 스님은 일제의 강점에 맞서 우리의 전통을 지켜, 21세기 한국 선풍이 온 세계에 풍미할 것을 확신하고 또 기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작곡가 박범훈 선생은 열반 100주년을 맞은 1년전 기념음악회를 의뢰 받으며 작곡도 부탁받았다고 한다. "우리 불교의 큰 업적을 남기신 스님들의 업적을 노래로 만

경허 · 만공스님을 기리며
반영규 작시 · 박범훈 작곡
세계에 한국 禪 알리고자

들 수 있어 무척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영규 선생님께서 너무나 좋은 작시를 해주셔서 곡을 붙이는데 큰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합창곡과 독창을 어우러지게 작곡한 이 곡은 추모곡이지만 너무 무겁지도 슬프지도 않게 경쾌하게 찬탄할 수 있는 찬불가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경허 · 만공 스님을 기리는 추모곡이 탄생했다. 도신 스님, 김성녀, 조계사 합창단이 수덕사에서 초연을 펼쳤다.

한편, 수덕사에서 개최된 이번 음악회는 경허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만공 스님의 탄신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음악회는 前중앙대학교 총장 박범훈 씨가 총지휘했으며 장사익, 김덕수 사물놀이패, 김성녀, 김영임, 도신 스님, 박애리와 팝핀현준, 아웃사이더 등이 출연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경 · 불화 아시아고판화 서울 나들이

5월 5일까지 템플스테이홍보관서 전시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이 서울 나들이 특별전을 개최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하고 고판화박물관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5월5일까지 템플스테이홍보관에서 열린다.

전시에서는 고려시대 법화경 '변상도'를 비롯해 중국, 일본, 티베트, 몽골, 네팔, 미얀마, 태국 등의 목판 원판과 불경 · 불화 판화 50여 점을 선별해 전시한다.

고판화박물관 관장 선학 스님은 "왕족이나 귀족들에 의해 만들어졌던 고려불화나 사찰의 장엄용으로 만들어진 불화다. 하지만 민중들이 생활 속에서 부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빌기 위해 족자 형태의 예배용 판화불화를 만날 수 있다. 나라별로 다양한 양식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한국의 △고려법화경 △법화경 변상도 △조선초 불정심다라니경 △중국 절강성박물관 남송본 불설아미타경 △불정심다라니경 △불설아미타경 △금강산사대찰전도 △천수신묘장구대다라니경 등이 있다.

중국 유물로는 △불정심다라니경 △아미타래영도(목판) △대세지보살목판 △양지간음 등이 있으며, 일본은 △융통염불연기 △오백나한도 △태장계만다라 △아미타경변상 등이 있다. 이밖에도 미얀마 태국의 불경 작품, 티베트와 몽골의 백산개대다라니경과 채색석가모니불 불화 등이 전시된다.

한편, 이번 전시와 더불어 템플스테이 홍보관 앞에서 매주 금 · 토 · 일 3주에 걸쳐 무료로 전통인쇄문화체험도 진행된다.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은 5월 5일까지 템플스테이 홍보관서 특별전을 개최한다.

선학 스님은 "전시관람은 물론 체험활동으로 아시아의 자랑스런 인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또한 템플스테이 10주년을 기념하고 이를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생각-
그 이상의 한약향기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에서 향이 좋은 생약을 엄선하여 제조한
한방방향제로 생활공간에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천연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성분의 방향제와는 달리 심신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거실, 장롱 등
*행사, 선물용 대량 구매시 상담해 주세요



고요한 향기 퍼져~
고요해 지는 마음

제조원 수풀림 주문전화 (062)385-9954 010-5607-3313 입금계좌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건강한 자연을 담은 웰빙문화의 시작
히노끼 편백차탁



출시기념 할인행사 ~~150,000원~~ 40% → 90,000원

편백차탁 Healing
- 일본산 히노끼로 **100% 국내 제작**입니다.
- 전통가구 소목장이 **수공예로 제작**하여 정교하고 튼튼합니다.
- 편백(히노끼) 고유의 향은 **스트레스 완화, 심신안정의 효과가 탁월**합니다.
- **피톤치드의 항균효과**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들의 다과, 음료 등의 차탁으로 사용하시면 **건강까지 생각할 수 있어 더 좋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기술이전업체
수풀림숯침대(주) www.supullimbed.co.kr

친절상담 · 주문전화 ▶ 080-474-0011

세계적인 찬불가 만들고자



비뮤티는 봉축을 앞두고 '부처님 오신 날' 앨범을 발매했다.

무장르 보컬리스트 비뮤티

"불교음악계에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만든 음반입니다. 또한, 비불자들도 감동 받을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을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무장르 보컬리스트 비뮤티(vimutti)가 'Buddhist Pop & Mind Healing Pop' 앨범 '부처님 오신 날' 을 발표했다. 당신은 나의 부처님, 미소, 부처님오신날 등 이번 앨범에는 대중음악계의 유명 작·편곡자는 물론 기타리스트 함춘호, Tommy Kim,

수행으로 음악적 영감 얻어

Mind Healing Pop 전하고자

체코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페라 주역 가수들과 엔지니어 등이 참여했다.

비뮤티는 "불교음악은 불교 안에서만 머물러 불자들에게 친근감이나 감동을 주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산사음악회에서 대중들을 만족시키고 감동을 주는 노래가 마땅히 없다는 것도 안타까웠다"며 "불자 비불자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국내 최고의 제작진들을 섭외해 음반을 제작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비뮤티는 연세대 성악과와 미국 뉴욕 맨하탄 음대를 거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성악을 전공했지만 다양한 음악을 섭렵한 그는 2010년 12월 '클래식컬 팝' 앨범 'Rest' 를 발매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비뮤티의 장르를 아우르는 이런 음악활동에는 불교가 있었다. 금강경 독송 108배 등으로 수행을 놓치지 않는 그는 비뮤티(vimutti, 본명 홍범석)라는 예명 역시 해탈이라는 의미로 법명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만큼 그의 음악세계에 불교가 미친 영향은 크다.

"절수행을 하다보면 저절로 단전호흡이 돼서 발성이 두 배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음악 작업을 할 때 집중도 몰입 혹은 영감이라는 측면에서 수행은 도움을 주죠. 1주일 동안 써야 될 곡이 생각나지 않다가도 10분만에 곡을 써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만큼 수행은 제 몸과 마음에 모두 영향을 미쳐 아티스트로서 최상의 효과를 나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불교 수행을 통해 아티스트로서 큰 도움을 얻었기에 이를 대중에게 회향하고자 했다. "불교도 기독교처럼 대중을 아우를 수 있는 음악이 있다면 좋은 포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번에 부제로 붙인 'Buddhist Pop 그리고 Mind Healing Pop' 역시 대중들에게 새로운 불교음악을 보여주고자 하는 발원이 담겼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앞으로 불자 비불자를 떠나 전세계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굳건히 믿습니다. 이런 제 믿음과 함께 저의 음악이 크리스마스 캐롤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흥얼거릴 수 있는 대중적인 불교음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시각장애인 "백제향로 촉각체험해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상설전시관 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이 전시관에는 전시품 모형 촉각 체험, 간편한 조작으로 자율적인 전시품 해설 청취, 점자해설 읽기 등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시각장애인들은 △주먹도끼(구석기) △돌칼 요령식 동검(청동기·고조선) 쇠투겁창(부여·삼한) △백제금동대향로(백제) 고종황제·명성황후 옥보(조선) 등 시대별 유물들을 시청각화해 체험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시각장애인에게 우리 문화재에 대한 전시공간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상시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마련됐다"며 취지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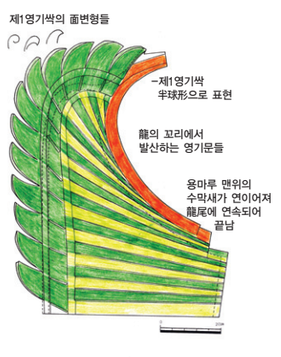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치미→용미 ㊦

용의 형상 강력한 '영기화생'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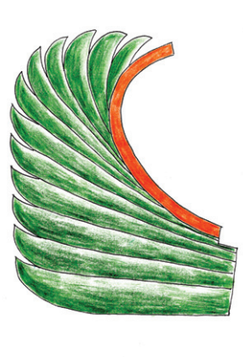
건축에서는 모든 부재를 용화(龍化)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대들보나 다른 모든 부재들에 항상 용을 그리지만, 실제로 대들보나 기둥들은 전주 송광사 대웅전이나 개심사 법당들에서처럼 구불구불한 소나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가끔 있다. 학자들은 그런 구불구불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인은 자연스러움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그것은 큰 오해이다. 몇 개의 예로 한국미술 전체를 민예적(民藝的) 성격으로 규정하는 큰 오류를 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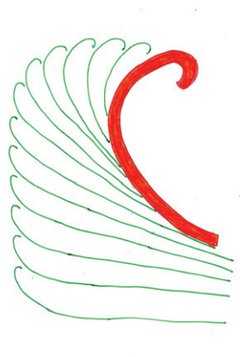
그림①



그림②



그림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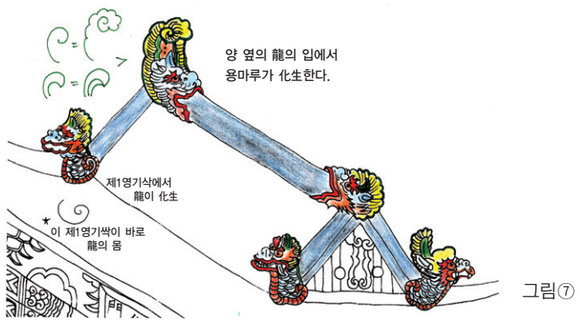
그림④



그림⑤



그림⑥



그림⑦

건물 부재들 대부분 용으로 표현

치미를 계속 살펴보기로 한다. 지붕 맨 위의 아름다운 곡선을 이룬 부분을 '용마루' 라 부른다. 그러나 기와로 잇기 때문에 용으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증거가 있다. 모든 용마루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용마루 중앙에 보주를 세워 놓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두 용이 가운데 보주를 두고 마주보는 도상을 모든 장르에서 많이 보아왔는데 바로 그것을 용마루에 형상화한 것이다. 이미 고려불화에서 보았다.

그러면 가장 시대가 앞선 백제의 용미를 살펴보고, 조선시대의 불화를, 그리고 중국 것과도 비교해 보면서 참으로 용미인가 확인해 보자. 부여 부소산 왕궁 터에서 아름다운 용미가 출토되었다. 물론 지금까지 치미라 부르고 있다.(그림①) 그 형태를 채색분석해 보면, 빨간 색으로 칠한 탄력 있는 입체적 제1영기싹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용마루와 이 제1영기싹으로 부터 강력한 영기가 발산하는데(그림②), 그 끝마다의 동물의 이빨 같은 형태들이 모두 제1영기싹의 변형들이다. 이 전체의 의도를 살려 다시 그려서 채색분석했다.(그림③) 다시 그것을 추상화했다.(그림④) 이것이 용의 실체임을 차차 알 것이다. '날개가 아니고 용으로부터 발산하는 영기문' 이다.

수락산 흥국사에 있는, 석가모니 일대기를 표현한 18세기 팔상탱(八相幀)에는 많은 건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건물들의 지붕에는 역시 용의 모습이 많다. 용의 입에서 용마루가 생기는데 용의 몸이 길면 이상하므로 짧게 축약하여 표현한다.(그림⑤, 그림⑥) 용은 원래 일정한 모습이 없는 것이므로 변형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서 예술표현에 매우 적합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위대한 존재일수록 변형이 자유자재하다. 그 조형을 채색분석해 보았다.(그림⑦) 점점 부소산 출토 용미의 조형에 가까워지고 있다.

숭례문의 복원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복원을 한다고 해도 500년 풍우를 헤쳐 온 강인한 정신은 영원히 복원이 불가능하리라! 숭례문 지붕 용마루 양쪽에 있는 것은 용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고 눈썹 부분에서는 불꽃 모양의 영기문이 나오고, 온몸을 제1영기싹을 더 전개하여 제2영기싹으로 표현했다.(그림⑧) 용을 이렇게 압축하여 표현했다. 용의 입에서 숭례문이 화생하는 것이다.



그림⑧



그림⑨



그림⑩

백제와 중국 용마루 꼬리에서 용 화생

중국의 예를 보자. 송(宋)대의 송화서학도(宋畵瑞鶴圖)에서는 용을 학으로 보았다. 그 꼬리를 날개로 본 모양이다. 그러나 틀림없는 용이며 용의 입에서 용마루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꼬리가 부소산 출토 백제 용미와 가깝다.(그림⑨) 그런데 역시 9세기 요(遼)나라의 독락당산문(獨樂寺山門)의 솔개꼬리를 보면 틀림없이 긴 용 전체를 압축하여 표현했다. 머리에서 길게 뻗어 올라간 빨간 색의 제1영기싹은 분명히 백제 용꼬리와 가깝지 않은가! 그리고 몸에서 생기는 녹색의 갈기 같은 것도 용과 제1영기싹에서 발산하는 영기이다.(그림⑩)

이렇게 단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백제의 용미는 후대의 조선시대와 중국의 송과 요 나라의 예에서 정답을 얻은 셈이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치미(솔개꼬리)로, 중국은 치문(鴟吻 역시 솔개꼬리)으로 각각 부르고 있다. 이제 건축에서 용마루와 용미(실은 용의 축약)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영기화생론' 에 의해, 용의 꼬리에서 용이 화생한다는 진리를 깨달으려면 또한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인가.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3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개정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고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셨음을 증언한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춘천본사 T.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읽어야 할 영산불교 현지사의 양서
영혼체 윤회론 [158쪽 10,000원] 2천년간의 무아와 윤회주체의 모순을 해결하다
관음태교 [227쪽 10,000원] 영혼체 태교법인 관음태교의 이론과 실제
추천도서
영산불교 새천수경 [131쪽 7,000원] 천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음신앙을 바로 정립한 역작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재 [33쪽 무료배포] 현지사 천도재 안내

금강경, 좀더 쉽게…저자별 〈금강경오가해설의〉

금강경오가해설의 여섯 권

원순 역해 | 법공양 펴냄



"산은 산이요. 불은 물이로다." 1981년 해인사 성철 스님께서 조계종 종정으로 취임하면서 내린 법어다. 법어는 종교를 떠나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된 문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조계종 전통강원에서 수백 년 동안 배우고 있는 〈금강경오가해설의(金剛經五家解說誼)〉에도 나와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책은 1417년 조선시대 무학대사의 상수제자 함허득통 스님의 〈금강경오가해설의〉를 책 속의 저자별로 나누어 펴낸 것이다.

〈금강경오가해설의〉는 '금강경 뜻풀이 책' 가운데 역사적으로 검증된 중국 스님 규봉종밀 · 육조혜능 · 부대사 · 야부도천 · 예장종경의 해설을 묶어놓은 〈금강경오가해〉를 풀이하면서 함허 스님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것이다. 〈금강경오해〉는 개성이 다른 다섯 분의 주석을 누가 언제 무슨 의도로 골라 편집했는지는 알 수 없다. 책은 함허 스님을 추가해 여섯 분의 '금강경 뜻풀이'다.

〈금강경〉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줄인 이름으로, 대승불교의 교리 및 기본 사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전이다. 4처(處) 16회(會)에 걸쳐 설한 반야부 600권 중 제2처(사위국 기원정사) 제9회 제547권에 해당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서 수보리 등을 위하여 처음에 객관적 경계가 공(空)함을 설하고, 혜(慧)도 또한 공함을 보이며, 보살의 6바라밀도 모두 공함을 밝히고 있다. 반복이 많고 간결한 문장은 집중적이면서 오묘한 뜻을 담고 있는데, 보는 견해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는 이의 근기에 맞추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경전이 중국에서 번역된 뒤로 나름대로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선종과 교종에서 출가자와 재가자의 구분을 떠나 수많은 선지식들이 뜻풀



익산왕금리 5층석탑에서 발견된 순금금강경판

이를 했고, 그 결과 오늘날 수많은 '금강경 뜻풀이 책'들이 전해진다. 육조혜능 스님 당시만 해도 800여종이 넘었다고 한다. 그 뒤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금강경 뜻풀이 책들이 나오고 있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역자는 2009년 〈조계종 표준 금강경〉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책을 보고, 표준이 되는 〈금강경〉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그 뜻을 이해하며 읽을 수 있는 '우리말 금강경'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2010년 5월 〈우리말금강반야바라밀경〉을 엮어냈는데, 이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금강경 뜻풀이 책'이라고 하겠다.

책은 규봉의 '찬요(纂要)', 육조의 '해의(解義)', 부대사의 '찬(讚)', 야부의 '송(頌)', 종경의 '제강(提綱)' 순으로 되어 있고, 함허득통 스님은 금강경의 원문과 야부의 송, 종경의 제강에 주로 설의를 붙였다. 함허득통 스님의 설의는 다섯 분의 뜻풀이를 충실하게 따라가며 더 자세한 해설을 덧붙여 전체 뜻을 드러내고자 했다.

여섯 분의 해설서인 〈금강경오가해설의〉가 대대로 내려오며 많은 이들에게 '금강경 지침서'가 되었

규봉 · 육조 · 부대사 · 야부 · 종경 · 함허

독자 이해 돕기 위해 저자별 해설

원뜻 제대로 이해하는 게 관건

는데 굳이 이 책을 여섯 선사 각각의 해설서로 나누어 펴낸 것은 〈금강경오가해설의〉의 독특한 구성이 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는 역자의 생각에서다.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금강경〉 원문이 나오고 규봉, 육조, 부대사, 야부, 종경의 글들이 이어지며, 이 내용들에 함허 스님의 설의가 곁들여져 있다.

규봉의 찬요는 〈금강경〉의 중요한 뜻을 풀어놓은 것이고, 육조의 해의는 〈금강경〉의 이치를 풀어놓은 것이고, 부대사 찬은 〈금강경〉의 뜻을 찬탄한 것이고, 야부의 송은 〈금강경〉의 뜻을 간결하게 게송으로 풀어 놓은 것이고, 종경의 제강은 게송으로 〈금강경〉의 골격을 잡아가며 골수를 잡아낸 것이고, 함허의 설의는 〈금강경오가해〉를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이치를 설해 놓은 것이다.

이번 책은 저자별로 나누어 펴냈는데, 역자는 "함허 스님의 〈금강경오가해설의〉는 찬요, 해의, 찬, 송, 제강, 설의 등 이 글들의 관점이 갖고 있는 힘과 성격이 확연히 달라 마치 '금강경'의 한 장면을 여섯 분이 저마다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 여섯 장르의 특색 있는 문학작품으로 표현해낸 듯하다. 여러 사람의 글이 자신의 고유한 색깔을 지니고 한 곳에 모여 있어 처음 경을 보는 사람들은 여러 선사들의 의도와 뜻을 헤아려보기에도 벅차서 원문에서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그 근본을 놓치고 곁가지에 집착하여 붙들고 있는 격이 되기 쉽다. 게다가 원문에 대한 선사들의 해석이 서로 다른 부분들도 많아 자칫 그 뜻을 이해하기 힘든 독자는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함허 스님의 〈금강경오가해설의〉는 한 원문에 여섯 선사의 글을 배치하다 보니 어느 분의 글은 그 원문과 바로 맞추어 볼 수 없는 곳에 놓일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여섯 분의 금강경뜻풀이를 저마다 각각의 '금강경 해설서'로 독립시켜 책으로 내는 것이 금강경을 공부하는 독자를 위해 하나의 고유한 색깔을 지닌 읽기 편한 금강경 해설서가 될 것이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박재완 기자**

▲함허득통(涵虛得通 · 1376~1433)은

1396년 21세 때 관악산 의상암으로 출가했다. 무학대사의 법을 이었으며, 1414년 황해도 자모산 연봉사에 거처를 마련하고 〈금강경오가해〉를 강의하면서 풀이했는데, 이것이 훗날 '설의'라 하여 〈금강경오가해〉에 합쳐져 〈금강경오가해설의〉가 되었다. 1431년 희양산에 들어가 봉암사 를 중수하고 그곳에서 원적에 들었다. 〈원각경소〉, 〈현정론〉, 〈반야참문〉,〈금강경윤관〉 〈선종영가집설의〉 등의 저서가 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0 ~ 4/16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2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3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5	지혜로운 삶(우학스님 신심명 강설)	우학	좋은인연
6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7	그대 보지 못했는가(서암 큰스님 회고록)	서암	정토출판
8	행복 119	성담	셀프컬쳐리서치
9	니까야 강독	각묵, 대림	초기불전연구원
1	십지경(오리지널화엄경)산스크리트대장경	전재성	한국빨알리성전협회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고려 불교조각의 변화와 흐름을 본다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최성은 지음 | 일조각 펴냄 | 4만원



고려시대의 불교조각 연구에 매진해온 저자가 30여 년 동안의 연구한 성과를 집약한 책으로, 다양한 도상과 양식적 특징은 물론 당시의 정치, 사회적 배경과 고려인들의 신앙 형태 및 주변국들의 영향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고려시대 불교조각의 변화와 흐름을 볼 수 있다.

고려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불교가 융성했던 만큼 불교문화도 크게 발달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사찰의 불전에는 다양한 크기의 불상들이 예배존상으로서 불전을 장엄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불교에 대한 신앙이 국가적으로 열렬했고 불상이 많이 제작되었던 고려시대의 불교조각은 이전 시기인 통일신라의 것이나 이후의 조선시대의 것과는 달리 초기에 지역적, 양식적 다양성을 태생적으로 안고 전개되었다.

책은 고려시대 불상 모두를 다루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불교가 가장 대중적인 호응을 얻었던 고려시대의 불교조각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자료를 통한 접근이 가능한 몇 개의 주제에 대해 살펴봤다.

저자는 고려시대의 불교조각을 종래의 시기구분법을 따라 무신의 난이 시작되는 1170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 · 후기로 나누었다.

전기에는 다양한 양식적 특징으로 분화되었던 각 지역의 불교조각이 '고려'라는 새로운 통일왕조 안에서 서로 융합되고 발전되어 갔으며 사찰의 창건과 중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조성된 웅대한 불상들에는 통일 고려의 국가적 기상이 한껏 발현되었다.

태조 왕건은 즉위 직후인 태조 2년(919)에 수도 개경에 법왕사, 왕륜사 등 10여 개의 사찰을 세웠고, 936년에는 개경에 광흥사, 내천왕사, 현성사, 미륵사 등을 건립했으며, 936년 후백제의 항복을 받고 통일의 대업을 완성했던 황산벌, 즉 오늘날의 충남 연산에 전승을 기념한 개태사를 세웠다. 그러나 개경 일대 사찰에 봉안되었던 예배존상들이 오늘날 전하고 있지 않아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태사의 석조삼존불입상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음은 불교미술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불행 중 다행인 일이다.

문화적으로 '고려'의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현종대 11세기 불교조각은 단아하고 귀족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어 성격적인 차이를 보인다.

고려후기에 이르러 장기간 몽골과의 전란을 겪으며 정토를 염원하는 신앙이 유행하게 되고, 그 뒤 원의 간섭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지배층들이 불교교단과 유착되어 기복적으로 기울면서 결사운동은 힘을 잃고 정토왕생을 구하려는 신앙 경향이 더욱 성행하여 아미타불상이 전국적으로 조성되었다.

고려시대 초기 불교조각은 광주철불, 관촉사 미륵보살입상 등 여러 작품들이 전하고 있지만, 명문자료나 조각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전반적으로 고려시대 불교조각은 학술적 연구의 근거가 될 유물과 자료의 부족으로 주변 자료와의 비교 연구와 추론에 많은 것을 의존해야하는 만큼 연구에 어려움이 크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저자는 이러한 한계를 성실한 연구로써 극복해 내고 있다. 이로써 고려의 사회와 문화의 변화와 흐름을 추적하고 고려인들의 생활상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재완 기자

'탄허' 100년, 생애와 오대산 이야기

탄허, 허공을 삼키다

자현 스님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3천5백원



"오대산 상원사의 한암 스님을 알게 된 탄허 스님은 거스를 수 없는 또 다른 열정이 샘솟는다. 때문에 1932년 한암 스님에게 편지를 보내기에 이른다. 20세 약관의 전라도 유생과 당시 57세 조선불교 선교양종의 종정(교정)으로 있던 노회한 대가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2013년은 20세기 한국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지식, 대석학 탄허 스님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북극성과 같이 우리민족의 시대정신 중 한 분이었던 탄허 스님의 생애와 그 생애의 많은 부분을 지나간 오대산 이야기다.

"3년간 편지를 주고받았던 한암 스님은 진리에 대한 깊은 갈증 속에서 더 이상 스승이 없었던 탄허 스님에게 구원의 빛이었다. 1934년 11월 21일, 탄허 스님은 스승인 한암 스님을 은사이자 계사



화엄경 완간을 기념하여 열린 화엄산림법회

로 사미계를 받는다. 이때 받은 법명이 택성(宅成)이며, 탄허는 후일의 법호다."

〈탄허, 허공을 삼키다〉는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 업적을 되살려 '탄허학'을 정립하여, 미래의 꿈과 좌표로서 한국불교 발전의 바탕으로 감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되었다.

"탄허 스님의 열반은 소박한 담담함으로 마쳐진다. 스님은 71세 때인 1983년 6월 5일 당신께서 직접 터를 잡고, 〈신화엄경합론〉 번역에 매진하셨던 오대산 월정사의 방산굴에서 출가하신 지 49년 만에 조용히 열반에 드신다. 전통의 향기를 간직한 마지막 명안종사(明眼宗師)는 그렇게 천화하셨다."

탄허 스님은 오대산에 입산하여 수행하고, 시대의 선지식이었던 한암 스님의 가르침과 사상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오대산에서 수도원을 열어 후학을 양성하는 등 스님의 활동은 오대산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탄허 스님을 말하면서 오대산을 지나칠 수 없다. 오대산은 스님을 품었으며, 스님은 스승이신 한암 스님처럼 오대산인으로 거듭나는 인생을 걷게 된다. 책의 중반까지는 스님의 생애와 시대정신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중반 이후부터는 오대산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있어 탄허 스님이라는 큰 그릇을 품을 수 있는 오대산의 문화적인 배경과 그 깊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시대 한계 뛰어넘은 55대선사 이야기



무엇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을까

정병조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8천원

진리 하나만을 찾겠다는 구도일념으로 바람마저 멈춰버린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오로지 불법을 전하고자 목숨도 버리는 이들이 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평범하게 살지 않는 이들도 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을까?

2,600여 년 전 인도서 시작된 부처님 가르침이 한반도에 전해진 지도 어느덧 1,600년이 훨씬 넘었다. 신라 땅에 들어온 부처님 가르침, 즉 불법(佛法)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어진 데는 법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책은 지금의 한국불교를 있게 한 대선사들의 시대적 고뇌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원행(願行)을 조명한 이야기다. 아도 화상서 용성 스님까지 한국불교사의 위대한 스승 55인의 삶과 수행이 오롯이 담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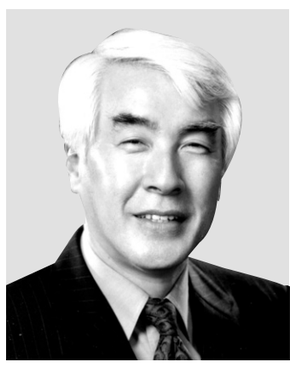
저자 정병조 금강대 총장〈사진〉은 불교 원류를 알고 싶다는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인도철학과 인도불교 공부를 시작했다. 인도서 발생한 불교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을까 하는 것이 정병조 총장의 의문이었다. 그렇게 학자로서의 자세로 시작한 공부가 어느덧 깊은 신심으로 변화하면서, 저자는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법을 이어온 대선사들의 삶을 다시금 들여다보게 됐다.

또한 저자는 흔적조차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희미하게 남은 자료를 찾으면서, 그 속에서 오로지 진리를 전하던 선사들의 인간적 고뇌와 그것을 극복해나가는 삶의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이 책은 1992년 〈보살도의 숨결〉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저자의 원고를 20여 년이 지난 오늘에 맞게 새로 정리한 것이다. 위대한 인물들의 독창적 모습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반조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대다수 조선 초 선승들처럼 지엄 스님이 말하는 교학의 바탕은 법화와 화엄사상이다. 지엄스님은 이상과 현실 사이서 고민했을 테지만 원광법사는 결연히 조화를 도모해 불교의 진면목을 과시한다. 이 부분을 불교의 신라적 수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광의 걸사표는 아마 제갈량의 출사표를 능가하는 당대의 명문이었을 것이라고 저자는 짐작한다. 이후 당과 신라는 선린 우호의 외교관계를 수립한다.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결코 당나라에 예속된 통일이 아니라 자주적 통일 기반이라는 점에서 저자는 다시 한번 오늘의 분단 상황을 떠올린다.

한국전쟁 이후 이른바 공비 토벌작전이 한창일 때, 오대산 역시 분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오대산 공비들은 상원사를 거점으로 노략질을 일삼았다. 출몰이 잦은 공비 때문에



한국대선사들의 고뇌와 원행 조명
20년만에 정리…연담, 능화 스님 추가
의상 스님…수행과 학자의 길 양립

적지 않은 애로를 겪은 국군은 상원사와 월정사에 스님들이 머물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젊은 장교는 한밤중에 대원들을 이끌고 상원사로 가서 절을 불태워야겠다고 했다.

한암 스님은 잠깐 기다리도록 이르고 가사와 장삼을 갈아입은 뒤 법당으로 들어가 좌선에 들었다. 그리고 불을 질러도 좋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일렀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요. 부처님은 이럴 경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소. 그리고 당신은 장군의 부하이니 장군의 명령대로 불을 지르시오."라고 말이다.

한국불교는 산중불교의 분위기서 벗어나 새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중생을 위한 불교', '인간성 회복에 역점을 두는 새로운 불교'의 모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삶이 다양해지고 정보화된 현실 속에서 출가만을 고집하거나 무한정 확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출가자와 재가자의 역할 분담과 공동선의 추구가 미래 한국불교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정병조 총장은 "이번 책에는 그동안 소개된 53선지식 이외에 연담유일 스님과 이능화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새로 추가해 넣었다"며 "이 책에 소개된 대다수의 선지식들을 존경하지만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수행과 학자의 길을 완벽하게 양립시킨 의상 스님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정병조 총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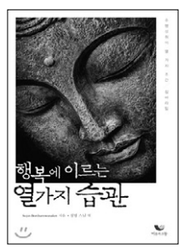
1970년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 1986년 동국대 대학원 철학박사학위를 취득, 1980년부터 2011년까지 동 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사)한국불교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동국대 도서관장과 사회교육원 원장, 교무처장, 부총장 등을 역임하였고, 2011년 정년퇴임했다. 현재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이며 금강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정병조의 불교강좌〉 〈인도철학사상사〉 〈지혜의 완성〉 〈불교와 인도고전〉 〈인도의 여정〉 〈전환기의 한국불교〉 〈정병조 불교입문〉등이 있다.

"불교에서의 행복이란 바로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

행복에 이르는 열가지 습관

수진보리한 와나킷 지음 | 정명 스님 번역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3800원



"정진(viriya)이란 벽지불처럼 홀로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혹은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는) 제자로서의 지혜(깨달음)를 얻기 위하여 보시와 같은 훌륭한 공덕행을 누적시켜 감에 있어 인욕하는 것을 최고의 정진이라 한다. 인욕(khanti)이란 화를 참는 것이다. 보시행, 계(戒) 등을 지님에 있어 거짓이 없고 진실이 아닌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진실(sacca)이다.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결의가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익한 행을 할 수 있다. 모든 목적한 것을 흔들리지 않게 가지고 지니는 것, 이것이 결의이다.

보시와 지계 등의 토대인 자애는 모든 중생들의 이익을 바라는 것이다. 다른 중생들의 행동이나 겪게 되는 상황에 마음의 치우침 없음이 평온이다.

그러므로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며 수행을 한다면 계와 선정(定) 그리고 지혜(慧)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닦는 과정에서 정진바라밀 등이 닦여진다."

이 책은 태국의 세계적인 명상수행가이자 아비담마 전문가인 수진 보리한와나킷(Sujin Boriharnwanaket)의 〈The perfections leading to enlightenment〉의 번역서이다. 이 책은 행복에 이르는 열 가지 습관에 관한 이야기이다.

불교에서의 행복이란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이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니르바나(열반)라고 하는데, 이 열반을 증득하려면 필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 조건이 바로 십바라밀(보시 · 지계 · 출리 · 지혜 · 정진 · 인욕 · 진실 · 결의 · 자애 · 평온바라밀)이니 십바라밀은 '열 가지 수행성취의 조건'이라는 뜻이다.

한국의 많은 수행자들은 수행성취를 위해 용맹정진한다. 열심히 하기만 하면 수행은 성취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행 성취는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조건을 만나게 될 때 이뤄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성취 조건이 무엇이고 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한 다음에 하나하나 이 조건들을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수행성취의 조건 십바라밀'이다. 이 책은 니까야 가운데 소부(小部)의 소송(小誦) 및 불소행장(佛所行藏)과 그 주석서를 근간으로 한다. 또한 각각의 바라밀을 설명할 때 다른 니까야에 있는 붓다의 말씀도 인용해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책 내용에 따라 수행자가 자신을 돌아본다면 수행성취의 조건을 어느 정도 구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을 추가적으로 닦아나가야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수행을 하다 보면 옆의 도반은 어느 정도의 수행성취를 보일 것인지 대략적인 느낌이 온다. 그리고 수행이 정체된다면 그것의 원인은 어떤 것일지 가늠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모두 이 책의 십바라밀에 근거한다.

태국의 세계적인 명상수행가
열반 증득…10바라밀 필요해
저자 라디오로 50년간 포교

수행을 지도하다 보면 인색한 수행자, 도덕적이지 못한 수행자, 탐욕스러운 수행자, 지혜가 없는 수행자, 게으른 수행자, 참을성이 없는 수행자, 진실성이 부족한 수행자, 의지가 약한 수행자, 자신만을 생각하고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수행자, 평온을 잃은 수행자는 반드시 장애를 만나서 수행터를 떠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이 모두는 수행성취의 조건을 구족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다.

이 책은 수행자들을 위한 전문서이지만 괴로움의 소멸을 갈구하고 있다면 이 책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저자는 'The Dhamma Study and Support Foundation'의 창립자로 매일 라디오를 통해 불교를 전파하고 있으며, 50여년 이상을 불교를 가르쳐오고 있다. 그녀의 책은 태국어와 영어로 번역되어 여러나라에서 출판되었다. 저자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불교도협의회(Buddhisam Award Committee)주관의 '걸출한 여성상'을 방콕의 UN본부에서 2007년 3월 수상하였다.

김주일 기자

생활 속 수행과 기도 강조한 법문집

일우 스님의 가피이야기

일우 지음 | 현대북스 펴냄 | 1만3천원



"자, 모든 것을 내려놔 보십시오. 단 하루라도, 단 1시간만이라도 내 손에서, 내 머리에서.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어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 이웃 친척 사회를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소홀했는지 가만히 내려놓은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미처 가까이 하지 못한 일들을, 미처 다독이지 못한 사람을, 자신의 잘못됨을 솔직히 바라보며 '미안하다, 미안하다' 영혼의 어울림을 시작해 보십시오. '잘못했다, 잘못했다' 따뜻이 껴안아 주십시오."

대구 성관음사서 불자들에게 참된 불교 신행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일우 스님이, 수행하고 법문하는 틈틈이 느낀 크고 작은 깨달음을 가볍게 전달하는 에세이집 〈일우 스님의 가피 이야기〉를 냈다. 거창해야 꼭 수행이 아니고 어려워야 꼭 법문이 아니다. 생활하면서 실행하는 말 한마디 마음 씀씀이 하나가 모두 수행이 될 수 있는데, 저자 역시 생활 속 수행과 생활 속 기도를 강조한다.

책은 모두 4장으로 나누어졌는데 생활 속 법문 같기도 하고, 현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많은 사회문제에 대해 비판의식도 전달하고, 직접 불자들에게 일러준 여러 일화를 예로 바른 신행법을 가르치기도 한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스스로가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과, 열심히 활동할 것, 바른 마음을 낼 것을 강조하는 저자의 생각이 녹아 있다.

"겸손과 하심이 몸에 배도록 하고 늘 부지런히 움직이며 자기 일을 한다든지 남을 돕는다든지 하여 내면과 외면이 잘 정리되면 자연히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스님은 겸손과 하심을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20세기 한국선사들 수행담 묶어

청산은 움직이지 않고 물은 멀리 흐르네

동광 혜두 기록/김용환 외 편역
정우서적 펴냄 | 1만5천원



1900년에 태어나 1976년에 입적한 동광 혜두 선사는 13세에 양산 통도사로 출가해 1919년 10월 밀양 표충사 내원 선원에서 처음으로 동안거를 시작한 이래, 제방의 선원에서 안거를 하며 당대의 선지식(善知識)과 법거래(法去來)를 하였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20세기 한국불교 선법의 역사(歷史)를 화려하게 장식한 선사들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이 책에는 용성(龍城), 혜월(慧月), 학명(鶴鳴), 만공(滿空), 성능, 한암, 고봉, 춘성, 금오, 동산, 전강, 향곡, 혜암, 석두, 경봉, 효봉, 청담, 구산, 묵담 스님 등 제 선사와의 법거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둘째, 진정한 대중 구제와 포교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한다. 동광선사는 식민지 시절 고통 받는 민중을 위해 지압을 배우고 고통 속에 빠진 이들을 건져내고 있다. 수월스님이 짚신을 삼아 대중께 나눠 주었다는 일화로 유명하지만 동광선사의 중생 구제는 화광동진의 대승 보살의 올곧은 삶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투박할 정도로 솔직담백한 선사의 수행일기를 통해 법거량하는 모습과 제 의례와 근현대 불교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법화살림, 화엄살림, 유마경살림, 정토산림 선리설법, 관음기도 등 7일 살림의 모습들이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외에도 이 책은 동광 선사 경사록과 수도전법기를 합편한 것이다. 경사록은 동광 선사의 지난 일의 기록인데 편의상 11편으로 나누었으며, 수도하고 전법한 수도전법기는 10대에서 70대까지 6편으로 나눠 정리하였다. 그리고 부록으로 '동광 선사 연표'와 '동광 선사 유고목록' '동광 선사 유물 목록'을 편재해 동광 선사의 업적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김주일 기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전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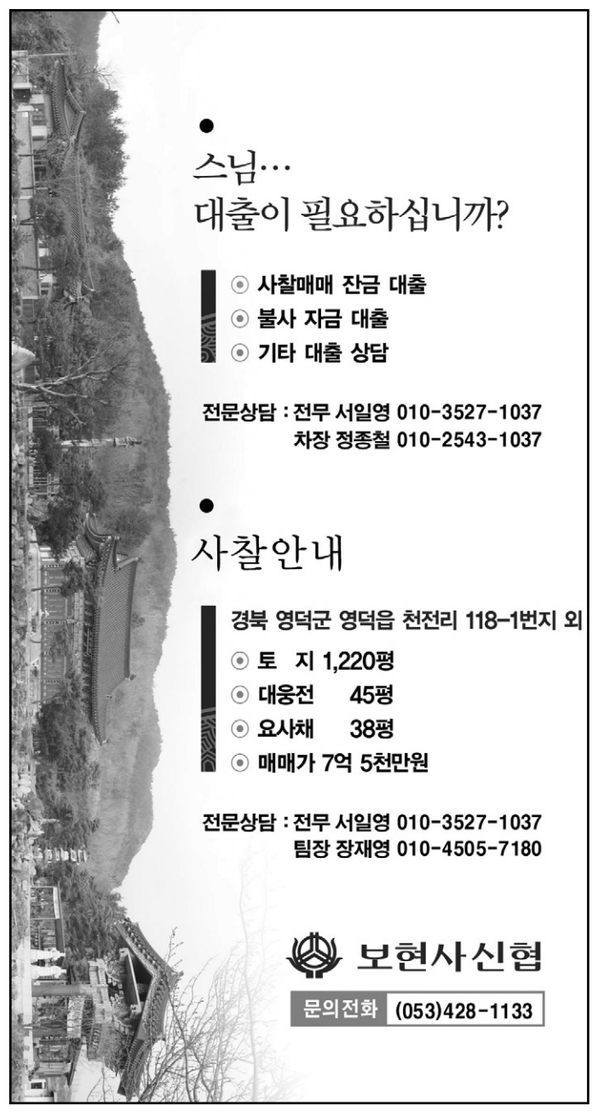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스트레칭필, 칼라챠크라, 용천보탑, 배요온대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사찰매매 잔금 대출
불사 자금 대출
기타 대출 상담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사찰안내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118-1번지 외
토 지 1,220평
대웅전 45평
요사채 38평
매매가 7억 5천만원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팀장 장재영 010-4505-7180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짚다
⑧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동향

선학원, 모순의 시대 넘기 위한 자구책

선학원은 일제강점기 한일합방에 이어 사찰령이 공포되어 주지전횡과 대처식육의 풍조가 만연되는 상황에서 설립되었다. 그 설립의 이념과 취지가 종단이나 문중간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선학(先學)들의 목소리는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일찍이 강석주 스님과 박경훈 선생은 "일제의 사찰령에 의해 한국 불교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또 분열과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서 온갖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사찰령에 저항하여 한국 불교 본래의 모습을 지키고자 조용히 일어선 운동이 있었다."고(〈불교근세백년〉, 114쪽) 선학원 설립의 목적을 언급했다. 1970년대 선학원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던 정광호(鄭珖鎬) 역시 "선학원의 기풍(氣風)은 처음부터 일제(日帝)의 정책(政策)에 반대하여 일어난 사찰(寺刹)이었다는 특징을 갖는다."고(〈근대한일불교관계사연구〉, 185쪽) 선학원의 색채를 규정지었다. 아울러 근대불교사 전공자 김광식(金光植)은 "선학원은 3·1운동의 영향과 일제의 사찰정책에 대항하려는 발로에 의하여 1921년 창설되었다."고(〈한국근대불교사연구〉, 96쪽) 하였다.

〈조계종사〉조차도 "선학원의 창설목적은 전통 선을 발전시켜, 불조의 정맥을 계승하고 교리연구와 정법포교를 통하여 불법을 널리 홍포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고(근현대편, 98쪽) 선학원 설립의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 결국 선학원의 설립은 '민족불교'의 회복과 '전통불교 수호'를 표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선학원의 설립은 사찰령 공포 이후 우리 불교계가 보여주었던 총체적인 모순과 그 극복을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사찰령 이후 설립 이전까지의 주지전횡과 대처식육, 전통 선교학(禪敎學)의 침체 등 불교계의 총체적인 모순은 표류의 연속이었다.

사찰령 이후 본산의 주지의 권세는 실로 대단했다. 그도 그럴 것이 총독이 인가하는 주임(奏任)의 지위에 오르고, 총독관저에 초대받고, 총독부의 공식연회에 종교계 요인으로 초대를 받았으니 날개를 단 형국 아니었겠는가.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불교의 전통인 양법미제(良法美制)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른바 16세기 영국의 금융가 토마스 그레샴(Thomas Gresham)이 제창한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는 형국이 시작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주지를 정하는 절차와 공의제도(公議制度)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사찰에서는 주지를 정하는 방법으로 스승이 제자 중에서 적임자로 인정되는 자를 선발하여 후보로 정하는 '사자상승(師資相承)'의 경우와 해당 사찰이나 혹은 본 말사에서 법맥(法脈)을 이은 스님들이 서로 협의하여 그 중에서 대중이 지지하는 자를 후보로 정하는 '법류상속(法類相續)'의 방법이 있었다. 아니면 전혀 법맥이 같지 않지만, 학덕(學德)이 높은 이를 초빙하여 주지를 맡기는 '초대계석(招待繼席)'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한편 큰 사찰에서는 전통적으로 모든 일을 산중의 장로와 각종 소임을 가진 스님은 물론, 산중의 비구들이 공론하여 결정하는 '산중공사(山中公事)'라는 공의(公議)제도가 있었다. 때문에 주지나 소임을 가진 소수의 스님들이 전횡(專橫)을 하거나 사사롭게 사찰의 일을 도모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찰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사법(寺法) 등을 근거로 임명된 주지는 그 권한이 막강하였다. 수행에 방해가 된다하여 사양했던 모습이나 공의제도에 의거한 일처리는 이제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다. 바야흐로 일부 소임자나 주지가 독단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주지전횡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더욱이 당시 불교계에 불어 닥친 왜색화의 경향은 한국불교가 지닌 독자성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다. 한국불교의 일본화가 시작된 것이다. 사찰령 역시 초기에는 "대처식육(帶妻食肉)하는 자에게는 비구계를 불허(不許)하며(사법 58조)" "처자를 사찰 안에 살게 하거나 여인을 절 안에 살게 한 자는 근신의 징계에 처한다.(사법 85조)"고 했다. 논리대로라면 "비구계를 갖춘 자만이 본말사의 주지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사법의 개정을 인가해달라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급기야 조선총독부는 1926년 대처식육을 인가해 주었다.

1937년 정초 신년하례 차 총독부를 방문한 31본산 주지에게 미나미(南次郎) 총독이 전임 총독 데라우치의 공덕을 찬양하자 만공스님이 "데라우치 총독은 승려에게 취처(娶妻)를 하게 했으니 지금은 지옥에 가 있을 것이다. 지옥에 가 있는 그를 천도하는 것이 데라우치를 위하는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당시 불교계에 만연된 폐해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백양사(白羊寺)의 만암(曼庵)스님 역시 법당에 정법중(正法衆)과 호법중(護法衆)이라는 표찰을 써 붙여 무처승(無妻僧)과 유처승(有妻僧)이 별도로 앉도록 구별하였다.

현금(現今) 조선 승려로 축처(畜妻)하고 고기 먹는 자가 사원을 장악하고 있어 수행납자와 나이 많은 납승(衲僧)은 자연히 내쫓기게 되어 울며 방황하게 되었다. 그들은 어디에 안주하겠는가. 축처하고 고기 먹는 것을 엄금하든지 아니면 계율을 지키는 납승에게 몇 개의 본산을 나누어 주어 유처승과 무처승의 구별을 조야(朝野)의 대중이 함께 알도록 해 달라.

백용성(白龍城)·김남전(金南泉) 등 127명의 선승(禪僧)들이 1926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독부에 진정하여 제출한 건백서(建白書)의 내용이다. 이들은 당시 불교계의 상황을 "오늘 출가대중으로서 청정한 사원에서 아내를 거느리고 고기를 먹으며, 자녀를 키워 도량을 더럽히고 참선과 염불과 강당을 전폐(全閉)케 함은 불가(佛家)의 대적(大賊)이라 할 것이다."라고 한탄하였다.

"동경 유학생의 역사가 이미 오래였지만, 업(業)을 마치고 돌아 온 자들 중에 취처(娶妻)를 하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한 남해생의 글에서도 당시 대처식육 문제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1927년 〈불교〉지에 실린 박경응(朴鏡應) 스님의 지적은 더욱 신랄하다.

경문을 외던 강학자(講學者)의 입은 개조·혁신·활동 등 온갖 시대적 술어를 부르짖고, 가사를 걸치던 비구승의 몸은 신식 하이칼라 양복을 입고, 주장자를 잡던 선사의 손에는 물 건너 온 스테이크가 잡혀 있고, 인도식 비로관(毘盧冠)을 높이 쓰던 운수객(雲水客)의 머리 위에는 중절모를 쓰고 있어 모든 것이 외관상으로는 완연히 신불교 교단을 건설하는 듯한 감이 넘쳤다. 그러나 실질에 있어서는 아무런 취할 것이 없이 안으로 퇴폐하고 기강만 풀렸을 뿐 공허하게 된 것은 이 무슨 진리의 반역인가.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는 듯하다. 말 그대로 국적이 없는 불교였고, 비승비속(非僧非俗)의 천태만상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막상 스님들의 도성출입 금지가 해제되었지만, 갈 곳을 바라볼 수 없었으니 이리저리 헤매는 사이에 나라는 넘어갔으니 부여잡을 것이라고는 없었다.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한 것이었지만, 이승에서 달콤한 꿈에 취해있었다.

지금이라고 전문 강원(講院)이 없는 것은 아니요, 땔감을 지고 스승을 좇는 학인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강당이라는 그 곳에는 쓸쓸하고 적막하기가 찬바람 부는 빈들과 같이 아무 화기애애한 맛을 발견할 수 없이 그저 기계적인 것 같으며, 강학을 하는 학인들도 아무 용기 없이 그저 두 어깨가 처지고 마치 도살장에 들어온 소처럼 낙오의 한숨만으로 일종의 밥을 구걸하는 나그네요, 낭만적이고 이름만으로 허송세월하려는 것은 통계수자가 증명하는 바이다.

최기정(崔其正)이 묘사한 1920년대 전통강원의 상황이었다. 용맹정진의 치열한 구도의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무기력한 학인들만이 허송세월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당시 불교계의 혼란한 상황에서 선학원의 창건상량문(創建上樑文)은 "세상의 이치와 인심(人心)이 점차 복잡하여 교리와 종지의 선전이 지극히 어려운 가운데 각종 종교가 번성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불자(佛子)들이 책임감을 절감하고 금강신(金剛心)의 서원을 함께 세운 지 수 십 년 만에 결실을 보았다고 하였다.

결국 선학원의 설립은 당시 불교계에 진행되고 있었던 모든 부패와 모순을 극복하고 쓰러진 불조정맥(佛祖正脈)을 바로 세우는데 있었다. '조선 사람끼리만 운영하는 선방(禪房)'은 이렇게 해서 태어났다. 저 엄혹한 시절에 불가능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진력한 것이다.



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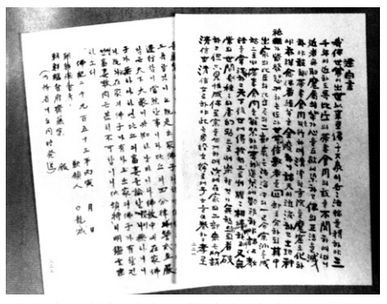


2007년 10월 19일 봉암사에서 열린 '봉암사 결수 60년 기념법회'의 모습. 승가 공동체의 수행종풍을 복원한 봉암사 결사의 정신은 이미 선학원 건립 당시부터 면면히 이어지고 있었다.

사찰령 이후 본사 주지 권력 독점… 공의제 붕괴

가사대신 양복과 중절모 선사의 손에는 스테이크가 대처식육, 비승비속 삶 야기

민족·전통 불교의 회복 표방하며 선학원 건립



백용성스님이 당시 불교계의 대처식육 금지를 조선총독부에 요청했던 건백서(建白書). 당시 한국불교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법문집, 주제가 있는 에세이집, 구도기, 자연치유 경험담, 여행기 등

현대불교가 진리의 법문을 담는 소중한 그릇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산하대지 온 천지가, 심지어는 한 송이 풀꽃마저도 법을 노래하지 않은 적이 한시도 없건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눈 뜬 장님마냥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사바세계를 힘겹게 건너가고 있으니, 자기 등불을 이미 밝힌 불자는 깨어 있음의 기쁨으로 종을 치고 북을 쳐서 세상을 향해 돌이키라는 외침을 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말로 표현하면 곧바로 그것이 허물이 됨을 알면서도 말과 글을 쉴 수 없는 까닭은 이미 원만구족해 있는 우리안의 佛性을 깨우는 촉매가 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 때문일 것입니다. 현대불교에서는 우리 안의 불성을 깨우고 자극하는 법문집이나 에세이, 구도기 등, 모든 형태의 佛書를 기획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출판의 대외여건상 초기에는 저자가 일정 부수를 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되지만, 광고와 인터뷰 기사 등으로 더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한편, 독자로부터 반응이 좋을 경우 에는 소정의 인세를 지불하여 저작권을 적극 보호할 것입니다. 단행본 출판은 현대불교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예시아문

(문의 : 02-2004-8213, 010-7755-2261) 현대불교

보시

현대불교신문사와 삼환양초는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양초를 무료로 보시합니다.
이 초는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육각초 (길이 45Cm, 판매가 25,000원 상당)입니다.

전국 사찰에 한하며, 선착순 500여 사찰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팩스주문만 받사오며, '제목 양초 보시', '받으실 사찰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 후 현대불교신문사 또는 삼환양초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택배비는 받으시는 사찰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선착순 500셀 한정!! → 현재 남은 수량 228셀

신청 : 삼환양초 FAX 031)766-8242 /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6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다음 네 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둘째, 지금은 부귀하더라도
곧 가난하고 천해질 수 있다. 셋째, 무엇이든 모이면 반드시 흩어진다.
넷째, 아무리 건강한 육신을 가진 이도 죽는다.
– 출요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쑥뜸방, 돌뜸방 기술지원
50년전통 011-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051)721-6444

관상 · 손금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얼굴, 손금만 봐도 어디 질병이 있는지 알 수 있다
– 철학원, 포교원, 무속인, 일반인
– 전국 어디든지 출장 가능함
– 개인지도(나이 관계없음)
스님 특별 개인지도
010-4014-8822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법인 종교법인 등록
법인 아닌 법인 등록
서 류 대 행
010-9476-9001
성산개발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법납 35년
세납 65세인 비구입니다
불사와 기도정진 함께 하면서
수행하실 스님과 보살님을 모십니다
(충북 제천 위치와 경관이빼어난 곳에 약 8천평의 땅과 서울에 약 100평의 포교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 모든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1억이상 투자 가능하신 분)
010-2127-4755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지리산 청학동 (자비수양원)
황토방과 건강치료설비를 갖춘 수양원에서 식이요법 및 유기농 식단 등으로 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께선 많은 연락바랍니다
* 또한 암자에서 참선수행 하실분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 찾아주십시요
011-759-0183
010-8484-6124

양 도 공 고
(등록된 불교단체 불교종단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황토 누워서 허리뜸, 훈증침대
비만,허리뜸,관절통증,사고후유증, 아토피,비염,여성질환,혈액순환, 마음은 청춘 몸은 노령,건강,행복, 장수,인간의 수명은 화 사 냉 청소. 저는 약사여래 가피력 도승원력. 암자 포교원 운영할 비구승 인연바랍
011-573-4438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빙의 퇴마
천병,신병,우울증,대인기피증, 틱장애,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가정풍파, 엑스시스트에서도 치료 못하는 환자치료, 스님 법사 보살님도 상담환영.
(천상을 여는 금강사)
010-2418-6222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실 전 교 육
– 사물(태징,목탁,송주북, 정근북,법고)
– 천수바라,작법(나비무), 49재,천도재,점안등
경남 진주시 주남동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남녀 행자 모집합니다
(나이 제한없음, 신심이 돈독한 분)
051)721-0449
010-3579-6444

부 전 스 님 모십니다
(금호동 관음사, 50세이하)
010-6260-3310

경북 봉화 청정기도
수행도량 산중계곡물
상구보리. 하화중생
여생을 함께할
비구니 스님 2분을 모십니다
보시금도 드립니다
010-6370-6769
010-6227-6510

원력과 신통력
•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0-5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산중 시골집, 문중절, 토굴, 가든, 법당, 암자 무상 임대나 저렴한 관리를 맡기거나 불사에 도움 주실 분.
010-6297-4097
017-297-4097

조그마한 절입니다
절 운영하실 스님이나
기도스님 모십니다
(포항 흥해읍)
010-3194-7969

신심있는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울산, 55세 이하)
011-875-6317

공양주 + 총무소임
가족같은
보살님 원합니다
(강원도 설악산 작은암자)
보수절충
033)463-3150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근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호주, 이스라엘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요일 저녁반, 화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제11기 지도자양성 부업. 봉사자
소자본으로 사업하실 분
돈도 벌고 기도 잘하시고 보살행하실분
창업자 상담 및 기도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서울,부산,대구
010-6789-5008 / 010-2353-2010
02)739-5008

수정사 노인 요양원
• 최적의 자연환경 (수정산 산책로)
• 최신시설, 아늑하고 쾌적한 시설
• 등급 내, 외 어르신 모두 환영
• 최고시설, 최저의 비용으로 모시겠습니다
상담문의 031-333-5014. 010-7105-5013
(성심 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 운영에 고심이 많으신 스님들께 한 소식 올립니다
❁ 절에 신도가 줄었다.
❁ 한번 온 사람이 다시 오지 않는다.
❁ 절 살림이 어렵다.
❁ 부처님 호상이 前전 같지 않다.
❁ 천도재를 지내고 성불보기 힘들다.
❁ 법당에 기운이 썰렁하다.
❁ 법당에 도둑이 들거나 잔손이 탄다.
❁ 주지스님이 건강이 나빠진다.
❁ 스님이 마음이 떠서 밖으로만 돈다.
❁ 공양주가 붙어있지 않는다.
❁ 사찰을 매매하고 떠나고 싶다.
이런 문제가 있으신 스님들께서는 좋은 처방비법이 있으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41)943-6882 / 010-4233-7099
전 화 白超律曆學堂

영가찾는 법 교육생 모집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 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백 암 역 리 원 동작구청(우리은행) 옆
02)597-1101 / 011-9150-2284

자성주(靈珠) 수익사업
선망 조상님의 유골에 어떠한 광물질을 혼합하지 않고
섭씨 2,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아름답고 품위있게
고인의 유골을 自性珠(구슬사리)로 생성하는 기계입니다.
납골사리 1기당 150만원. 지사 및 사업동반자 환영
1899-1042. 010-3679-1080
(주) 보은의 사랑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상 운 사
• 법 명 : 성법 (속명 : 김수호)
• 승적번호 : 13-7
• 주 소 : 강원도 양구군 수인리
위 사찰과 위인는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4일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장 법하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 · 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 · 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 ~ 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 중

(주)골든 안치단 전문제작회사
미니납골당 건축 전문
◘ 장인들의 노하우로 개발한 명품입니다.
◘ 조립식이 아닌 개별함으로 조립식 함의 단점들을 100% 해결 했습니다.
◘ 황금색 안치단으로 품위와 디자인이 최고입니다.
◘ 가격 품질 시공 관리 타사 제품과 꼭 비교 하십시오.
◘ 화재 지진 무거운 중량에도 안전합니다.
미니 납골당 건축 전문회사
◘ 30년의 경력과 노하우로 완벽한 공법과 디자인이 뛰어 납니다.
◘ 결로 방지, 환기, 온 냉방, 인테리어가 절대 중요합니다.
◘ 정직, 성실, 믿음으로 건축비를 최저가로 상담 해 드립니다.
골든 안치단 본부장 010-3390-1161

불 자 정 보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음은 항상 용감하게, 생각은 항상 신중하게,
행동은 항상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스스로 자제하여 법에 따라서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 있는 사람이다.
- 법구경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해안
- 법당 : 13(목조단청)
- 산신각 : 5(목조단청)
- 요사 : 30평
- 부지 : 440평
- 가액 : 1억8천

토 굴
- 위치 :대전
- 법당및요사:35평
- 부지:700평
- 가액 : 2억 5천

사 찰 터
- 위치 :충북 단양 (구인사 부근)
- 부지: 18,000평
- 가액: 평당 2만원 특급 명당터 차량진입가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삼 보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서울
- 법당 : 40
- 요사 : 30
- 대지 : 100평
- 산신각,건평 150
- 가액 : 15억

- 위치 : 경산
- 법당 : 30
- 요사 : 50*2동
- 대지 : 300
- 종각,가액 5억

- 위치 : 의정부
- 법당 : 28평
- 요사 : 28.방4개
- 옛날구옥2채
- 1.3백/70권리금

※서울 경기 근교 포교당 전세암자 급히 구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 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및 토 굴 안 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약 2.700
- 법당 약 40평, 요사채 60평 주지실30평
- 산신, 노천불, 대형버스운행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양도가액: 12억

토 굴 안 내
- 총부지 : 970평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양도가액: 1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전원주택 또는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 대지 : 2,670평
- 진입로 6M이상 확보,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득
- 경치 수려하고 부지내 연못 있음
- 경부고속도로 수원IC, 기흥IC, 용서고속도로 청명IC인접
- 서울, 분당, 동탄 접근성 (10~20분)용이
- 동탄2기신도시, 보라택지지구 중간 지역
- 가액 협의 (방문 상담 후 결정 희망)

010-5624-0878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보령시 남포 저수지 앞
- 법당, 산신각, 요사2채
- 개금, 탱화 불사 새로 하였고 손볼곳 없는 완벽한 도량
- 즉시 입주가
- 가액: 5억

041)934-8497
010-4222-6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웅전, 칠성, 산신, 용왕각
- 요사채 2동
- 아파트 단지 도심 사찰
- 먼 바다 보이는 좋은 전망
- 대지 390평
- 가액: 3억 5천만원

010-5346-41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안양 명학시장 2층
- 안양역. 명학역 도보 10분
- 평수 5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전세 6천만원
- 법당, 주방, 침실, 삼존불 모심
- 시설비 없음 (시설비 3500만원 이상이나 사정상 임대합)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010-5495-4678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홍천읍
- 교통 편리하고 동향인 사찰
- 법당목조 60㎡, 요사채 124㎡
- 대+전 2,500㎡ 창고와 차고 있음
- 스님이 건강상으로 양도함
- 가액: 3억만원

010-3426-9393
010-7347-101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청학 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스님, 법사, 보살님 적합함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2층 : 법당과 스님방

010-3732-5237
051)412-04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로변
- 2층 75평
- 전세 500만원 월 60만원
- 공양간, 찜질방
- 3층 75평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 법당, 산신, 관음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시설비 절충

010-4071-3718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남해안 소재 사찰
- 토지 : 종교용지 430평, 임야/전 10,523평
- 시설: 납골추모관,무량수전,종무소,요사채, 공양간, 창고, 일반주택 등 주차장 완비
- 가액: 4억 8천만원
- 읍내 유일 추모관 운영, 예상가는 8억 이상이나 건강상 이유로 급 안내

010-5444-080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소재. 남김천 대로변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건물 : 독채 32평, 개인 등기 필
- 대지 : 도지료 연 35만원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남향 법당 넓고, 현대식 시설.생활 편리함
- 가액 : 6천 3백만원 시설비 2천 4백 5십만원 절충가능

010-7295-1259

암 자 안 내

- 경산시 와촌면 팔공산 뒷 갓바위 입구
- 대지 92평, 건평 32평 경량철골 판넬 인법당
- 완전 올수리 리모델링
- 청동 아미타불, 관세음, 지장보살, 삼존불 상단후불탱, 신중탱, 산신탱, 소불60불
- 가액 : 1억 3천 5백만원
- 주차장 텃밭, 별도 월 5만원씩
- 꼭 하실분만 전화주십시오

017-808-2543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북안면 당리
- 대지 97평
- 건물 20평
- 대출 1천 1백만원
- 가액: 3천만원 조용히 기도하실 분

010-4601-1255

현재 전원주택 노인 요양원 적지
땅을 알고 터를 잡으세요

- 위치: 경남 사천시 사남면
- 주택: 스틸하우스 (29평)
- 대지: 554평, 정남향(명당터)
- 가액: 1억 9천 5백만원

011-9517-852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경북 과학대학 근방
- 부지 2500평, 건물 70평
- 방6개, 폭포수 가까이 있음
- 경관 화려함
- 고사리 약 800평
- 가액: 3억 7천만원 (융자 1억 6천 포함)

011-556-5507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송현동
- 평수 30평, 3층. 대도로변
- 보증금 1천만원 / 월 55만원
- 시설: 아미타불, 지장불, 관음불, 후불탱화, 산신탱화, 인등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6205-6633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수영구
- 평수 50평
- 3층 건물의 2층
- 버스정류장앞, 큰도로변
- 보증금 1000 / 60
- 보증금 2000 / 55
- 시설비 3900만원(시설최고)
- 즉시법회가능

011-9279-3628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 남양주시 별내 신도시 인근 (경관 좋음)
- 262평(종교), 211평(전, 27평(도) 합계 500평
- 건평 147평(3개동)
- 2011년 신축 (법당까지 차가 들어감)
- 양도가액: 17억(융자 6억포함)

010-4299-5388

사 찰 안 내

- 강릉시
- 부지 : 500평
- 인법당 27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소나무 많은 소쿠리형
- 심야전기 보일러
- 가액: 2억 9천만원

011-452-8374
010-7164-7134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4동
- 3층건물에 3층
- 도심포교원 최적지,버스정류장앞
- 평수 40평(마당포함)
- 월세 1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보증금 합 3500만원 (절충가능)

010-5496-6417

사 찰 안 내

- 위치: 영덕군 영해면
- 평수 : 73평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가액: 전화 상담

010-2510-0955

포교원(급)안내

- 대구지하철 1호선 3분출구 3분거리, 동대구역 10분 거리
- 3층건물 중 3층
- 50평 시설. 최상급 삼존불
-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칠성탱화, 지장불 외 소불다수
- 방 2칸, 살림가능
- 보증금 3백만원 / 월 35만원
- 시설비 2천만원 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법회 바로가능

010-2296-0108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울진 바닷가 마을에서 1km 떨어진 산밑에 위치
- 법당, 산신, 용왕전
- 요사채 방5개,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 가액: 보증금 3백만원 월세 없음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9153-3813

사 찰 안 내

- 충북 옥천군, 옥천읍까지 7분거리
- 대지 505형 등기 필
- 요사채 38평, 후면 창고 15평
- 요사채 위 법당 28평 2층
- 옥외화장실 6평 내 창고재중
- 6층석탑(제주석)
- 가액: 방문시 절충 요
- 불필요 전화 특히 사절

010-7517-7037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부지 : 220평
- 법당 : 30,25평
- 요사 : 40평
- 양도 : 6억5천
- 위치 : 강원
- 부지 : 550평
- 건평 : 100평
- 차량진입, 교통편좋음
- 양도 : 3억5천만원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수행 정토 터(부지)

- 위치: 경북 영주 시내에서 15분 거리
- 산에 위치하나 지목이 밭으로 관리지역임(200m 위치)
- 산 정상까지 묘, 송전철탑 등이 전혀 없음
- 영구포란형(靈龜抱卵形)으로 백두대간이 보이며 전망 경치가 좋음
- 도로(주차장포함), 전기, 부지 정리 완료
- 11년생 금강송 9백그루(3억 상당) 무상 양도
- 총 5,300평(평당 7만원) (필요하신 분만 금 , 토 ,일 중 방문 요)

016 - 573 - 2032

주 택 안 내

- 위치: 충북 단양군 단성면 고평리
- 대지 171평, 전 합 1050평, 건 30평 외
- 황토방 약 15평, 아궁이 온돌방 3개
- 뒤는 산 조용하고 전망좋고 교통편리
- 광희나루 선착장 1분 자연 암반수
- 가액: 1억 6500만원

010-3288-1317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남구 용호동
- 시장통 사거리 ,위치 좋음 1층
- 법당, 삼존불, 산신, 신중, 후불탱화 다 맞춤
- 방1, 다락2개, 주방, 화장실 겸 샤워실
- 약 20평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1200만원(답사 후 절충)

010-4747-8796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부평 큰시장 안
- 평수 약 95평
- 법당 40평, 방4개, 창고 큼
- 월 10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삼존불, 소불 각탱화
- 유동인구 많음, 즉시법회가능
- 꼭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8754-6762

포교원안내

- 위치 : 서대문 홍은동
- 3층 건물 중 3층, 50평, 옥상전체 사용
- 삼존불, 후불, 108불 소불, 산신각 방 2, 접견실, 샤워실, 화장실
- 에어컨 2대포함,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700만원 / 월 70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10-9231-4600

포교원안내

- 양산시 북부동 동양산 농협 옆
- 평수: 90평, 방5개, 법당 35평
- 삼존불, 산신용궁, 영가단, 후불탱화, 소불 206불
- 전세 4천 5백만원 / 월 50만원
- 시설비, 비품 5500만원

010-8384-7754

포교원안내

- 위치: 강북 세무서 뒤 기업은행 사거리
- 2층 25평
- 법당, 상담실, 방, 주방 겸 거실
- 에어컨 2대, 정수기, 몸만 오시면 됩니다
- 합 1700만원
- 보증금 500만원 / 월 35만원(조절가)

010-3834-5800
010-9496-3689

불교용품 전문점

- 위치: 서울 급 양도함
- 점포 30평
- 창고 20평
- 가격은 상담 후 결정 현재 성업중
-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4055-1214

수행하기 좋은 암자 안내

- 위치: 경북 영양군 속보면 택전1리 160번지
- 대지 250평(종교부지),조립식건물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창고2, 산신각 • 일체 시설 완비
- 가액: 8500만원

010-4040-3588
054)682-8780

절 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요지(명당)
- 대지 527평
- 요양병원 가능
- 시세 60% 가격
- 가액: 14억 5천만원

010-8676-2278

사찰(급)안내

- 경기도 의정부 호원1동
- 대지 27평
- 법당 2층 조립식 약 20평
- 요사 1층 방 3개 화장실-세탁실
- 창고-소각장
- 부처님6분, 신중, 칠성, 산신, 영가단
- 교통편리 - 전철 10분, 버스 2분
- 주변에 주차할 수 있음
- 양도가액: 2억 3천만원

010-8900-4874

사 찰 안 내

- 현재 사찰 운용중 (다용도 (사용) 가능)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덕정리 (약수터내)
- 대지 197평 • 건물 2동
  1. 건평 98평 2층건물 (방11칸)
  2. 70평 1동 - 법당 약 30평 (공양 15평) 식당 15평
- 시설 : 아미타불, 관음, 약사, 지장 , 소불 후불탱화, 지장, 신중 삼선각(칠성, 나반, 산신)
- 양도가액: 2억 8천만원

010-3170-0183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둔전리 여수시내에서 20분거리
- 땅 : 총 250평, 요사채 1동
-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동
- 양도가액 : 2억(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765-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 산세 수려하고 경관 좋은 명당터
- 사찰, 펜션으로 최적지
- 대지 280평
- 건물 2동 -A동 20평(황토방) B동 : 2층 건물 -각층 40평
- 가액: 3억, 은행융자 1억 5천만원
- 실가액 1억 5천만원

010-4930-513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대웅전 산신각
- 공양간, 방3개, 황토방1개, 욕실 겸 화장실 2개
- 텃밭 400평, 주차장 100평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8백만원 월세 無, 시설비 2백만원

010-4930-51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진구 양정동
- 1층 독채 30평
- 삼존불, 방3개, 주방, 화장실 2개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5백만원 월세 35만원
- 시설비 5백만원

010-4930-5135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둔전리
- 대지 3천평 • 건물 60평 1동,컨테이너건물1동 화장실2칸1동
- 마당까지 대형차진입
- 평탄하게 완료된 전,답
- 가액은 6억

010-6253-3107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1〉 온전한 삶 위한 알아차림 수행

존 카밧진 (의학부 교수 · 미국)

'숨' 항상 이순간의 일…지혜 계발의 이상적 '닻'

〈존 카밧진의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불광출판사 刊)은 마음챙김 명상의 개발자인 존 카밧진이 초보자들에게 마음챙김 명상이 무엇인지 설명한 책이다. 마음챙김 명상은 현대인 의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인 스트레스를 비롯해 불안, 우울증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존 카밧진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시켜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어떤 것도 '의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 기억, 환상, 신체감각, 정서, 욕망들을 포함하는 자극들의 변화 흐름을 판단하지 않은 채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왔다. 본지는 이 책의 내용을 격주로 5회에 걸쳐 발췌 ·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주〉



공식적 명상: 매일 일정 시간 마련
비공식적 명상: 자연스런 방식
마음챙김 수행은 '하나의 놀이'
'자각' 배우면 삶 자체가 명상

수행의 관성에 몸을 맡기자

마음챙김은 지속적이고 특별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임으로서 계발되는 자각(알아차림)이다. 이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인다. 마음챙김은 수많은 명상 형식 중 하나다. 마음 챙김 명상 역시 1) 체계적으로 우리의 주의력과 에너지를 조절하며 2) 그리하여 우리의 경험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변화시키며 3) 우리 인간다움의 전 영역을 온전히 체현하며 마지막으로 4) 타인과 세상에 대해 우리가 맺는 관계의 전 영역을 체현한다는 점에서 다른 명상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명상, 특히 마음챙김 명상이 가는 변화의 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달려 있다.

마음챙김 명상에는 공식적인 방법과 비공식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 둘은 서로 보완적이다. 공식적이란 명상(여기서는 유도명상)을 위한 시간을 매일 일정 시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공식적이라는 것은 명상이 꾸밈없는 자연스런 방식으로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동안 삶의 모든 측면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체현된 명상은 함께 가면서 상보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이것을 우리는 '자각(알아차림) 혹은 깨어있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한다. 당신이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마음챙김 명상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출발대로서 이 유도명상을 규칙적으로 활용해 며칠, 몇 주, 몇 개월 혹은 몇 년에 걸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확인해보길 바란다.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MBSR)'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챙김 명상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MBSR 이라는 형식의 마음챙김 수행이 실제로 뇌의 구조와 기능을 흥미롭고 중요한 방식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롭고 흥미로운 과학적 연구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 특히 매우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생각과 감정에 관계 맺는 방식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도 생각해볼 것이다.

당신이 수행의 관성에 몸을 맡길 때 차차 자신의 체험과 이 책이 가리키는 내용 사이에 흥미로운 연관이 잇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귀 기울여 듣는 자세야말로 마음챙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챙김이란 정말로 소중하게 펼쳐지는 자기 삶과의 친밀감을 계발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은 실제로 정말 소중하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이상으로 말이다.

숨

한번 숨을 쉬어보라. 우리는 숨을 너무나 당연시 여긴다. 그러다가 심한 감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되면 갑자기 숨은 당신이 관심을 갖는 유일한 대상이 된다.

숨은 우리를 현재 순간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편이한 첫 번째 주의(attention, 注意)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직전의 숨은 사라지고 다음번 숨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숨을 쉴 뿐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의 일이다.

그래서 숨은 우리의 방황하는 주의를 모으는 이상적인 닻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숨은 우리를 현재 이 순간에 머물게 한다.

이것이 수많은 명상 전통에서 호흡 감각을 초보 수련자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첫 번째 대상으로 삼는 이유이다. 그러나 호흡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초심자를 위한 수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붓다도 숨에는 우리의 인간성, 특히 우리의 지혜와 연민의 능력을 계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돼 있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점차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 자체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감지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지각하는 자인 당신과,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이든 그 지각되는 대상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지각하는 자와 지각되는 대상은 자각(알아차림) 속에서 끊어짐이 없고 역동적인 하나의 전체가 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애초부터 근원적으로,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각(알아차림)이다.

물론 당신이 숨을 쉰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보자. 숨을 지속하는 것이 정말로 당신에게 달렸다면 아마도 당신은 오래전에 죽었을 것이다. 아마 당신은 숨이 아니 이런저런 것들에 온통 주의가 팔렸을 것이므로. 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당신은 조만간 목숨을 잃는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당신이 누구이든 당신의 몸이 숨을 쉬는 데 책임을 지는 것은 결코 '당신'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숨을 쉬는 데는 뇌간이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

마음챙김을 수행하는 '일'은 하나의 '놀이'이기도 하다. 마음챙김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물론 나는 정말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마음챙김이란 다름 아닌 진정으로 우리 인생 전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존재의 경쾌함과 놀이성은 안녕(well-being)의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챙김 명상의 주요 요소가 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전체 과거가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포함하고 있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자각(알아차림)과 평정, 명료성, 돌봄으로 현재 순간을 사는 데 직접적인 토대가 된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필요하다. 그것은 도공의 물레에 놓인 진흙 반죽 같은 '원재료'이다. 우리가 과거와 이상, 관념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순간(그것은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을 되찾는 것은 필생의 작업이자 모험이다.

마음챙김이란, 당신이 의도적으로 현재 순간에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당신의 목숨이 그것에 달린 것처럼 주의를 기울일 때 '생겨나는' 무엇이다. 이때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자각(알아차림) 자체이다.

자각(알아차림)은 우리 모두가 익숙하게 알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완전히 낯선 어떤 능력이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탐구하게 될 마음챙김 수행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그러나 잘 인지하지 못하는 자원)을 계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챙김의 과학적 근거

MBSR은 뇌가 스트레스를 받는 힘든 감정을 처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전두 피질의 특정 영역을 오른쪽 활성화에서 왼쪽 활성화로 전환시켜 정서적 균형을 향상시켜주고, 이러한 뇌의 변화에 상관되는 면역 체계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MBSR 훈련을 받은 사람이 현재 순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신피질의 연결망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MBSR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영역의 활성화가 더 적었으며, 자신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관계되는 연결망이 더 크게 활성화됐다. 이런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마음챙김 명상이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을 더 다양하게 계발시켜주며, 우리의 경험 자체를 가리고 채색하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정도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MBSR 훈련이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 등의 뇌 부위를 두껍게 변화시킨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또 욕망의 좌절을 포함한 이런저런 인지된 위협 등, 공포에 기반한 반응을 통제하는 변연계에 있는 오른쪽 편도체 같은 부위를 얇게 변화시킨다는 것도 이제 분명해졌다.

마음챙김은 온전히 주의력과 자각(알아차림)에 관한 것이며 주의력과 자각(알아차림)은 우리 모두에 내재된 인간의 능력이다. 그럼에도 인류 역사에서 마음챙김을 가장 세련되게 발전시키고 수행해온 것은 불교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붓다가 가르친 명상 수행은 마음을 조정하고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실상을 꿰뚫어보는 심원한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당신이 물침대 위에 망원경을 설치해놓고 달을 관찰하길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그 위에서 달을 시야에 확보하고 세밀하게 연구할 수는 더욱 없을 것이 분명하다.

마음의 경우에도 우리는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다. 우리가 마음을 관찰하고 그것에 친밀해지고 궁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우선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켜서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지, 마음 스스로의 행위 표면 아래에서 어떤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기초를 터득해야만 한다.

자각(알아차림)과 결합한 약간의 안정성도 매우 중요하며 우리의 변화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거나 절대적으로 안정돼야 한다는 고정된 이상을 갖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정 순간에 당신의 경험의 질이 어떠하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공식적인 명상과 실제 삶에서 당신이 무엇을 경험하든, 자각(알아차림) 속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마음챙김 명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자각(알아차림) 속에 사는 법을 배우면 삶 자체가 명상이 된다. 왜냐하면 자각(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것이지만 아직은 너무 낯설어 우리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삶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존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글은 '불광출판사'에서 펴낸 〈존 카밧진의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존 카밧진은



매사추세츠 대학 의과대학의 의학부 명예교수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MBSR) 클리닉(1979년)의 설립자이다. 그가 개발한 MBSR은 세계 각국의 기업, 병원, 학교, 교도소, 군대, 프로 스포츠 팀 등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의료계뿐 아니라 뇌 과학,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과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937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다.

사찰안내
• 위치: 제주시 월하동
• 평수 340평
• 건물 3동
• 가액: 7억
018-590-3583

명상과 자연물
큰계곡
자그마한 토굴 산신각으로 지은
기도처로 최고
양도가 7천만원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010-5009-1772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산청
• 부지 480평
• 후원건물 (1,2층)40평
• 법당 20평, 산신각, 약수탕
• 가액: 8천 5백만원
011-424-4969

포교원안내
• 위치: 안산 , 아마트 마트, 병원 밀집지역
• 분양평수 64평, 실평수 41평
• 법당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칠성탱화 영가단 250분
• 방사는 상담실외 2, 김치냉장고2대,
대형냉장고,소형냉장고등, 각방 에어컨 3대
• 양도가 1억 6천만원
• 월세 1천 3백/월 55만원
• 시설비 3500만원
010-4760-8791

사찰안내
• 위치: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 대지 120여평 • 임법당 20평
• 요사 15평 • 창고 7평
• 차량 마당 진입 가능
•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1억원
010-6308-7320

포교원안내
• 위치: 경북 안동시
와룡면 태리 550-1번지
• 대지 : 150평
• 건물 : 대웅전(12평),
요사채(40평), 산신각
• 가액 : 9천만원
010-4015-7145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북 구미 천생산 부근
• 건평 45평, 3층 건물 중 3층 전체 사용
• 방4, 실내화장실2, 실외화장실1, 주방2
• 에어컨2, 공양간 넓고 사용편리함
• 도시가스, 법당 앞 옥상별도 50평 사용
조용하고 깨끗함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
• 시설비 2700만원(약간 조절)
017-217-1919

토굴(급) 안내
• 위치: 충북 옥천군
안남면
지수 3길 39
• 가액: 1950만원
010-5407-8034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33년의 역사와 자산825억원의 형산새마을금고는 변함없이 전국의 많은 사찰과 좋은인연을 맺고 있으며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어 좋은 인연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대출이자 ☞ 1억 대출시 최고 58만원
❷ 대출기간 ☞ 5년 (만기시 연기 가능)
❸ 근저당설정비 ☞ 면제
❹ 대출지역 ☞ 전국 (제주도포함)
❺ 단체명의, 종단 소속사찰 모두가능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장자부인들 몸바꿔 비구로…남편들도 출가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17)

태중의 보살 마하살

부처님께서 나열성에 계실 때의 일이다. 부처님은 보살과 4부대중이 모인 법회에서 법을 설하고 계셨다. 임신을 한 어떤 장자의 아내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배 안에 있는 아이가 합장하고 경을 듣고 있었다. 부처님은 대중들에게 그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큰 광명으로 장자의 아내를 비추셨다. 대중들이 모두 배 안의 여자 아이가 합장하고 경을 듣는 모습을 보았는데, 마치 거울을 비추는 것과 같이 선명했다. 부처님께서는 여덟 가지 소리(八種聲)를 가지고 배 안의 여자 아이에게 물으셨다.

"너는 무엇 때문에 합장을 하고 경을 듣느냐? 부처님의 거룩함 때문이냐?"

태아가 대답했다.

"세간 사람들이 모두 10악행을 하므로 저는 10선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세간 사람들이 생사를 끊지 못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사문에게 공양하지 않는 이유로 합장을 하고 경을 듣는 것입니다."

여자 아이는 이 말을 마치자마자 태어났는데, 마치 태자가 오른쪽 겨드랑이로부터 태어나는 것과 같았다. 땅은 여섯 가지로 진동했고, 허공에서는 저절로 하늘의 음악이 울렸다. 하늘의 꽃들이 비처럼 내리고, 수레바퀴만한 연꽃엔 천 개의 꽃잎이 달렸다. 여자 아이는 이내 연꽃 위에 앉았고, 제석이 하늘의 옷을 가지고 와서 여자 아이에게 주었다. 여자 아이가 말했다.

"그대는 아라한이고 나는 보살입니다. 그대와 나는 같은 무리가 아니므로 나와는 동류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따로 옷이 있습니다."

사리불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여자 아이는 어느 나라로부터 왔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여자 아이는 동남방의 부처님 세계 청정국(淸淨國)으로부터 왔는데, 여기서는 10만 부처님 국토(佛刹)만큼 떨어져 있다."

문득 본국의 옷이 저절로 허공에 나타나면서 펄럭거렸다. 여자 아이가 날아온 옷을 입었더니 그 자리에서 5통을 얻었다. 여자 아이가 옷을 다 입고 나서는 곧 연꽃 위에서 내려와 부처님 앞으로 나아갔다. 여자 아이가 한 번 발을 들어 올리자 땅이 여섯 가지로 진동했다. 여자 아이는 땅에 엎드려 부처님께 예배하고, 세 번 "나무불"을 외웠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지금 좌중에는 장자의 부인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원하오니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경을 말씀하시고 남자 몸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 또한 너를 남자가 되게 하지 않았고 너를 여인이 되게 하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의 행으로부터 얻었을 뿐이다. 빨리 남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무엇이냐 하면, 발심하여 보살의 도를 닦는 것이다. 또 여인의 몸을 안에서 스스로 가만히 살펴 볼 것 같으면 마치 기관(機關)과 같아서 뼈마디가 서로 받치고 있으면서 그 위에 힘줄과 가죽만이 덮여 있는 모양이다. 여인이 항상 남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두꺼비가 감히 낮에는 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때에 좌중의 장자부인 75인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기뻐하면서 앞으로 나와 땅에 엎드려 부처님께서 예배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희들은 원합니다. 보살의 마음을 내어 남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만약 남자의 몸이 되지 않으면 저희 들은 끝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때 75인의 장자들이 사위국으로부터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서 그의 부인들이 모두 부처님 앞에 있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미 우리들의 아내를 잃어버렸구나.'



삽화 · 강병호

사리불에게 물었다.

"이 여인들은 저희들의 아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리불은 대답했다.

"비구니가 되려 한답니다. 그대들은 허락하겠습니까?"

장자들은 대답했다.

"먼저 저희들부터 비구로 만들어 주십시오."

부처님은 장자들을 제자로 받았다. 장자들은 저마다 손에 발우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 앞에 예배했다. 이때 75인의 부인들은 저마다 구슬 팔찌를 벗어서 모두 부처님께 공양했다. 구슬은 공중에서 저절로 75개의 구슬 휘장과 구슬 영락(瓔珞)으로 변했다. 그 휘장 안에는 칠보로 만든 평상이 있었고, 그 위의 자리에 앉으신 부처님 곁에는 수없이 많은 보살들이 경을 듣고 있었다. 75인의 부인들은 이 변화를 보고 모두 크게 기뻐하더니, 부처님의 신력으로 이내 허공으로 날아가서 있었다. 허공에서는 저절로 꽃이 생겨나더니 부처님 위에 꽃비를 뿌렸다. 부인들은 허공으로부터 내려오면서 남자의 몸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아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희들은 원합니다. 부디 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계를 주어라."

여자 아이는 저절로 변화하여 만들어진 꽃 일산을 가져다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천상천하에 사람을 제도하는 스승이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꽃을 부처님께 올리십시오. 천상천하의 스승께 일산을 올리면 이후에 어머니도 천하의 일산이 되실 것입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또 말했다.

"이제 보살의 마음을 내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대답했다.

"내가 처음 너를 배었을 때에 꿈속에서 늘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을 뵈었기에 3독의 마음의 없어지고 몸이 안온했다. 나의 배 안의 아이가 바로 보살마하살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편안하고 고요했다."

이때 보살의 마음을 내어 어머니가 꽃을 가져다 부처님께 올렸다. 그러자 땅이 여섯 가지로 진동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사천하의 별은 오히려 그 수를 알 수 있으나, 이 여자 아이가 전후에 제도했던 부모는 그 수를 알 수 없을 것이다." (〈태중녀청경〉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⑰



소중한 이 시간…전쟁이라니!

전쟁이라니

요즘 한반도는 '전쟁'이란 말로 시끄럽다. 아니 이미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총성이 들리지 않았을 뿐, 남북이 서로 주고받은 일련의 입장들은 서로의 살점을 찢어내는 전쟁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고 해야 꼭 전쟁은 아니다. 서로를 아프게 하고 주변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으니 사실상 '전쟁'이다.

어떻게 해서 찾은 평화며, 어떻게 해서 다시 일으킨 나라인가. 지금의 평화와 발전이 있기까지 우리는 안타까운 전쟁의 역사를 안고 살아야 했다. 말하기조차 조심스럽고 미안해야 하는 역사와 '오늘'이다. 이렇듯 어느 나라, 누구의 땅보다 소중한 이 나라에 다시 '전쟁'이라는 말이 떠돈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선조들에게나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자손들, 태어날 자손들에게까지 미안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며칠 전 서울에 올라갔었다. 함께 뉴스를 보던 외손주 원영이가 말했다.

"할머니! 진짜 전쟁 나는 거예요? 왜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나면 우리 죽어요?"

시간은 금, 남은 시간 '보은'에 쓸 것
한반도에서 '전쟁' 다시는 안돼
매 순간 열심히 살아야

정말 슬픈 대목이었다. 불과 반세기 전에 우리는 원영이와 같은 우리의 자식들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잃어야 했었다. 그런데 우리의 어린 아이 입에서 다시 '전쟁'이란 말을 들어야 하는가. 전쟁이 뭐냐고 물어보던 손주의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아이들이 다시는 전쟁의 화마로 희생되지 말아야 한다. 맘껏 뛰어놀며 힘차게 걱정 없이 잘 자랄 수 있어야 한다. 아니 전쟁이란 말 자체를 몰라야 한다. 적어도 우리 한반도의 아이들은.

손주 원영이가 다시 말했다. "할머니, 전쟁나면 우리 할머니한테 가면 되지?"

봄볕에 꽃잎이 커지고 있다. 다시는 한반도의 한 가정 한 가정에 전쟁이란 단어가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북한에도 똑같이 우리의 아이들과 같은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남북'을 떠나 '정치'를 떠나 그 아이들만 생각해도 전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시간

"시간은 금이다." 시간을 쓰는 일은 돈을 쓰는 일과 같다. 한 시간을 살고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사는 것은 오백원, 천원, 만원. 지갑 속의 돈을 하나 씩 꺼내 쓰는 일과 같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쓰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자문해 본다. 돈을 쓸 때와 마찬가지로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아깝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의미 없이 써버린 돈처럼 의미 없이 흘러간 시간들이 많았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살아왔다. 자식으로 살았고, 부모가 되어 살았고, 이제 할머니가 되어 살고 있다. 나는 몇 점짜리 자식이었으며, 몇 점짜리 부모였으며 몇 점짜리 할머니일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다 쓰고 다른 세상의 시간을 써야 할 때가 오면 그때 나에게 주어진 점수는 몇 점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 나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나 한 사람 얻기 위해 내 어머니는 산고를 겪어야 했고,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애쓰시며 키워주셨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사회에 나가 살 수 있도록 지식과 교양을 가르쳐 주셨고, 부처님은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한 지혜를 가르쳐 주셨다. 수많은 인연이 나와 함께 했음이다. 그 많은 인연이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그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바꿔 말하면 많은 빚을 진 것이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 내겐 과분한 것이다. 더구나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음은 정말 과분한 은혜다.

이 과분한 은혜들을 다 갚고 가기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써버렸다. 나의 '시간'이란 지갑에는 이제 시간이란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많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껴서야 할 것 같다. 아껴 모은 금과 같은 시간을 그 은혜를 갚는 것으로 쓰고 싶다. 그리하여 나의 인연들로부터 많은 점수를 받고 싶다.

무심한 봄바람

아파트 화단에 목련나무들이 하얀 꽃잎을 피우기 시작했다. 꽃잎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목련은 제법 많은 꽃을 피웠다. 그런데 다음 날, 봄비가 내리고 나서 봄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목련들을 떨어뜨렸다.

힘없이 떨어진 목련 꽃잎이 화단을 덮고 있었다. 활짝 핀 목련을 기대했는데, 속이 상했다. 봄비와 봄바람이 심술을 부리는 것 같았다. 춥고 긴 겨울을 견디며 피워 올린 꽃일 텐데. 나는 알 것 같다. 목련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모든 것에는 시련이 끼어들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봄비가 내리지 않고 봄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목련은 더 많은 꽃을 피웠을 것이다.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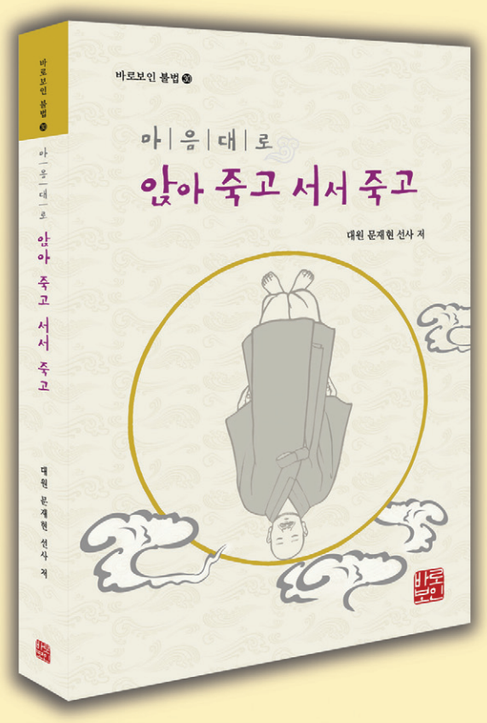
우리도 생각지 못한 시련으로 힘들어 할 때가 있지 않은가. 시련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받아들이고 견뎌야 할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순간 한 순간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이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오직, 불법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

마 | 음 | 대 | 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대원 문재현 선사의 저서인 이 책은 생사를 자재한 분들의 앉아서 열반하고 서서 열반한 내력은 물론 그분들의 생애와 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수록해 놓았다.

부처님께서는 불가의 이런한 열반과 신통을 명예욕이라고 하여 밖으로 들추지 말라고 하셨다. (중략) 우리들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자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사그지 않는 항기가 될 것이다.

일러두기 중에서...

☎ 031-534-3373 바로보인

금강경 10폭 (한정 100작품) 서예

佛자, 달마도, 반야심경 족자

50여년 서예 인생을 회향하면서 인연있는 불자님들께 저렴한 보시금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 금강경 10폭 (병풍 작품용)
크기 40×160 10장 금강경
※고급 케이스 포함,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스님들 불사용으로도 좋습니다.



■ 佛자, 달마도, 반야심경 족자
크기 두종류 : 40×130(小),
40×190(大)
※고급 케이스 포함,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스님들 불사용으로도 좋습니다.

전국 어디든 고급케이스에 넣어 직접 받아보실 수 있도록 발송하여 드립니다.

書峯書院 대전 중구 오류동 154-4번지 센트리아오피스텔 601호
문의 : 042)534-8248. 010-2426-8975
書峯 박준영 합장



대행 스님

정도에 넘치면 해가 오니 정도에 넘치지 않게 하라

먼데 각 지원에서 어저께 오셔서 오늘까지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한마음으로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섯 가지 마음의 향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말씀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렇게 하는 수행 자체가 바로 그 길을 들어서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계향(戒香)이니' 했습니다. 계향 · 정향(定香) · 혜향(慧香) · 해탈향(解脫香) ·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까지 다섯 가지의 그 목표를 세운 겁니다.

지금 없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염불할 때나 예불 올릴 때도 그렇고 항상 그것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하면서도, 자기가 그것을 그저 입으로만 올려서 염만 하면은 되는 줄 알고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자기 마음을 바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걸 발전시키고 소신껏 계발시키고 해서 자기의 능력을 바로 창조로까지 끌고 가야만 우리가 자유인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관(觀)하라. 관하라.' 해도 그 관하는 도리를 완전히 터득을 못해서 항상 미급하게 그저 놨다 뺐었다, 놨다 뺐었다 이렇게 가곤 있습니다. 하인한테 어떤 심부름을 시킨다 해도 믿고 "얘, 아무개야. 이거 사 오너라." 하고 돈을 맡기는데 하물며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집합소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못 믿어서 꺼냈다 뺐었다, 줬다 뺐었다, 심부름을 시키는 데도 뺐었다 줬다, 줬다 뺐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심부름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님네들도 더 한층,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창조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스님네들이나 살림하는 유발승들이나 가만히 틀고 앉아서 게으르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것이 그대로가 참선이니라. 참선 아닌 게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행을 제대로 못해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거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한테 광력 · 전력 · 자력 · 통신력이, 그 재료가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료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재료를 끌어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향(戒香)이니…. 하하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마는 모르시는 분들은 열 마디, 백 마디 해줘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부처님의 법에 누가 되지 않게 해야 하며….' 했습니다. 또 유발 거사든 유발 보살이든 또는 출가한 사람들이든 간에 자기 은사에 누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에 누가 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내 몸뚱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깐 모든 상대성이 생기고 모든 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이죠.

그러니깐 모든 거를 내 탓으로 돌려야지 남의 탓으로 돌린다면 아니 되죠. 잘못된 것도 잘된 것도 다 내 탓으로 돌리고 일체를 내 탓으로 돌림으로써 남의 탓은 안 하게 됩니다. 남한테 증오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부질없는 미움도 안 생길 거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스님네들의 테두리 안에서도 그렇지마는 모든 게 자기 있는 데가 절대로 도량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탓으로 돌려라. 내 깊은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내면 마음속에 맡겨 내 탓으로 돌려라. 그리고 내 탓으로 돌리니깐 부드러운 말이 저절로 나오고, 부드러운 행동이 저절로 나온다. 그러니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 모두를 그렇게 화목을 도모하고 의리를 도모하고, 가짜 사랑 아닌 진짜 사랑을 베풀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내 탓으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못되는 거는 내 탓으로 돌리고 한생각에 잘 마음을 내서 내 탓으로 돌려놓고 이러는 것이 바로 계향 아닌 계향입니다.

그리고 정향! 정향이니, 정향(定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면세계에 내 자성 주인공(自性 主人空)을 세워놓고 잘못되는 것도 잘되게끔 마음을 한생각 돌려서 거기 놓고 '너만이 바꿀 수도 있지 않아.'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속에서 구정물이 나오는 거니까 그 속에서 새 물도 나오게 할 수 있다.' 하고 관하는 겁니다. 모든 일체를 다 말입니다. 그렇게 믿고 거기에 놓고 잘되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자기가 좋은 일을 했든지 좋은 말을 해줬든지 좋은 행동을 했든지 감사하게 거기에 생각해서 놓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속에서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정향입니다. 이건 입으로만 불어서, 입으로만 그저 아무리 나팔을 불었던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이 차다 뜨겁다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먹어보는 사람이나 뜨거운지 찬지 미지근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칠맛을 알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먹어보지 않는다면 뜨거운지 찬지 얘기만 들었지 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깐 각자 여러분이 진짜로 내가 체험하고 다스리면서 넘어가야 할 일은 넘어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혜향(慧香)이니,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내면세계와 물질세계를 둘로 보지 않으면서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하면서, 즉 말하자면은 체험하고 또 체험하는 것이 바로 혜향입니다. 이것을 둘로 보지 않으면서, 듣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지 않는다면 해탈이 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해탈향(解脫香)이니, 만물만생 그 자체를, 그 무명에 묶였음을 풀어서 여여하게 다스려 나가는 것이 바로 해탈향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집이 갈라지지가 않고 무너지지가 않듯이 계향을 아주 철저하게 잘하고, 정향을 철저하게 잘해야만이 해탈향 · 혜향 · 해탈지견향이 스스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탈지견향이니' 했습니다.

그러면 삼라만상 일체 만물만생이 보살피고 느끼고 그것이 항상 밝아서 걸림 없이 구족한 것을 우리가 해탈지견향이라 이름하는 겁니다. 일체 만법을 내 마음 하나로 인해서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면서, 반복하면서 돌아가는 상대성 원리. 이 살림살이. 이 모두를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하고 터득을 안 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느끼고 다스리고, 실험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금 시대에 생각하고 뛰고, 뛰면서 생각하는 이 마음의 참선입니다. 이 마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기여할 수도 없고 발전할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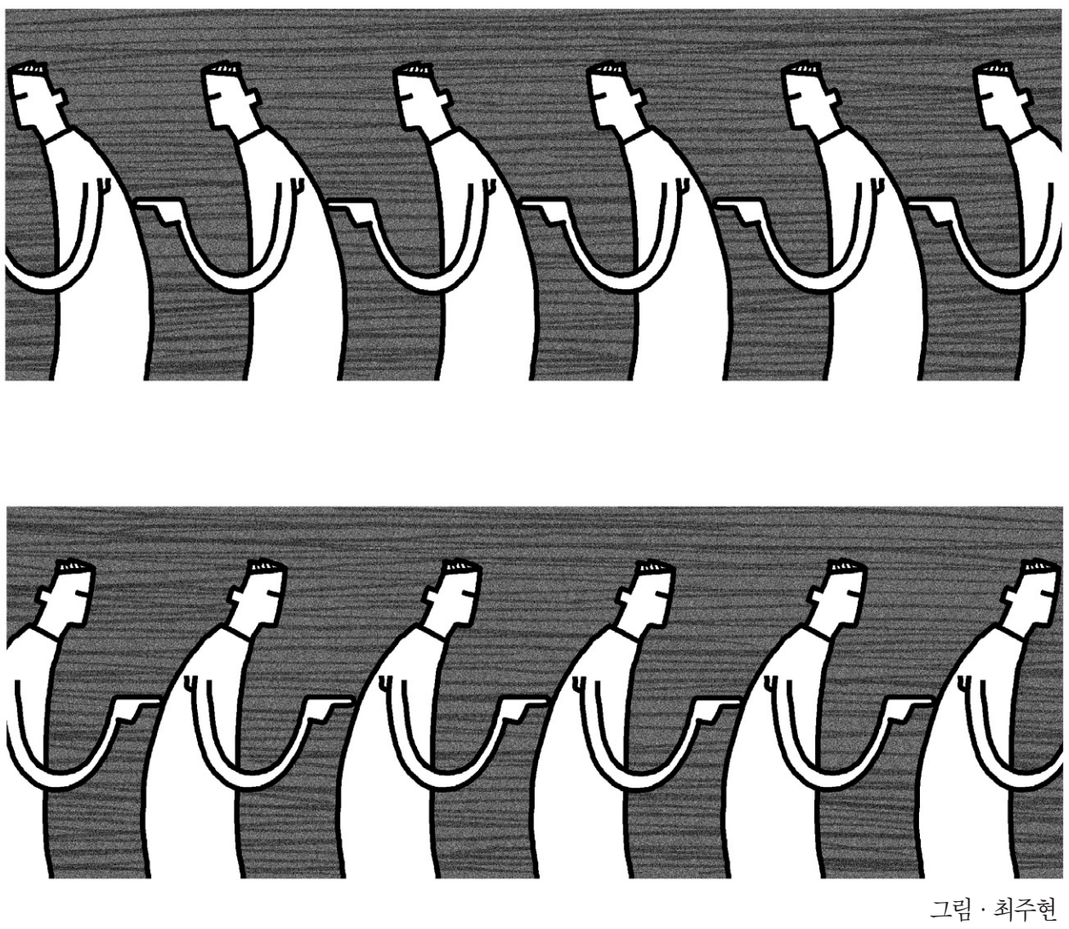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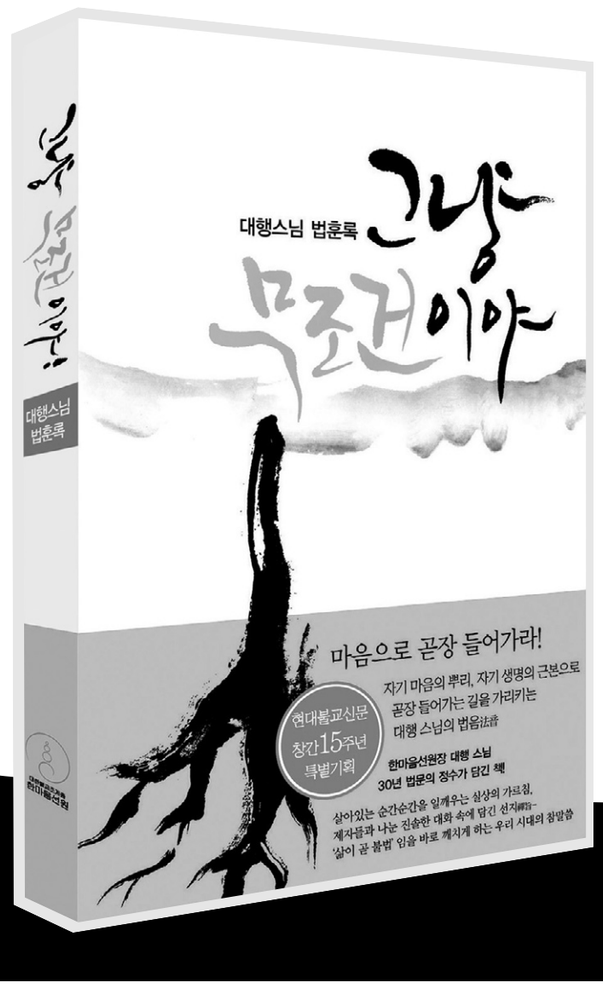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이제는 정신계의 어버이로서 홀랑 벗어나야 합니다

☞ 29면에서 계속

수도 없고 창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떠나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문제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죽는다면은 지금 이 시대가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무명을 쓰고 어떤 모습을 쓰고 나오든지 간에 이 세상으로 다시 나올 땐 미래이자 현실입니다. 그래서 삼세에 지은 모든 일이 유전성으로 또는 영계성으로 업보성으로 세균성으로, 내가 나쁜 일 또는 악한 일 모두를 행한 것이 바로 업보가 돼서 삼독이 된다는 얘깁니다. 삼독. 그러니깐 삼독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일, 오늘. 내일이자 오늘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교차로를 연방 들고 넘으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며 가는 사람도 역시 그 삼독을 면치 못한다 이런 소립니다.

이 삼독을 면치 못하는 원리는 내 마음이 툭트이지 못해서입니다. 내 마음이 한계성을 느끼고 살아오면서 지닌 그 관습에 젖어가지고 한 치도 나가지 못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요건 요렇게 해야 되고 요건 요렇게 해야 되고, 꼭 어디를 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고, 문을 열고 나와야 하고,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고, 불에 들어가면 타 죽고 또 무서운 데 가면은 전부 무서워서 죽고, 귀신에 말리면 그냥 무서워서 죽고 이런 생각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를 잘못 가면 안 되고 삼재가 들리면 안 되고, 안 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온통 안 되는 것뿐이죠.

그래서 오간지옥고를 받는다 하는 거는 땅 끝에서 국내 밥내도 냄새 맡지 못하는 게 오간지옥입니다. 전체가, 전체가 한데 합쳐진 게 오간지옥이에요. 그런데 오간지옥이 무슨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찰나찰나에 나한테 용도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살 만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기고, 살 만하면 또 일이 닥치고, 이게 해결되면 저게 터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지. 그러니 지옥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지옥을 살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바로 승천해서 천당에서 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삼독을 면하려면은 그런 그 마음의 관습에서 떠나야 될 텐데 삼독을 면하지 못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얘깁니다. 한 치도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자유스럽게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가지고도 내 마음대로 못 하니 이거를 어떡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한다면은 이거는 노예지 자유인이 아닙니다.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처럼 다 타고나서 부처님은 눈이 셋입니까? 코가 둘입니까? 여러분도 눈 달리고 코 달리고, 부처님도 눈 달리고 코 달리고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인간이었어요. 그랬는데 왜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고 왜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까? 과감하게 말입니다. 과감하게 뛰어넘어야죠.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입에 밥 들어가지 않을까봐 걱정, 옷 헐벗을까봐 걱정, 거리로 나앉아서 잘까봐 걱정, 죽을까봐 걱정. 이런 걱정을 하다보니까 과감히 뛰어넘을 수 없는 옹졸한 마음이 돼서 항상 노예로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과감하셔야 됩니다.

마음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몸뚱이를 두고도 우주 탐사를 할 수도 있거니와 이 지구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거니와 내 집도 갔다 올 수 있고, 내 회사도 갔다 올 수 있고, 모두 갔다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발 한 짝도 어디 놓여 있는지, 맛있는 음식을 얻다 뒀는지도 알 수 있죠. 그러고도 못 믿습니까? 아까 계향 · 정향 · 혜향 이렇게 해서 혜향까지 탁 둘 아니게 관찰하고 체험하고 넘어갈 수 있다면 바로 해탈은 스스로서 오는 것이고, 해탈지견향은 스스로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독을 제거한다면….' 하는 소립니다. 삼독을 제거한다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 한데 한마음으로 나투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나투어 주신다. 나투어 주시면 몸과 마음이 항상 밝아서 말입니다, 일체 고에 물들지 않고 번뇌에 물들지 않고, 번뇌나 고나 일체 굴레에서 벗어나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저 언덕이라는 것도 이름해서 언덕이지, 우리가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 교차로, 요것을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것도 바로 공즉시색(空卽是色)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걸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정신계와 물질계, 이 몸과 정신, 마음이 바로 공색(空色)입니다. 색(色)이 공(空)이요, 공이 색이니라. 꽃이 필 때는 색이요, 꽃이 질 때는 공이니라.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어디다가 대도 연결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 돌아가는 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어떻게 글로 다 쓰리까.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 세밀하고 아주 묘한 도리는 바로 자기 마음속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해나가는 그 방도가 바로 혜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혜로워야…. 그래서 계향도 정(定)이요 혜향도 정이다. 그 정을 안다면 해탈향은 물론이거니와 해탈지견향도 그대로 포함된다. 그래서 오신통을 이룬다 하더라도 오신통을 이뤘다 하지 말라. 오신통을 벗어나야 오신통을 굴릴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신통을 구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해탈을 구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부처를 구하려고 애를 쓰지만,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은 해탈을 구하려고 아니 해도, 부처를 구하려고 아니 해도 저절로 구해진다 이겁니다.

욕심이 앞서면 바로 눈이 캄캄해집니다. 욕심이 앞서면 문을 찾아서 나고 들어야지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구하고, 자기 자신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진짜 사랑 아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야만이 문 아닌 문이, 전체가 문이야! 문 아닌 곳이 하나도 없어. 문 찾아들고 나는 사람들은 소인이나 하는 짓들이고, 대인은 문이 있으나 벽이 있으나 없으나 그대로 문을 통달해서 그대로 한 도량이지. 그러니 마음이야 한 도량에 어찌 넘나들 수 없겠느냐 이겁니다. 허! 마음이야, 모습이 있는 거든 없는 거든 저 천당세계든 지옥세계든 인간세계든 마음이야 어찌 걸려서 못 가고 못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네 마음부터 알아야 일체 만물만생의 마음을 알 수 있느니라.' 그 마음을 알아야 응신으로 화해서 여여하게 어떠한 용도든지 나투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모두 이 마음공부를 하면서도 기복에 젖기도 하거니와 기독교든 카톨릭교든 불교든 모두가 그냥 기복에 젖어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어쩌면 그렇게, 외국에 가봐도 그렇고 한국을 봐도 그렇고 어쩌면 그렇게 기복으로 철석같이 모두 노예가 됐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한 세상 캠핑 왔다가 홀가분하게, 목마르면 물 마시고 말입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자고 싶으면 자고 똥 마려우면 시원하게 똥을 누고. 아, 사람 사는 것이 이만하면 족하지, 뭣이 따분한 게 있으며 뭣이 답답한 게 있으며 뭣이 그렇겠습니까마는 여러분은 그 마음의 노예가 돼가지고 한 발짝도 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사랑을 하지 말랬나요, 누가 돈을 가지고 살질 말랬나요, 좋은 집을 갖고 살질 말랬나요? 정도에 넘치면 해가 오니 정도에 넘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네 몸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인밖에 아니 되느니라. 그리고 네 자생중생의 집합소니라. 자생중생들은 안에서 심부름을 하고 바로 외부의 집합소, 너 심부름꾼은 바로 겉에서 심부름을 해주느니라. 그러니 안에서 심부름을 해줘야 겉에서도 심부름하게끔 건강하게 뛰고 다닐 거고, 안에서 심부름을 안 해준다면 겉의 몸뚱이도 한 치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자생중생을 먼저 제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려면 계향도 지켜야 하고, 정향도 지켜야 하고, 혜향도 지켜야 하고, 해탈향도 지켜야 하고, 해탈지견향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지키되 거죽으로 물질로다가 지키지 말라. 내 마음의 향. 다스리는 마음. 이 다스리는 마음이 첫째는 화목해야 하고 성내지 말아야 한다. 남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푸근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써 행을 해줘야 된다. 이 모두가 내 탓으로 돌린다면 하나도 남이 미울 게 없고, 불안하게 해줄 게 없고, 불안하게 말해줄 게 없고,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은 내가 몰랐을 때 내 모습으로, 내가 잘못했을 때 내 모습으로 보라 이거죠. 그렇다면 해탈은 물론이거니와 해탈지견향까지 해서 구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살아서 구족해야지 죽어서 구족할 리가 없죠. 살아서 먹은 마음이 죽는다고 더해질까요?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인간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한번 두꺼비가 됐다 합시다. 개구리가 됐다 합시다. 그러면 개구리의 습성이 딱 붙어서 그 습성 떼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개구리의 습성, 뱀의 습성, 개의 습성, 돼지의 습성, 소의 습성…. 이 갖은 동물에서 곤충에 이르기까지 전부 그 각계각층의 천차만별로 돼 있으면서 살아나가는 그 습성을 떼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계단 없는 계단을, 곤충에서부터 태로 날 때까지 그 계단을 올라서려면 어느만큼 거쳐야 되며 그 습성을 어느만큼 떼야만 인간의 모습을 타고 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타고 나서 이제는 정신계의 어버이로서 홀랑 벗어나야 될 텐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면서 회사에 들어가서 좌천되듯이 좌천이 돼서 되겠습니까? 인간 모습을 타고났으면 역시 그 모습이 다해지기 전에 이 도리를 알고 넘어서야죠. 이 모습으로 살다가 만약에 돼지가 됐다 합시다. 돼지같이 살아서 돼지가 됐다 하면은 속으로는 인간의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돼지 모습을 썼으니 돼지 대접밖엔 못 받죠. 어쩌겠습니까? 의식이, 사람의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허, 아무리 꿀꿀대고 눈물을 흘려도 그건 돼지 대접밖엔 못 받습니다.

이것이 내 앞에 닥치지 않았으니까 지금 아주 너그럽게 그냥 '뭐가 그래? 죽으면 그만이지.' 아, 이러고 아주 태평하겠지만 말입니다. 허, 그렇게 태평한 게 아닙니다. 무섭고 무섭고 에누리 없는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아주, 그 입력을 해놓으면 틀림없다고 하죠. 그러나 더 무서운 컴퓨터는 사람의 숙명통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다 입력이 되는 오신통의 컴퓨터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음먹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나가는 그것이 일거일동 자동적으로, 자기가 아는 거는 자기가 아는 대로 그냥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생각이 안 듭니까? 하하하.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1993년 4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여러분은 왜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고
자기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까.
과감하게 뛰어넘어야 합니다.
입에 밥 들어가지 못할까봐 걱정, 옷 헐벗을까봐 걱정,
거리로 나앉아서 잘까봐 걱정, 죽을까봐 걱정.
이런 걱정을 하다보니 옹졸한 마음이 돼서
항상 노예로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감하셔야 됩니다.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품격 ● 지장도량 / 관음도량 (구화산. 황산. 보타산. 낙가산) 성지순례 7일 – 139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성지순례 4일 – 9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 성지순례 4일 –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석가장)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낙산)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품격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직항) 6일 – 139만원
품격 ● 스리랑카 정통성지순례(직항) 7일 – 199만원

불탑의 나라 미얀마
초특가 확정출발 5월22일,29일(단 2회) 양곤/바고/시리암 5일 90만원
양곤/바고/시리암(직항) 5일 – 99만원
양곤/바간/헤호 5일 – 159만원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169만원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황금파고다/철야기도 가능) 7일 – 요금문의

(주) 마하연 투어 ☎02)365-7747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법당장엄 5층 목탑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 자 : 1판



▣ 2자 : 4판



▣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90만원



▣ 크 기 : 높이 120cm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가로, 세로 20cm
가격 35만원

주문문의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불자 세상보기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불교문화



박상진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YouTube)'를 장악하고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것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필자는 국악인으로서 지난 3월 25일 KBS 9시 뉴스를 통해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우리의 전통 음악 장단인 '휘모리 장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강남 스타일'의 작곡가는 '휘모리 장단'을 알고 작곡한 것이 아니라 그 장단은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한국적인 DNA로서 작곡자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표현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강남 스타일'은 소위, 한류 상품으로 기획되어진 것이 아니다.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 네티즌들의 입소문을 타고 그야말로 자생적인 대박을 친 것이다. 그 동안의 한류 문화 상품과는 태생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 본질적인 차이에 바로 한국의 전통 문화가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몇 년 전부터 '한류'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MBC드라마 〈대장금〉을 꼽지 않을 수가 없다. 〈대장금〉은 쉬운 스토리 라인에 우리의 전통 음식을 소재로 하여 외국 사람들에게 흥미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후에 수많은 한국 드라마들이 해외에 수출되어 좋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대장금〉만큼의 성공사례는 아직 없다. 〈대장금〉은 아랍권에서 8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과연 〈대장금〉과 '강남 스타일'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인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인기를 끈 것은 단연 '말 춤' 덕분이다. '유튜브'에서 4월 17일 현재 15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강남 스타일' 뮤직 비디오에는 이 '말 춤'이 코믹한 상황 속에서 흥겹게 펼쳐지고 있다. 춤이란 곧 리듬을 뜻한다. 국악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장단이다. '강남 스타일'의 음악과 '말 춤'을 보고서 혹시 '덩실 덩실'이라는 표현이 떠오르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꿍짝 꿍짝'이 생각나도 좋다.

어쨌거나 '강남 스타일'의 리듬은 국악인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한국적인 전통 장단을 생각나게 했는데, '휘모리 장단'이 바로 그것이다. 굳이 음악적인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강남 스타일'은 덩실 덩실 신명나다, 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해외 TV쇼에서 '말 춤'을 따라 추는 서양 사람들의 표정이 생각난다. 무언가 어색하지만 재미있고, 어렵지만 신이 나서 어떻게든 따라 추려고 노력하는 듯이 보였다. 그들에게는 '덩실 덩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무척 재미있어 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가 바로 '특이함'이다. 특히나 미국과 같은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일수록 '특이함'이 유행의 관건이 된다. 외국 사람들에게 '강남 스타일'은 특이함 그 자체이다. 동시에 〈대장금〉도 그들에게는 특이하다.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그들에게는 특이한 것이다. 한류의 진정한 승패는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우리 전통문화의 근간은 바로 불교이다. 때문에 한류 콘텐츠에 불교가 앞장서야만 한다. 그렇다고 종교적인 접근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서양 문화는 곧 기독교 문화이지만 그들의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기독교를 떠올리지는 않는다. 콘텐츠의 이야기 속에, 콘텐츠의 형식 속에 불교적인 아이디어나 분위기가 접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불교는 넓은 의미에서 민속과 토속의 개념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지 않은가? 한국적인 장르영화로 세계적인 감독으로 우뚝 서고 있는 봉준호 감독이 새롭게 제작 중인 〈설국열차〉 촬영장에서의 에피소드가 재미있게 회자되고 있다. 〈설국열차〉의 배우와 스테프는 대부분이 외국 사람들이었는데 촬영 전에 의례 고사를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고사 마지막 순서로써 지방을 촛불에 태워 날려 보내는 순간에 몇몇 외국 스테프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형식적인 일이 그들에게는 황홀하고 감동적인 순간이 되었던 것이다. 문화 콘텐츠가 각광을 받는 시대가 왔다. 불교가 과거에 자동차나 TV를 만들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콘텐츠는 만들 수 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무기로 한 콘텐츠 육성에 불교가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이다.

社說

진정한 행복과 자비 넘치는 봉축을

4월 23일 광화문 봉축 점등식을 시작으로 봉축위원회가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인 올해의 봉축 표어는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이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정신으로 정진해 모두 함께 의지하며 희망의 길, 행복의 길을 향해 걸어가자는 의미다. 다시말해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보살 정신으로 이웃들을 보듬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자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122호 연등회의 본 행사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조계사 우정국로와 종로 일대서 열린다.

이번 연등회 특징 중 하나는 처음으로 연등회를 위한 자원봉사단 '연등회 서포터즈(Supporters)'가 대한불교청년회 주관으로 구성되어 봉사활동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한국인과 외국인 청년, 대학생들로 구성되는 연등회 서포터즈는 5월 11일 한국관광공사가 모집해 외국인 관광객 위한 연등 만들기 및 연등행렬관람 행사를 지원한다.

지난달 취임한 새 교황 프란치스코 1세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스스로 가난해야한다"면서, 앞으로 로마 가톨릭을 이끌어갈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료 추기경으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말라는 충고를 들었다면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을 따라 이름을 정했다고 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가난한 사람들의 수호자이자 평화와 청빈을 상징한다. 교황의 말에 전세계의 수많은 이들이 감동하고 환호를 보냈다.

우리 불교도 올해 봉축을 맞아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는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성찰하고, 이웃과 모든 생명들에 대한 동체대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것이 바로 봉축을 맞는 우리들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다.

민관연대 어린이집, 불교계 관심 가져야

오는 4월 30일 서울 성북구 적조사에 새로운 개념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선다. 적조사가 위탁 운영하는 가람어린이집은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관공동연대 방식의 어린이집으로 불교계에서는 적조사가 최초로 개원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국공립·사립 어린이집과는 달리 민관연대 어린이집은 기존 건물을 활용해 운영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종교시설 등에게는 사회 공헌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적조사의 경우도 기존에 있던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해 어린이집으로 그 위상을 변모시켰다.

이 같은 민관연대 어린이집은 서울 도심 사찰들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만 한 복지 아이템이다. 서울시는 민관연대를 통해 약 69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고 이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불교계의 참여는 저조하다. 지난해 선정돼 종교 단체의 부지나 건물을 제공받아 설립되는 민관연대 어린이집은 22곳이다. 이중 17곳이 개신교 교회이며, 4곳만이 사찰이다. 올해에 접수된 종교단체 민관연대 어린이집도 11곳 중 10곳이 교회인 상황이다.

사실 서울 도심의 적지 않은 교회는 부설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관연대를 통한 어린이집 설립은 불교계가 관심을 가져할 복지 아이템인 것이다.

영유아 보육문제는 한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이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200여 곳의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민관연대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도 커진다는 의미다. 서울 도심 사찰들은 어린이 포교와 사회 공헌을 함께 할 수 있는 민관연대 어린이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발언대

지율 스님 다큐 1만 명 돌파

환경 운동가로 잘 알려진 지율 스님이 감독한 다큐 영화 '모래가 흐르는 강'이 누적 관객 수 1만 명을 돌파했다. 다큐 영화 시장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일이다. 스님의 영화에 대한 불교계 인사의 소감을 들었다. 편집자 주

생명평화 운동의 전환점 되길

지난 3월 14일 한국불교의 대표종단 조계종 총무원이 지율 스님이 감독한 다큐 영화 '모래가 흐르는 강'의 시사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포교원장 및 부·국장급 스님들이 모두 참석한 이 시사회는 큰 의미를 갖는다.

선방에서 수행하던 비구니스님이 선방을 나와 자연(천성산과 내성천)과 생명을 지키고자 다섯 번의 단식을 수행했다. 그것은 수행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살신성인의 큰일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율 스님은 일부의 동료스님으로부터, 불교계로부터, 그리고 일반 국민들로부터 독단적이고, 타협할 줄 모르고, 세상물정을 모르고, 너무 감성적이지 않냐는 등 수많은 질시를 당하기도 했다. 그래서 스님은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율 스님의 영화 '모래가 흐르는 강'은 정말 잊혀졌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있다. 지율 스님이 내성천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성천의 문제는 곧 4대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잘못된 사업도 정부나 대기업이 하면 어쩔 수 없다거나, 완공된 사업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몽상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타파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곧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지율 스님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고, 지금의 한국불교가 한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아무쪼록 한국불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생명평화 운동의 큰 전환점 그리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고대한다.



이병인 부산대 교수
(조계종 환경위원)

삶이 그대로 강이 된 지율스님

환경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이를 개선시키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율 스님은 달랐다. 생명평화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자연을 지켜온 스님의 모습은 화두를 든 수좌의 모습과 같았다.

그리고 이번에 개봉한 '모래가 흐르는 강'은 스님의 이런 삶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마디로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필자는 영화를 보고 난뒤 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직접 내성천을 탐방하기도 했다. 강둑에 텐트를 치며 살아가는 스님의 모습은 스님의 의지가 스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스님에게 죄송스러웠다. 결국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스님 혼자서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온몸으로 살고 계셨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 불교계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 죄송스럽기까지 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는 강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강은 그야말로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정말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자연인데 부끄럽지 아니한가? 독일은 콘크리트로 쌓아 놓은 작업들을 다시 원상복구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토목공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참담한 일이었다.

이제 우리는 '모래가 흐르는 강'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계종 사회국장
성원 스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AMERICAN ORIENTALISM UNIVERSITY

기회 획득 · 자기완성 · 글로벌 약진 · 세계인 위상 · 원격 화상 개방 교육 · 미국학제

고교미필자인증입학과정/국가사회공로자고시과정/대학중퇴자/학사단축과정/학사과정/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박사과정

본교 2013년도 2학기 '학생모집'(수시가능)

- 동 양 학 과 (육임학/사주학/풍수학/경서학)
- 종 교 학 과 (불교문화학/기독신학/민족종교학)
- 차 문 화 학 과 (한국차학/중국차학/일본차학/다기학)
- 약 초 학 과 (양방재학/한방재학/시장분석학)
- 물리치유학과 (신체학/향취학/물신학)
- 안 경 학 과 (검증학/재료학/제조학)
- 한방미용학과 (피부학/체질학/재료학)
- 전통식품학과 (장유학/효소학/재료학/주정학)
- 서예문인학과 (동양화학/문인화학/고미술학)
- 전통문화학과 (판소리학/고전무용학/사물학/제물학/도예학/전통의상학)

The Board of Trustees of American Orientalism University

AOU

특 전

- 가정사정으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에게 본교 심의를 통해 본교 '인증과정'(3개월)을 거쳐 본교 4년제 정규과정에 입학하게 함.
- 대학교 중퇴한 분에게 본교 심의를 통해 본교 단축 과정에 입학 1년 만에 정규 학사과정을 마치게 함.
-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국가 사회에 끼친 공로가 크고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분에게 본교 심의를 통해 본교 대학원 정규과정에 입학하게 함.
- 본교 박사 과정을 수료한 분 본교 교수로 우선 선발 함.
  본교 박사 과정에 재학하는 분인 본교 교수에 발탁되는 경우 해당학 분야 논문심사 후 선 학위 부여 함.

교수초빙

본교는 국내 비인가 종립대학, 관련 학회, 사회단체, 개인도제, 사숙 등과 MOU체결을 통한 본교 소정의 커리큘럼 이수에 의해 학위를 획득, 졸업시키는 학제를 적극 시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과의 학사과정 / 석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박사과정의 교수를 초빙합니다.
2013.4.30까지 미국동양학대학교 한국경영지원협회로 연락바랍니다.

이사장 · 총장 김 영 배

AOU 미 국 동 양 학 대 학 교

국내 안내 02)738-8683
주소 : Nauru Loop Susupe Saipan Northern Mariana Islands U.S.A. 96950 / Po Box10001
American Orientalism University (인가번호 : 99-3013255) / President Young Bai Kim
비영리법인 한국경영지원협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3 남도빌딩 401호
www.aou.ac